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욕심 때문에 마음거울에
때가 묻었으니
욕심이 다 없어지면
자기의 본래 면목을 볼 수 있다.
-성철스님-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2월 9일 수요일(주간) 제257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인터넷이라구요? 아직도 일선 사찰 현장에서는 자체적인 통신망은 고사하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용량의 컴퓨터를 갖춘 사찰이 드물다고 봐야지요. 이런 현실에서는 인터넷은 먼 나라의 이야기겠지요."

승가대학을 다니는 한 학인스님이 인터넷 시대를 맞는 불교계 현실의 허상과 실상을 지적하는

인터넷시대 딱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말이다.

중생들은 인터넷 정보의 바다 속에 살고 있건만, 이를 매체로 교화에 나서야 하는 불교인터넷 활동은 총도 없이 싸움터에 나선 용사들 마냥 뭔가 앞뒤가 어긋나 있다는 지적이다.

설령 컴퓨터를 갖춘 사찰이라 하더라도 우편 팩스 신도관리 정도의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는 형편이다. 정보의 꿀이 흐르는 인터넷 진가를 백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겁명' 수준의 스님과 종무원들이 상당수로 알려진 현실에서 이를 기대하기란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사찰마다 보유해야

불교정보화는 당연한 말이지만, 1차적으로 컴퓨터를 갖추고 이어 교육으로 무장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상식적이다. 사찰에서 컴퓨터 활용해 실습조차 할 수 없는 여건에서는 컴퓨터를 즐기고 이용하는 중생들을 교화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고 볼 수 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스님과 재가 불자들을 기른다는 취지에서 적어도 사찰마다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갖추는 것부터 불교인터넷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 이후 컴퓨터에 자주 달라 들어 자연스레 친숙해지면서 활용도를 넓혀 가는 것이다.

50만개가 넘는다는 사이트들을 넘나들면서 지식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통신도 하고 교리 상담성 채팅도 하면서 중생이 어떻게 아파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인터넷 포교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위영란 기자(yryui@buddhapia.com)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문의전화 : (02)705-5560~1
후원회ARS 전화 : (02)700-0108
은행지로 번호 : 8003478번
최한은행 189-13-03929-3
국민은행 827-25-0020-943
농 협 069-01-238223
예금주 : 불교방송

정부 '장기이식법' 시행…뇌사 합법화

장기기증운동 활기띨듯

화장확산도 예상…교계 납골시설 부족

지난 1일 정부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교계의 장기기증운동이 더욱 활기를 띰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 맞물려 화장문화도 폭넓게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이를 뒷받침할 납골당 시설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이번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장기기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불교계 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1인 1장기기증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생명나눔실천회는 스님과 각급 신행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뇌사의 합법화 문제는 지난 90년 이후 교계에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려 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세계적으로 뇌사를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나는 등 시대적 흐름이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추세고, 교계에서도 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영석 교수(고려대 의과대학)는 "장기이식 법적 근거마련은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종교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면서 더불어 화장(火葬)을 선호하는 추세도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화장문화를 뒷받침할 납골당 시설은 크게 부족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현재 전국에 납골당이나 영탑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준비중에 있는 사찰은 밀양 천불사, 부천 석왕사, 한마음선원 금왕지원과 3월부터 분양을 시작하는 수덕사 탐립공원 등 20여 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와 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가 밝혔듯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화장터와 납골당이 수요에 비해 2배나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고, 화장문화가 어떤 종교보다도 불교교리에 가장 근접해 있음을 고려할 때 불교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복지재단 이호걸 과장은 "이제는 스님 개인의 원력에 기댈 것이 아니라 본사급 사찰을 중심으로 하는 교계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장묘문화를 불교가 다른 종교보다 한발짝 앞서갈 수 있는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김대중대통령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지역갈등 해소와 사회안정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불교 공동취재단

"지역갈등 해소 불교계 앞장" 당부

김대통령, 불교지도자 초청 오찬간담회

김대중 대통령과 불교지도자들은 1일 청와대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불교계 현안과 지역갈등 해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는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을 비롯해 20여 종단 총무원장과 교계언론사 사장,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등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김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2년 동안의 치적을 설명하고 불교계가 지역갈등 해소와 사회안정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또 양천구민체육센터를 불교중앙교원(조계종총무원)이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과 관련, 박지원 문광부장관에게 검토해서 시정하라고 말했다.

이날 종단협의회는 14개항의 '불교계 대정부 건의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찰주변 환경 보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사찰방화, 성보도난 방지시설 설치 △중앙불교박물관 건립 지원 △남북불교교류 지원 △전통사찰의 농지취득 허용 △공원지역 등에서 사찰 증·개축 허용 △민영교도소의 종교형평성 고려 △종교간 형평성 있는 방송위원회 구성 △문화재 복원 보전 지원 △종교편향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사찰 오·폐수 처리시설 지원 △지리산댐 전면 재검토 △종교단체 면세혜택 유지.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방송위원 '기독교 일색'

조계종 원로회의등 '종교편향 인사…시정해야'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과 부의장 종산, 도원스님, 총무원장 정대, 교육원장 일면, 포교원장 정련스님, 중앙종회 의장 법등스님 등 의장단을 비롯 중앙종무기관 부장들은 새 방송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2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각 정당에서는 이번 방송위원 추천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이 성명을 발표하며 원로회의 의장단과 3원장, 종회 의장단, 중앙종무기관 부장들이 연명하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탄성스님 등은 성명에서 "언론정책에 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추천되지 못하였으며,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인 종교간 형평성이 지켜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천승가회 재가연대 등 불교계 12개 단체도 3일 성명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도외시한 채 특정종교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한다면 현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국회교섭단체에서 2명씩 추천해 내정된 6명과 대통령이 추천하는 3명 등 9명으로 이달 중 구성된다. 정당 추천으로 내정된 6명 가운데는 개신교인 4명, 천주교인 1명, 무교 1명이며, 대통령 추천 인사로 거론되는 8명 가운데는 무교 1명을 비롯 개신교인 5명, 천주교 1명, 무종교 2명이다.

정성운 기자

비룡-송암스님 영결식 봉행



◇비룡스님



◇송암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비룡스님(월정사 조실) 영결식이 1일 월정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봉행됐다. 영결식에는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과 부의장 종산스님, 전 조계종종정 서암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비룡스님은 1월 28일 세수 1백세, 법랍 73세를 일기로 월정사 방산굴에서 입적했다. <비룡스님 행장 3면>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 송암스님(영산재보존회 총재) 영결식이 3일 서울봉원동 봉원사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영산재보존회 회원, 봉원사 신도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재 보존회장으로 봉행됐다. 송암스님은 1일 오전 6시30분 세수 86세, 법랍 67세를 일기로 봉원사 설법전에서 입적했다. <송암스님 행장 7면>

정성운 기자

남북불교교류위 재구성 움직임

종단협, 위원 재선임키로

종단협의회 산하 남북불교교류위원회(위원장 양산 조계종 사회부장)의 재구성 움직임이 일고 있다. 종단협의회 사무국은 지난 1월 26일 이사회에서 남북불교교류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함에 따라 직제 개편 및 위원 재선임을 논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종단협의회 사무국은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총지종 등 남북불교교류를 펼쳐온 종단의 관계자들과 설 직후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그러나 남북불교교류위원회에 단체·기관의 참여는 고려하지 않다. 또 종단협의회 산하 민족화합불교추진위에 대해서는 대북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운 기자

KCRP 새 회장에 정련스님 추대될듯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17일 서울경운동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회장 추대와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한다. 대회장에는 조계종포교원장 정련스님이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KCRP 회장은 전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이 맡았으나, 고산스님이 지난 해 조계종사태로 총무원장을 물러남에 따라 공석중이다. 정성운 기자

10월 불교문화 엑스포 연다 2면
불교 검색사이트 '선재' 떴다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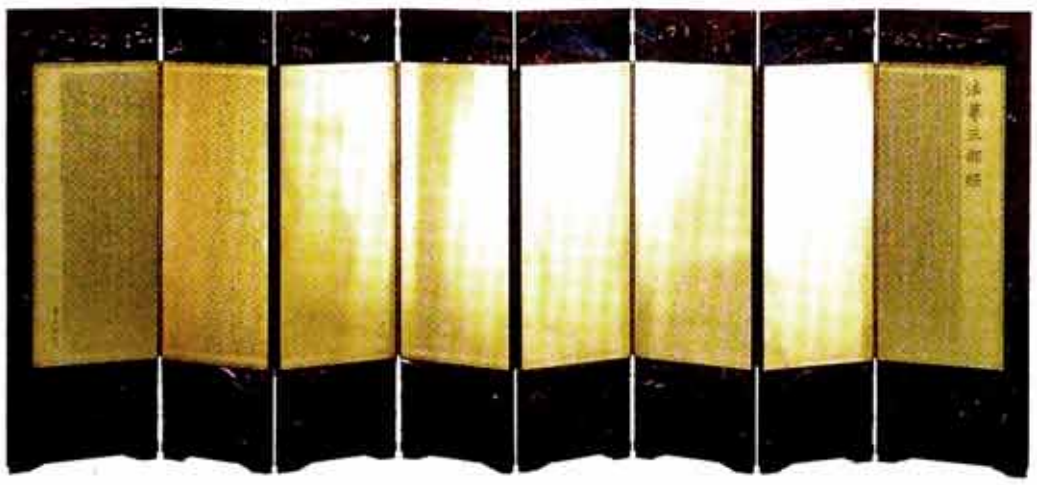
현세(現世)의 불자들이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家寶)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성품(聖品)

법화삼부경(一名, 법화경) 금니 8폭 조각 병풍

『아래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특 징

- 법화삼부경 8만4천여 자가 8폭 금속판 위에 한자 한자 양각으로 일체 조각되어 99.9% 순금으로 도금된 후 영구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표면에 특수코팅 처리를 하여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습니다.
- 병풍은 한폭마다 연꽃, 구름, 법륜, 하늘, 바다 등 모든 구성요인이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로 전해질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가지 않는 목재와 특수재질을 혼합하여 조성되었습니다.
- 본 병풍 소장자는 부부이름이 금속판에 조각, 순금으로 도금한 후 병풍 뒷면에 부착되므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님으로 길이 남게 됩니다.
- 본 병풍은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한폭 한폭 조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신청 후 받으시는데 1~ 2주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인도방법은 손상의 우려가 있어 한폭 한폭을 원하시는 장소까지 본회에서 직접 모셔다 드립니다.



〈규격〉 높이 : 152cm 길이 : 366cm 무게 : 70kg

■ 본 병풍을 모신 스님과 불자들에게 일어난 신비스러운 사례

①집안의 공기가 병풍에서 쏟아져 나오는 법기(法氣)의 영향으로 맑아지면서 집안에 생기가 가득차고 앞으로 6개월짝에 못산다는 중환자가 건강이 점점 호전되어 낭아지고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
②도산 직전에 있던 회사가 사장이 이 병풍을 모신 후부터 매출이 몇배 신장되고 우연히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생기고 하여 이제는 완전히 회생하였다.
③자손이 없어 고민하던 사람이 병풍을 모시고 그 앞에서 2개월 정도 기도후 아기를 갖게 되었다.
④집안에 도적이 들어 온 집안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한다. 집안에 현금과 보석이 가득한데 그것을 못찾고 간 것은 병풍의 법기(法氣)가 재산을 가려주었다고 본다.
⑤사법시험에 9년동안 실패했던 고시생이 집안에 병풍을 모신 뒤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⑥수험생을 둔 학부모 7명이 모두 병풍을 모신 뒤 원하는 대학에 특차로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⑦기독교를 믿고 있던 사위가 병풍을 모신 뒤 바로 불교로 귀의하면서 매일같이 병풍앞에서 3배씩 절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불경을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⑧37세의 노처녀가 병풍을 모신 뒤 2개월 만에 총각 한의사를 만나 결혼하였다.

상기 효험사례 외에 병풍을 모신 사람마다 크고작은 집안의 경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가족들이 모두 병이 없어지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집안이 화목해지고 어떤 일을 하던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어떤 힘(力)이 도와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는 신비스러운 작용들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 연락주시면 카다로그 및 설명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 과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신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담문의 및 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 (0335)334-9490, (0335)334-9491
야간 : (0342)706-306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10월 아셈회의 기간중 '세계불교문화 엑스포' 연다

봉은사 · 정부 실무팀 구성 합의…불교테마파크도 9월 완공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아셈(ASEM) 정상회의 기간중 불교문화와 가치관을 세계에 알리는 '세계불교문화엑스포'가 개최될 전망이다. 또 이와 때맞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불교관련 문화를 한데 모으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불교테마파크'도 건립된다.

특히 이 두 가지 불사는 올해 아셈회의에 이어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불교문화를 통해 한국의 정서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봉은사(주지 원혜)는 1월 31일 교계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불교문화엑스포 개최 성사를 위해 정부관계자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실무를 맡고 있는 박금직 기획과장은 "1월 중순 원혜스님이 박지원 문광부장관과 만나 불교문화엑스포에 대한 지원협조의사를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봉은사는 지난 1월말 정부의 아셈기획단 및 강남구청 아셈추진팀과 이번 엑스포 진행을 위한 실무운영팀 구성에 합의한 상태다.

봉은사가 밝힌 이번 엑스포는 '동양으로 가자(COME ORIENTAL)'를 주제로 아셈회의가 개막되는 10월 20일 일주일 전부터 폐막 일주일 후까지 15~20일간 봉은사 경내, 한강 고수부지, 올림픽공원 등지에서 열린다.

프로그램으로는 공식행사를 비롯해 불교문화관련 전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등의 특별행사, 불교문화예술공연, 불교영화제 등의 이벤트, 학술행사, 상징탑 건립 등 모두 7개 분야에서 40여종의 각종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불교문화의 의미와 한국불교문화 및 각국 불교문화 등을 소개하는 전시와 범패·바라·불교무술·오페라·어린이 인형극·영화 등 불교관련 예술을 망라한 공연, 영산대재·탑돌이·야단법석·음식문화제 등의 이벤트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국제불교사상 최대의 '불교잔치 한마당'이 될 전망이다.

불교테마파크는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 온 문화센터 대신 교육·문화 등을 포함한 불교종합문화공간을 건립키로 대우측과 최종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현재 예식장 설치문제 등과 관련한 부분적인 합의만 남겨놓은 상태다. 공사비 270억원은 대우측에서 전액 부담하며, 10년간 봉은사와 대우가 공동운영하고 이후 봉은사가 운영권을 갖기로 돼 있다.

봉은사는 불교테마파크 역시 불교문화엑스포와 마찬가지로 아셈회의 기간중 불교테마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지하공사를 거의 끝낸 상태며, 9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봉은사 맞은편에 마련된 아셈회의장과 테마파크를 잇는 지하로도 추진중에 있다.

봉은사 옆 사하촌 일대에 세워질 불교테마파크는 연건평 5천3백여평에 지하4층 지상3층 규모로 약초사우나·치료센타 등 건강타운과 불교예식홀을 포함한 각종 공연장, 불교박물관, 가족실과 단체실을 갖춘 선방, 위패를 봉안하는 극락전, 전통놀이공간 등으로 꾸며진다. 따라서 불교테마파크는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한국불교 발전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봉은사는 오는 2007년 봉은사 개산 1212년을 기념한 '1212 기념사업회'를 오는 3월 발족키로 하고 불교테마파크 및 보우당(식당·강당) 건립 등 12대 불사와 불교문화엑스포 및 봉은문화예술단 창립 등 12대 기획사업을 확정·발표했다.

원혜스님은 "이 모든 사업이 기도하는 도량·공부하는 도량·가족과 함께 하는 도량이라는 봉은사 3대 목표아래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불교문화엑스포와 불교테마파크를 통해 새로운 불교문화와 관광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계종 77개 선원서 납자 1631명 동안거

추운겨울에도 피어나는 인동초처럼 전국선방에 수행의 꽃이 활짝피고 있다.

조계종교육원(원장 일면)이 3일 발표한 전국선원 정진대중 현황에 따르면 5곳의 총림을 포함한 77개선방에 1,631명의 수행납자들이 정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수가 정진중이거나 개별적으로 안거에 참여하고 있는 미집계사찰까지 합하면 1백개 선원에 2천명이 정진중인 것으로 교육원은 추산하고 있다.

이중에서 비구는 45개 선방에 776명이며, 비구니는 27개 선방에 712명이 동안거 결제중이다. 특히 해외사찰인 하와이 대원사 태평선원에도 8명의 눈푸른납자가 정진중이다.

교육원 박희승과장은 "종지종풍 선양과 수행가풍진작을 위해 19일 해제하는 동안거 성만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종단차원에서 안거이력을 집계하여 관리키로 했다"며 "안거자료는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법계제도및 승려복지제도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법륜종 제3세 종정 정각스님 추대법회

한국불교 법륜종 제3세 종정 영산 정각 대종사 추대법회가 1월 29일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성대히 봉행됐다.

종사이운 삼귀의례 반야심경봉독, 추대사(법륜종 총무원장 법선스님), 정각스님 행장소개(부원장 호명스님)에 이어 법장 봉정과 봉축사(법륜종 종회의장 혜봉스님)가 있었다. 법어에서 종정 정각스님은 "정법안장 열반묘심 종풍선양 위법망구(正法眼藏 涅槃妙心 宗風宣揚 爲法亡軀)이며 바른눈으로 세상을 보니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고 설했다.

이날 도암(대승종 종정) 인곡(태고종 총무원장)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스님과 김근태(새천년 민주당 지도위원) 함종한(한나라당불자회장) 김홍일(국회의원) 씨등이 각각 축사를 했다. 추대법회에는 인왕(여래종 종정) 혜초(태고종 전 총무원장) 무진(원효종 총무원장) 원택(조계종 총무부장) 남정(총화종 총무원장)스님 등 각 종단지도자와 정계, 보현정사 신도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했다. 이경숙 기자

불교상담개발원 3월말 개원

조계종 포교원, 상담대학 설립목표

불교전문화와 포교활성화를 위한 불교상담개발원이 3월 31일 개원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12일 실무자 회의를 갖고 스님과 재가불자 20명으로 구성될 이사선임과 사업계획, 예산안확정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담이론과 방법, 사찰이나 단체의 실제상담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포교방법론을 모색하게될 불교상담개발원은 교양강좌와 타종교 상담사례연구, 종무원과 단체실무자를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학생을 위한 집중력향상프로그램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불교상담에 관심있는 전문가집단도 영입하여 2박3일 일정으로 연수교육도 실시하는등 불교적 상담이론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체 지원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각 사찰, 파라미타, 포교사단, 각 복지관등의 지원교육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포교원은 상담개발원의 안정적인 재정구축을 위해 이미 불교상담개발원 운영예산 2,8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김원우 기자

조사국장에 밀인스님

조계종 총무원 일부인사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일 호법부 조사국장에 밀인스님, 상임감찰에 혜봉, 경우, 태진스님을 임명했다.

조사국장 밀인은 자공스님을 은사로 출가, 73년 경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78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정성윤 기자

조계종 교무국장 연수회

조계종교육원은 15일부터 16일까지 직지사에서 교구본사 교무국장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99년 교구본사 대상의 연수회를 평가하고 올해의 연수회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이와함께 통일적인 교구행자교육을 위해 습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포교사고시 합격자 1차연수

조계종포교원(원장 정련)은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제5회 포교사고시 합격자 321명이 참가한 가운데 1차연수를 실시했다.

포교원장 정련스님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포교사는 불자로서 더없는 영광임을 알아야 한다"며 "여래사 다운 사명감과 실천력으로 포교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회는 '조계종사의 이해' '포교사의 원력과 삶' '활동분야별 포교특성의 이해' 등의 강의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2차연수는 26일부터 27일까지 김천 직지사에서 '수행과 포교' '종단구조와 운영체계' '포교활동 길잡이' '지역포교사단 활동방안과 팀편성'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김원우 기자

"서울불교문화대학 설립"

관음종 주지총회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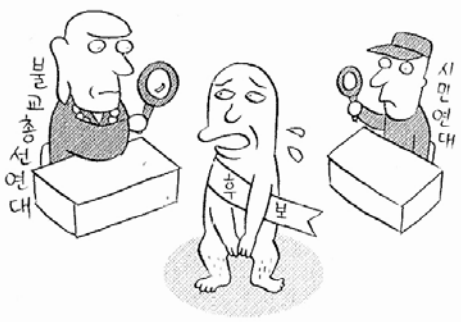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1월 27·28일 양일간 창녕 법성사에서 전국주지총회와 제37차 중앙종회를 개최했다. 150여 사암 주지가 동참한 주지총회에서는 신년하례법회와 함께 서울 총본산 묘각사에 스님들의 자질향상과 재가불자들의 포교활동에 일익을 담당할 2년제 교양대학 '서울불교문화대학'을 설립키로 하고 오는 3월 10일 입학식을 갖기로 결정했다.

28일 열린 중앙종회에서는 8대 종회의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월19일 종회의원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한 42명의원에 대한 제9대 종회의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어 열린 제 37차 중앙종회에서는 총무원법을 개정, 총무원 부원장직을 새로 신설키로 하고 전 총무부장 김지섭스님을 부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제9대 종회의장에 종회의장 정법륜스님을 재추대했고 부의장에는 박송월스님과 김성철스님을 각각 선출하였다. 또한 새해 주요사업으로 총본산 복원불사, 복지재단 설립, 불교문화대학 설립 등을 확정하고 예산 31억6천936만원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 공석주인 원로원장에는 김성각스님, 포교원장에는 정법성스님이 각각 추대되었고 총무부장에는 황법명스님이 임명되었다. 이경숙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더 깨끗한 선거를 위해

학인 수행기록부 추진 교과과정 표준화작업도

조계종 교육원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1월 26일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기본교육기관 학장회의를 개최하고 승가대학 수행기록부 실시와 교과과정 표준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구성된 교재개편및 편찬소위원회(위원장 지오)는 지난해 승가대학 종합평가를 통해 분석된 현행교과과정을 토대로 전국 강원의 통일적인 교과과정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수행기록부 실시 및 통일교과과정 마련은 종합적 교육평가를 통한 양질의 승려양성과 승가대학 운영의 체계통일, 그리고 면학풍토 조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승가대 동국대 기초선원및 강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4급 승가고시를 시행하여 강원졸업고사로 대체하고 합격자에 한해 구족계 수계자격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2학기부터 학적기록과 성적, 예불, 간경등 행해 및 위의의 평가표인 수행기록부를 작성하여 학인들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金河堂 光德 大禪師 1주기 追慕法會 및 『광덕 스님의 생애와 불광운동』 奉呈式 奉行案內



금하당 광덕(金河堂 光德) 대선사 연표

1927년 경기 화성 출생 ‖ 1950년 부산 범어사 입산 ‖ 1951년 부산 범어사 청풍당 정진
1955년 부산 범어사 통산 선사를 은사로 득도
1956년 비구계 수계, 대각회 창립 초대회장 ‖ 1958년 조계종 중앙감찰위원 ‖ 1961년~1962년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
1963년 대학생불교연합회 초대 지도법사 ‖ 1965년~1967년 봉은사 주지 ‖ 1965년~1974년 학교법인 대동학원 이사
1966년~1979년 학교법인 원효학원 이사 ‖ 1969년 재단법인 대각회 감사
1970년~1973년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 1971년 청담 스님 열반시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1973년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 ‖ 1974년~1976년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 ‖ 1974년~1999년 순수불교 운동지 월간 「불광」 발행인
1975년~1999년 불광법회 창립 법주 ‖ 1977년~1995년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 역임
1976년~1978년 조계종 총무원 중앙종회 부의장 ‖ 1979년~1999년 불광출판부 개설 발행인
1990년~1996년 선찰 대본산 범어사 금강계단 보살계 전계대화상 ‖ 1992년~1999년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 도서출판 한강수 개설 발행인
1993년~1999년 재단법인 보덕학회 이사 ‖ 1999년 2월 27일 (음력 1월 12일) 열반

역저서 -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삶의 빛을 찾아, 빛의 목소리, 반야심경 강의, 보현행원품 강의, 행복의 법칙, 에이리 없는 골짜기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선관책진, 육조단경, 부모은중경 관음경, 지장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천수관음경, 법회요전 등 다수

찬불가 - 칭작 국악교성곡 보현행원송 부모은중송, 마하반야의 노래, 연꽃 피는 날, 한림한 이 야첨, 초파일 송가, 빛으로 돌아오소서
님의 숨결, 임은 태양 위 태양, 혼자 있을 때, 보디스바하, 우리는 불국토의 주인이로다, 번영하는 사람의 기도 등 다수 작시

큰스님께서 열반하신 지 벌써 1주기가 되어옵니다. 그대로 빛이었고 법등(法燈)이었으며 종단과 세간의 밝은 등불로 한국불교 현대화와 대중화의 거성이셨던 큰스님의 덕화는 영원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반야광명이요, 인간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임을 간곡히 역설하신 큰스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새로운 문명의 세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혼돈과 불안으로 잔뜩 왜소해진 인류에게 큰스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설파하셨습니다. 뭇 대중에게 스스로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임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법으로 보리이루리'는 큰스님의 부촉을 계승하여 더욱 일로매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아울러 큰스님 1주기를 즈음하여 큰스님의 생애와 사상, 불광의 이념, 불광운동의 업적, 포교에 관한 자료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여 한 권의 책자로 묶었습니다. 이 책자가 한국불교 미래의 진로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해 큰스님의 열반에 즈음하여 원근 각처에서 보내 주신 후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큰스님 열반하신 지 1주기 되는 오는 2월 16일 사부대중을 모시고 추모법회 및 『광덕 스님의 생애와 불광운동』 봉정식을 갖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원합니다.

불광법회 · 불광사 법주 지정 주지 지암 합장

· 일 시 : 2000년 2월 16일 (음 1월 12일) 오전 10시
· 장 소 : 불광사 보광당 (서울 송파구 석촌동 160 - 1)
· 연 락 처 : 02 - 413 - 6060 ~ 2

불광법회 · 불광사

목어

사랑의 매

얼마 전 대법원의 판결 가운데 사랑의 매를 인정한 판결이 있어 주목된다. 체벌을 받은 한 학생의 고발로 이루어진 이 사건은 그 다툼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법률적인 판단을 받은 것이라서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중요한 사안이다.

"선생님, 미국의 법률이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말로 선생님의 꾸중을 피해가려는 이웃나라 장면을 처음 접했을 때 퍽 당혹스러웠다. 나아가서 부모님들의 꾸중까지 사법적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당혹스러웠지만, 얼마 전의 외신이 전해주는 부모고발 권고를 보곤 더욱 당혹스러웠다. 내용인즉 불란서의 외신인데, 자식을 낳고 책임있게 기르지 못하거나 교육비를 부담할 수 없는 부모를 고발하라는 것이다. 아직까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부모와 자녀, 교사와 제자 관계가 사법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일이 뿔로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10여년 전 영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한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았다. 숙제를 해오지 않은 잘못으로 채찍으로 손바닥을 맞았다. 그 사건은 곧바로 고발되었고, 영국의 법원은 신중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했다.

결론은 이렇다. "체벌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이 반드시 교육적이라야 한다." 이렇게 밝힌 법원은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체벌은 정당하지만 체벌의 방법이 비교육적이란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 교사가 체벌에 사용한 채찍이 성도착자가 사용하는 채찍이었다는 것이다. 채찍 그 자체도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판결이다. 체벌도 정당하다는 논리만을 앞세워 체벌을 남용해서도 안될 일이다. 체벌이 합당해야 하고 당사자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체벌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도 높일 수 있어야 하고, 교육적인 기준에 반드시 근거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의 깊은 내면적인 성숙이 앞서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모든 것을 교육적인가 비육적인가를 먼저 검토한다면 체벌 그 자체를 경직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근후(이화의대 교수·본지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현대불교 www.buddhapia.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다시 오셔서 등불이 되어주소서"

삼광당 비룡스님 원로회의葬

오대산의 송죽(松竹)이 적멸의 국토로 환지본처(還地本處)하다. 삼광당(三光堂) 비룡(飛龍) 대종사 원로회의장이 1일 월정사에서 봉행됐다.

1일 오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탄성, 원로의원 종산·지종·청하스님, 총무부장 원택, 중앙종회 부의장 명진, 합종한 한나라당 의원, 김종락 월정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영결식은 명종(종두 5타), 삼귀의, 영결법요(청혼 및 독경), 행장소개, 추모입정(육성녹음), 영결사(원로회의 의장), 법어(종정스님), 조사 및 조가, 헌화·분향, 인사말씀(문도대표), 사홍서원, 발인 등으로 진행됐다.

탄성 원로회의 의장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스님 몸이 출세하신것도 중생을 위함이요 입적에 드는 것도 중생들에게 무상설법(無常說法)을 하고, 생사 일대사의 대각(大覺)의 길을 인도 함이로다.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종단 발전에 등불이 되어 주소서"라고 기원했다.

이어 혜암 종정스님(탄성스님 대독)은 법어를 통해 "생과 멸이 본래 없으니 가고 옴 또한 어디 있으리, 목마는 하늘을 날고 진흙소(泥牛)는 바다를 건너도다"고 설했다.

특히 고령으로 영결식장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전 조계종 종정 서암스님이 보내 온 애도사는 참석자들의 마음을 적셨다.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반하던 날까지도 금욕을 전폐하고 꼬박 밤을 세워가며 불보살님께 기도드리시던 비룡 스님. 비룡스님의 그 대원력을 또 누가 이어갈까. 가슴 답답하며 할 말을 이을 수 없습니다."

스님의 법구는 이날 오후 2시 월정사 일주문 근처에 마련된 다비장에서 불꽃과 함께 4대로 돌아갔다.

행 장

1901년 개성에서 출생한 스님은 1927년 3월 오대산 월정사에서 한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강원도 인제에서 한암스님의 법문을 우연히 듣고 느낀 바 있어 서신왕래를 통해 사제지간의 연을 쌓은 후 한암스님이 일러 준 '무(無)' 자 화두로부터 수행을 시작했다.

처음 월정사에서 부목생활, 공양주 등 허드렛일을 하면서 하심(下心)공부를 해 나간 스님은 탄허스님으로부터 "무릇 모든 사물은 무상한 것이다. 만약 모든 사물이 진실이 아님을 본다면 여래를 보리라(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는 금강경 4구게(四句偈)를 듣고 출가를 발심, 온갖 상(相)을 깨치고 본성을 보리라 결심했다.



◇오대산 관세음보살의 화신(化身)인듯 송죽(松竹)같은 청빈한 삶을 살다 간 비룡스님이 문도들의 배웅을 받으며 '환지본처' 하고 있다.

스님은 "공부라는 것을 일념으로 생각하되 계(戒)를 지켜야 한다. 공부하지 않으면 쌀 한톨이라도 먹어서는 안된다. 차라리 끓는 쇳물을 마실지언정 시주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 한암스님의 가르침을 늘 강조했다.

한평생 생식(生食)을 하게 된 이유도 여기 있다. 솔잎을 갈아서 먹는 생식은 몸과 마음을 아주 가볍게 해 음심(淫心)이나 탐욕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좋은 점이 있다는 것.

1950년 6.25동란 때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에서 정진수행중이었는데,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다.

수행중에 강도가 들어와 쌀가마를 탈취해 갈 때 "이 사람아, 반찬값도 가지고 가야지"하고 쌈지에서 돈을 꺼내준 일로, 자비심 많고 착심(着心)이 없는 도인으로 세인들의 존경을 받았다.

1947년 해인사 안거이래 40안거를 성만하면서도 틈틈이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 온 스님은 "수년안에 통일이 될 것이니, 남한에서는 식량을 많이 준비해 둬야 한다."고 말해 왔다.

비룡 스님은 열반하는 시기를 미리 알고, 입적할 때 호주머니에 열반송과 함께 다음과 같은 유훈을 육필로 남겼다.

"사바세계 화택고해(火宅苦海)로다. 중생들아 꿈만 꾸지 말라. 반성하여 꿈을 깨오. 공부하여 고통없는 해탈, 수심수행(修心修行)하면 일체유심조이고 마음에 때와 티끌과 먼지를 제거하면 마음이 밝아 질 수 있다. 심성이 밝으면 고통이 없고 마음이 안정되고, 꿈이 없으면 '각(覺)'이리라."

비룡스님 열반송

來與白雲來
去隨明月去
去來一主人
畢竟人道生

흰 구름이 오듯 더불어 와서
밝은 달이 가듯 따라서 가네
한 주인이 가고 옴이
필경 도인의 삶이라

수행이력

- 1901년 4월 8일 개성 생
- 1927년 3월 월정사에서 한암스님을 은사로 출가, 8월 사미계 수지
- 1940년 금강산 마하연 주지
- 1947년 4월 해인사에서 상월 대율사를 계사로 비구계 수지
- 1947년 해인사 안거이래 40 하안거 성만
- 1958년 한라산 천왕사 창건
- 1986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 1987년 천왕사 조실
- 1992년 오대산 월정사 조실
- 2000년 1월28일 오대산 방산굴에서 입적

평창=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선종어록 언어학적 탐구 활발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❺중국의 선어록 연구

현대의 중국학계에서 선어록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역사학자나 철학자가 아닌 중문학자들이 많다. 아마 중국 내에서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당·송시대에 편찬된 선어록의 언어 구조나 문법을 연구하여 당시의 언어와 현대언어의 차이를 밝히고, 또한 의미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살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작업의 결과물은 특히 당·송시대에 편찬된 선종어록이 당·송시대의 구어체로 쓰여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구어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의 보고가 아닐 수 없다.

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선종어록은 다음과 같다. 우선 6조 혜능(638-713)스님이 편찬한 〈육조단경〉이 있다. 혜능스님은 당나라 초기의 사람이지만 〈육조단경〉은 그의 입적 이후 최초기에 편집된 법해본(法海本). 당나라 말기 혹은 송나라 초기의 승려인 혜흔(慧昕)이 개편한 판본, 송대의 승려 계승(契崇)이 개편한 판본, 원대의 승려 종보(宗寶)가 개편한 판본 등이 있다. 둘째는 혜능의 제자인 〈하택신회어록〉이 있다. 당나라 시대의 구어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세번째는 〈조당집〉이다. 이 책 속에는 고대의 일곱 부처님과 선종의 33조사 이외에 선사 206명의 전기가 실려 있다. 그리고 그들이 당나라 말기 스님들이란 점에서 당나라 말기와 오대의 언어를 연구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이다. 특히 중국에서 없어진 것이 1920년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어 비로소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책이다. 넷째는 〈경덕전등록〉이다. 송나라 초기 승려인 도원(道原)이 1004-1007년 사이에 편집한 어록집이다. 〈조당집〉에 나오는 '作摩(어떠한)', '作摩生(어떻게 할 것인가)', '什摩(무엇)', '甚摩(어떤, 무엇)' 중의 摩와 구문 끝에 나오는 어 어기조사 摩를 모두 麼로 변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송대의 언어상황이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다섯째는 〈오등회원〉이다. 남송말기인 1241-1252년 사이에 선승인 보제(普濟)에 의해 편집되었다. 이 책은 남송에서 편집된 관계로 남송의 언어상황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여섯째 〈고존숙어록〉이다. 남송 소흥 원년에 북주의 고산사에서 색장주(賾藏主)라는 사람이 편집한 것으로 전해온다. 이 책은 〈경덕전등록〉과 〈오등회원〉, 〈주자어류〉의 사이에 편찬된 어록이며, 그 사이의 언어상황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차차석
불교학 박사

그동안 중국의 국문학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선종어록의 언어구조를 해부하기에 노력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경제개방 이후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선종어록에 대한 언어학적 탐색에 대해 이제까지의 성과와 학자들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당집〉에 대한 언어학적 탐구를 하는 학자는 조광순(〈조당집〉 중의 底(地), 却(了), 著, 〈중국어문〉 1986), 조소운(〈조당집〉 被字句연구, 〈중국어문〉 1993) 이외에 장소우, 이숭흥, 이사명 등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등회원〉을 연구한 사람으로는 원빈, 동지시, 은문청, 황령경 등의 학자들이 있으며, 〈경덕전등록〉에 대해서는 조생리, 여숙상 등이 있다. 이외에 불경을 언어학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이유기와 양효홍 등이 있는데 양효홍은 '선종전적 중 '子'의 용법'을 비롯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불만한 단행본으로는 1995년에 발간된 우곡의 〈선종어언과 문헌〉(강서출판사), 1998년 무한대학출판부에서 간행한 〈'고존숙어요' 대사조사연구〉란 책이 있다.

이상에서 소개한 선종어록에 대한 연구 방법과 목적은 전문불교학자들과는 다르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 결과는 선어록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의 본래 의미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작업이다.

이제까지 한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어록을 번역했다. 그러나 선어록의 문법이나 언어구조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번역한 것은 아니다. 간혹 불교학 연구지에서 언어학적 접근을 시도한 논문을 본적은 있지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번역상의 오류를 피하고 원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나 선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사람들의 양성이 시급하다. 우선은 종립 등국대학교 중문학과에 불교한문학 내지 선어록을 언어학적 차원에서 전공한 학자들을 채용하여 후학을 양성하길 기대한다.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연말연시 특별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은 佛法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慧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華嚴經」 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몸을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의 따뜻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랑스러움을 북돋워 준다.
10. 품위를 높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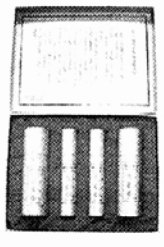
『華嚴經』 선재행선품 제4천 30에 선재동자는 五分香을 찾아나서는데 能藏이란 향이 있으니 중생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침노하지 못하고 이레 동안 기쁜 마음이, 가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편안한 생각이 나며, 모든 병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하여진다. 그리고 계향·정향·혜향·해탈향을 얻어 해탈해지며 향을 얻어 삼막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항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근청정하고 복덕이 구족하는 인연을 지어줍니다.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게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관불의식, 관욕의식 (목욕 재개향) 있습니다.

♣오분향과 생기향을 만든 동기

향을 사루어 부처님께 공양올려 염불 수행 20년이라 그간에 이름모를 각가지 향을 접하였는데, 향을 피울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맵고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관지 등에 이상이 생겨 매우 괴로워서 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외국 향을 많이 사용함으로 엄청난 외화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제자 소납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러 경전을 통하여 향 만드는 법을 알아서 연구하기 10여년 일생 소원이었던 부처님 최고 공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공 화학물질이 전혀 들지 않고 순수한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랑하는 향기로운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향을 가까이 하십시오 확 달라질 새천년의 향!
여기 우리 문화와 전통을 살리며 향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인정해준 석씨향방의 오분향과 생기향을 사용해 보십시오. 옛 선인들께서 왜 향을 가까이 했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 불자님들, 삼보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분께 향을 선물하세요.
가장 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위 상품 판매수익금중 일부는 삼화불교대학 교육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향꽂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공급자: 석씨향방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학內 혜인선원 사업부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6-5889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함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복지 등한시 하는 종교 설자리 없어"

새 천년을 뛰는 불자 ⟨6⟩

대구 남구사회복지관 **고 강 호** 부장

모전·냉림·남구복지관 위탁운영에 일등공신

"복지와 포교 둘 아니죠"



"복지와 포교는 둘이 아닙니다. 불교도 마음만 먹으면 복지분야에 앞설 수 있습니다"

복지분야는 타 종교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으나 최근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쏟아지고 있어 새 천년의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고강호씨(35·남구종합사회복지관 부장)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이 분야에 일찌감치 눈을 뜬 앞선 일꾼이다.

"21세기는 자선적 원조보다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복지로 그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복지를 등한시하는 종교는 앞으로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활동은 동체대비사상에 입각해 회향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이는 개인적 수행이자 불법홍포의 수단이 된다는 고씨는 불교가 변화하는 복지개념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북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경상북도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일하던 고씨는 공적부조 영역에 한계를 느껴 성서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당시 대구시내 20여 종합사회복지관중 불교계에서 위탁운영하는 복지관이 하나도 없어 고씨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 불교복지를 꽃피우겠다던 평소의 포부를 접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봉사단체를 결성해 활동하던 지도스님(남구종합사회복지관장)과 김영무 부장(문경모전복지관)을 만나면서 지역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됐다. 그 최초의 작업은 96년 문경 모전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권을 따내는데 산파역을 한 것. 이어 97년에 상주 냉림종합사회복지관을, 98년에는 대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권을 따냈다. 이는 도청과 성서복지관에서 익힌 그의 실무경험과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남구복지관 개관법회를 봉행하던 날 사회를 맡았습니다. 찬불가를 부르는데 '내가 설 자리가 바로 여기구나'하는 생각에 눈물이 흐르더군요."

당시 12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불교계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권을 따낸 것은 지금도 신화로 통하고 있다.

고씨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복지단체와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불자들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스님들의 전문적 식견을 배양하는 것은 지속적인 해결과제라고 말한다. 고씨는 이를 위해 직지사처럼 교구본사가 나서줄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노인복지에 대해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앞으로 탁노소와 같은 노인전문 보호센터가 들어서고 구청별로 노인종합복지관도 생겨날 것입니다. 인력수요가 크고 포교효과도 지대한만큼 승·재가를 막론하고 아이디어와 힘을 모아야합니다."

IMF사태로 후원금은 줄었지만 할 일은 더 많아졌다는 고강호씨는 불교복지가 활성화될수록 젊은 전문가들을 불교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본사 제5회 신행수기 시상식

본사가 주최하는 제5회 신행수기 공모 시상식이 1월29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개최돼 대상 강옥형씨 등 7명의 수상자가 상패와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와 한마음요전)을 각각 받았다. 심사위원장인 법산스님은 축사에서 "신행수기 공모에 출품된 모든 작품들은 불법의 사리가 한알 한알 나오듯 감동적이다"며 "그 사리를 실에 꿰듯 원고지에 써낸 수상자들은 더욱 수행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법산 동국대 정각원장, 남정 총화종 총무원장, 혜철 한국불교 교화복지선도회 이사장, 무원 천태종 총무국장, 최명준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김재일 동산반야회장 등 교계 인사와 수상자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직지사에 김봉률스님 행적비 제막

항일독립운동가 포월당 김봉률스님의 행적비 제막식이 1월29일 직지사 비석거리에서 봉행됐다. 이날 제막식에는 김봉률스님의 속가딸인 김송자(60)·죽자(58) 자매와 스님의 상좌인 일당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등스님, 직지사 문화사회국장 도진스님, 김건신 대구보훈청장, 정완영 시인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스님의 입적50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제막식에서 김 보훈청장은 "스님께서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을 하신 것은 자발적인 우국충정의 발로"이라며 "스님의 높으신 뜻은 이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보현의집 근로자 공연의 밤

영등포 보현의 집(원장 정념스님)은 1월 27일 영등포·서계동·수송동 보현의 집 입소자를 대상으로 '새 천년 맞이 근로자를 위한 공연의 밤' 행사를 열었다.

양산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스님을 비롯 불자가수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원장 정념스님은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공연하여 휜터 근로자들에게 생활의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와 불교 접목시킬래요"

부산불교신도회 강선태 신임회장



"정법불교를 뿌리로 생활불교의 가지를 뻗어 부산이 자랑하는 깊은 불심의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 부산불교신도회 정기이사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추대된 강선태 회장(60·동의대 한의대 교수)의 포부이다. 강 회장은 그동안 부산불교신도회의 부회장을 맡아오면서 불교계에서는 드러나지 않게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인물이다.

강회장은 "성급한 계획수립이나 방향 제시에 앞서 부산불교신도회의 현주소를 정확히 알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대덕 스님 방문, 교계 실무자 간담회, 신행 단체장들과의 만남 등을 추진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강회장은 "새롭게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의견수렴 끝나는 대로 기획력 있는 포교 방안, 문화와 불교를 접목시킨 포교, 기복 불교 탈피를 위한 신행 활동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은 어느 도시보다 신심이 깊습니다. 불심 강한 4백만 신도들의 뜻을 집약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부산불교가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불교신도회의 발전은 회장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산 불자들의 신심이 집약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믿는 강 회장. 앞으로 대규모 행사보다는 신행 위주의 사업으로 신도들과 자주 만나고 싶어한다.

"부산불교신도회를 이끄는 중책을 맡아 큰 업보는 짓지 말아야 될텐데"라는 강 회장의 끝말에서 회장직을 부산불교 발전을 위해 값지게 희향하겠다는 다짐이 엿보인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일주문

총지종 종령 추대법회



록정 대종사가 불교총지종 제7대 종령으로 재추대돼 15일 오후 2시 서울 총지사 3층 법당에서 추대법회가 봉행된다.

소쩍새 마을 방문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은 2일 원주 소쩍새 마을과 국립경찰병원을 위문하고 각각 금일봉 및 위문품을 전달했다.

대구BBS 운영위원장에



성타 불국사 주지는 1월 31일 열린 대구불교방송 '제8차 운영위원회'에서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결식아동돕기 감사패 받아



성각 망운암 주지 스님은 1월 25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정순택 교육감으로부터 결식아동돕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삼균학회 학술공로상 수상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은 1일 열린 삼균학회 81주년 대한독립선언 기념식에서 학술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대 의료팀과 네팔 봉사



이근후 이화의대 교수는 이대 의료봉사단과 함께 12일부터 23일까지 네팔로 의료봉사를 떠난다.

혜명양로원·보육원에 성금



박준영 청와대 불자회장은 3일 혜명양로원과 보육원을 방문,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청불회원과 공보수석실 직원등은 봉사활동도 펼쳤다.

3·1문화상 학술상 수상



이기동 동국대 교수(인문사회과학 부문)는 신라사회사 연구공로가 인정돼 1일 제41회 3·1문화상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운덕 총무원장과 환담



김말환 군승단장은 1월 28일 관문사로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2000년 군승단 사업계획을 비롯 군포교에 대해 환담했다.

불전 꽃꽂이 장학생 선발



조양자 예담꽃꽂이 중앙회장은 불전꽃꽂이회 제4기 장학생을 이달말까지 모집하고 있다. 기간은 6개월로 오는 3월 7일 개강한다. 수강료 무료. (02)595-3354

김흥국 장학재단 현판식

김흥국 축구사랑모임회장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맨하탄빌딩 1317호에서 김흥국 장학재단 현판식을 한다.

인 사

대한불교 법화종 △기획실장= 혜륜(대호정사) △사서실장= 진하(삼불사) △총무부장=혜암(홍창사) △교무부장=덕우(원각사) △재무부장=만각(봉암사) △사회부장=관효(홍법정사) △감찰부장=양운(운주사) △총무국장=현우(법화사) △교무국장=보련(묘탑사) △사회국장=도각(도각사) △감찰국장=도현(도현사) △재무국장=법성(청룡사)

200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요강

■ 불교학과
■ 범패과
■ 불교미술과

교육내용
1) 불교학과(정규 및 통신생) : 불교학 및 포교 전반
2) 범 패 과 : 상주권공(불교전통의식)
3) 불교미술과 : 단청·불화·조각·한국건축사·문화재보호법 등.

응시자격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1) 신입생
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나) 강원 사집과 이상의 수료자
다)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2) 2학년 편입생(불교학과만 해당됨)
가) 정규대학 졸업자 나)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전형방법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0년 1월 17일(월) ~ 2월 26일(토)
(평일은 10:00-17:00, 토요일은 12:00까지, 공휴일은 휴업함.)

전형일자 2000년 2월 27일(일) 10:00~17:00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4)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부
7) 반명함판 사진 6매

전형료 ₩30,000(불교미술과 ₩40,000)

참고사항
가. 승려들의 소양 함양을 위한 내전 및 서예 특강 실시함.
나. 본 대학 이수자에게는 태고종단 포교사자격증을 수여하고, 2년과정을 이수한 태고종단 승려에게는 법계(대선)를 품수케 함.
다. 기숙사 운영(지방학생 문의 바람)
라. 제출서류 가운데 승적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하면 됨.
마. 편입생 응시자는 수학 경력에 따라 편입토록 함.
바. 통신생은 월 1회(1박 2일)의 출석교육을 이수해야 함.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본 대학 교학처(☎ 763-0229, 8536)
나. 태고종 서울종무원(☎ 745-2030~2)
다. 태고종단 각 교구종무원
라. 경서원(☎ 733-3346)

동방불교대학

㉾136-02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92-1
☎ 763-0229, 8536. FAX 764-5883

불교 검색사이트 '선재' 떴다

문화·포교등 89개사이트 정리
불교학당 개설…메일링 서비스

인터넷 초보 정귀선씨. 불교관련 홈페이지들은 몇 개나 있을까 궁금했다. 또 다니는 절에서 신도관리 등을 전산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관련 프로그램도 찾고 싶었다. 정씨는 인터넷에 접속해 사찰 전산화 프로그램을 찾아보려고 검색사이트를 찾았다. 검색어를 사찰로 놓고 검색을 했더니 일일이 방문하기에는 너무 많은 페이지들이 떴다. 어떤 페이지들이 검색됐는지 검색결과를 다보기에도 벅찼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네티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이제는 이런 불편이 사라지고 좀더 편리하게 불교관련 사이트들을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개설된 불교전문 검색사이트 선재(http://artemis.interpia98.net/~gwwso/sun)는 불자네티즌들에게 친절하게 불교홈페이지들을 소개한다.

검색엔진은 심마니 야후 코리아 등 한글통합검색이나 뜰마니 가마니와 같은 패러디 검색, 기업, 공공기관, 의학, 교육, 게임, 레포츠, 여행, 부동산 등 전문검색엔진 등이 만들어져 있다. 이 가운데 불교전문 검색엔진 선재가 최근 개설돼 불자네티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불교정보전문사이트 불교학당(http://kitel.co.kr/~mirrk) 운영진이 개설한 선재는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건문 검색엔진이다. 현재 14개의 카테고리가 구성되어 있다. 공동체 코너에서는 장애인 포교 및 복지관련 홈페이지들을 링크해 놨다. 불교문화 코너에서는 건축과 문학 미술 음악 등 전문 홈페이지를 찾아볼 수 있고, 종교비판이라는 토론 페이지도 등록되어 있다. 전문인 포교, 단체 포교 및 포교정보를 제공하는 홈도 포교 코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교 언론 출판 코너에는 불교서적을 검색할 수 있는 서점이나 언론, 도서관의 홈도 수록되어 있어 다양한 불교정보를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쇼핑몰, 교육기관, 동호회 홈페이지 등 네티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홈들은 불교생활코너에 가면 있다. 이외에도 교계기관 단체, 스님 및 개인 홈페이지, 불교경전, 교리, 불교관련 소프트웨어, 사찰전산화 지원 사이트 등도 쉽게 가볼 수 있다.

선재에서는 등록 회원들을 위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메일링 서비스를 하고 있다. 순위 링크인 '불교 홈페이지 Top 10'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네티즌들의 추천을 일정정도 받은 사이트가 없어 Top 10에 수록된 페이지는 없는 상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등록한 사이트들이 89개로 얼마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등록자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 '선재'는 불교전문 검색엔진으로 등록된 날짜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new' 표시를 해주고 있다.

불교전문검색엔진 선재 외에도 야후, 알타포탈, 심마니, 까치네, 크라이슬러 등 국내외 검색엔진을 연결해 불교관련 검색결과만을 모아서 보여주는 불교검색(http://user.chollian.net/~gayasan) 홈페이지도 있다. 선재처럼 한 화면에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각 검색사이트에 수록된 불교 홈페이지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등록수도 월등히 많다는 장점이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신 현 덕
〈(주)원경제약 중앙연구소 연구기획부장〉

내가 일하는 원경제약은 IMF 이후 얻은 제2의 직장이다. IMF로 어려운 시기에 제일 먼저 실직을 당했다. 하지만 나는 실의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토요일 오후에는 동산불교대학에 입학해 불교를 좀더 체계적으로 공부했다. 첫째, 셋째 일요일에는 화성 신흥사에서 일요법회를 진행하는 간사로서 또 매일 새벽과 밤 2차례씩 기도 정진 수행했다. 이 일자리는 내 기도 정진의 결과로 얻어진 직장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만큼 귀중하다.

나는 새벽3시가 되면 눈을 뜬다. 자명종을 맞춰 놓지 않았는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몸에 뱄다. 아직 아침이라고 하기에는 좀 빠른 고요한 시간이지만, 명상 참선 경전읽기를 하다보면 어느새 5시임을 알리는 새벽 종소리가 원광대 원불교 교당에서 들려온다. 새벽예불과 기도를 6시까지 하고,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싱크대 의자에 앉아서 〈화엄경〉과 〈법화경〉을 읽곤 한다.



우리집은 수원이다. 익산에서 함께 숙식을 하는 공장장은 교회 장로이다. 그분도 나처럼 집을 떠나 있어 월요일 새벽에 익산으로 출근하기 위해 신갈 톨게이트에서 만나면 금요일 퇴근시간까지 함께 생활하게 된다. 그러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는다. 내 이웃을 모두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며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의 기도는 큰 원력을 세우고 참회하여야 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면 모든 원은 꼭 이루어진다. 참회를 하면 마음이 청정해진다. 이웃과 사회가 잘 되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항상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잠에서 처음 깰 때는 '중생들이 온갖 지혜를 깨닫고 시방세계를 두루 살펴지이다', 칫솔질과 세수를 할 때는 '중생들이 다 묘법을 얻어 끝까지 청정하여지소서', 이발과 수염을 깎을 때는 '중생들이 번뇌를 아주 버리고 마침내 적멸하여지이다', 선정할 때는 '중생들이 선정의 힘으로 마음을 조복하여 구경까지 남음이 없어지소서', 경전을 읽을 때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모두 기억하고 잊지 말아지이다', 시계 반지 등 패물을 몸에 걸칠 때는 '중생이 거짓 꾸밈을 버리고 진실한 곳에 이르러지이다', 즐거운 놀이나 모임이 있을 때는 '중생들이 법으로써 즐기고 놀이는 참이 아님을 알아지이다', 차를 타거나 길을 갈 때에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행하시던 대로 나아가 의지 없는 곳에 들어가지이다', 보시할 때는 '중생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마음에 애착이 없어지소서', 병든 사람을 볼 때에는 '중생들의 육신이 공적함을 알고 어기거나 다투는 법을 떠나지 이다', 누워서 잠잘 때나 휴식을 취할 때는 '중생의 신체가 안락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지소서', 라고 원한다.

불자들이 이와같이 마음을 쓰면 온갖 뛰어나고 묘한 공덕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깨달음의 길은 멀기만 하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그 길의 처음은 물론 끝도 짐작할 수가 없다. 얻기 보다는 비우고 버리라고 했다. 그러나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겠는가. 모두가 좀더 성숙된 불자로 이웃과 사회를 위한 기도를 생활화하기를 발원한다. 지성불자에 걸맞는 지혜와 실천행을 두루 갖춰 천만 재가불자의 선도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질향상에 기여하면 좋겠다.

오늘 하루 이웃과 회사와 사회를 위하여 살아왔는지 점검해 보자. 무한한 공덕으로 나의 보금자리를 채워 주시고 평안과 행복, 가피를 내리시어 이 땅을 불국정토로 가꾸어가게 하소서. 나는 이 몸이 다 할 때까지 부처님 법을 배우고 불법을 홍법하는 포교사로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발원한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이웃위해 기도하는 불자 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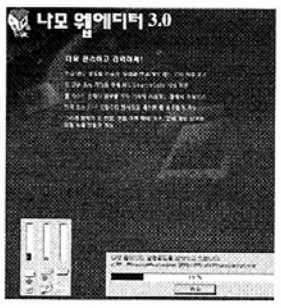
나모 웹 에디터 설치하면 '홈' 제작 알아서 척척

홈페이지 만들기 ②

홈페이지는 HTML이라는 '언어'로 만들어진다. HTML은 'Hyper Text Markup Language'의 약자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만드는 언어이다. 하이퍼텍스트란 한 문서 안의 특정 단어나 문장에 또 다른 문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브라우저 가운데 넷스케이프를 예로 보자. 메뉴바에서 View를 누르고 문서창에서 Page Source를 누르면 현재 보이는 페이지의 HTML 구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언어를 어떻게 다 배우고 그 언어를 나열해 홈페이지를 꾸밀까. 초보자들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이 위지윅(WYSIWYG)이다. 위지윅은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를 문서로 작성하는 웹에디터로 나모인터랙티브의 나모 웹에디터,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론트페이지98,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의 넷스케이프 컴포저, 넷오브젝트의 퓨전, 어도브의 페이지밀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나모 웹에디터 3.0을 이용해 홈페이지를 제작할 것이다. 나모 웹에디터 3.0을 구입하거나 나모인터랙티브 홈(www.namo.co.kr)으로 들어가 기능평가판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모 웹에디터를 컴퓨터에 설치하자. CD-ROM을 삽입하면 자동으로 설치마법사가 화면에 뜬다. 자동으로 뜨지 않는다면 윈도우화면 밑의 메뉴바에서 시작버튼을 누르고 실행을 클릭한다. 창이 뜨면 찾아보기를 눌러 D드라이브의 Setup.exe를 찾아 확인을 누르면 설치마법사가 실행된다. 그 다음엔 마법사가 가리키는 대로 설치하면 된다. 웹에디터 설치가 끝나면 여러 가지 이미지 파일이 들어있는 클립아트를 설치하기 위해 Clip.exe를 찾아 실행한다.

프로그램 설치가 끝나면 C드라이브에 '내홈만들기' 폴더를 하나 만들자. 앞으로 만드는 홈페이지 요소들은 이곳에 저장하면 된다.

큰스님 초청간담회·세미나 열기로

불교언론인회 올사업…회보·홈페이지도 추진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는 1월28일 제7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2000년 사업을 확정했다.

한국불교언론인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새해 사업 중의 하나는 중진스님 현각스님등 교계 주요인사를 초청해 평소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하는 간담회이다. 5월에는 창립 2주년 법회를 개최하고 4월에는 정기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회원을 대상으로 불교 개혁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불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불교언론인회 회보 및 홈페이지 제작도 준비중이다. 불교언론 관련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방침이며 백양사나 백담사에서 하계수련회도 계획하고 있다. 서울 대구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불교언론인회 지회를 충청권으로도 확대하고 북한동포돕기 운동과 회원들의 방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신광식 회장은 지난해 12월 북한을 방문해 조선불교도연맹 청사를 예방하고 남북불교교류 문제 협의 등 북한 방문 결과를 보고했다. 신 회장은 "법회 운영이 우리와 똑같았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클릭! 새 홈 페이지

■ seventeen lumbini(http://cafe.daum.net/17thlumbini)-1월30일 개설. 익산 관음사 룸비니 17기들의 공간.

■ 힘내라!! 불교(http://cafe.daum.net/yayayaya)-1월30일 개설. 부처님을 사랑하고 불법을 숭상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http://cafe.daum.net/kido)-1월28일 개설. 매일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문을 올리는 홈.

■ 용두산 송광암(http://yescall.net/song)-용두산 송광암 사진과 수련회 안내, 수련회 모집 요강 등 소개.

알림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조계종 원우회 새해사업
경전법회·소모임 활성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에 근무하는 재가종무원들의 모임인 원우회(회장 유지호 포교원 포교과장)는 경전법회, 소모임 활성화, 불교계 제단체와의 연대를 올해 주요사업으로 실시키로 했다.

원우회는 1월31일 200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원우회는 우선 2월말부터 조계종 금강경 법회(강의 무비스님), 아함경 및 부처님의 생애(도법스님), 기본교리(정락스님)를 년중 진행할 예정이다. 경전강독모임을 비롯 서예모임, 다도모임, 불교근현대사연구모임 등 각종 소모임에 재정을 지원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제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5월 연합체육대회 개최를 한국불교기자협회 등의 단체와 함께 추진키로 했다.

95년 80여명의 재가종무원들로 결성된 회원들의 신행강화를 위해 원우회는 108일 108배 신행결사(지도법사 지현 조계사 총무)를 결의하고 1월14일부터 매일 출근 전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배 정진을 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2000년 무불선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선의 대중화, 생활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무불선원에서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선의 원리를 실용화 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불교의 선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불선학대학원을 설립하고 1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
■ 2000년 2월 1일 ~ 2월 26일

모집내용
■ 주간반 00명 · 야간반 00명 · 통신반 00명(비디오 TAPE수강)

전형 및 구비서류
■ 서류전형(전형료 2만원)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1통
자기소개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자격
■ 기존 불교교양대학 수료자 및 동등한 불교 교리 숙지자
■ 선학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희망하는 자(불교 신 · 불신 불문)

합격자 발표
■ 2000년 2월 28일 ~ 29일(개별통지)

개강 및 강의시간
■ 3월 6일(총 15주)
■ 매주 월 · 화요일

등록금(학기당)
■ 주 · 야간반: 47만원, 통신반: 55만원(분납가능)
■ 과목별 수강: 과목당 20만원(통신 23만원)

입학식
■ 2000년 3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본원 법당

개설강좌

학년	학기	과목명
1	1	선학의 이해/ 참선실수/ 중국선사상사
	2	인도선정사상사/ 선전개설/ 육조단경
2	1	한국선사상사/ 선어록 강독/ 선과 서양철학
	2	경허.만공선사상/ 선과 현대사회 선과 노장사상
교수진		법산(동국대), 현각(동국대), 종호(동국대), 무비(은해사 승가대학원장), 각성(전해인사 강주), 심재룡(서울대),윤원철(서울대), 김호성(동국대) 한중광(동국대), 박영재(서강대), 신규탁(연세대) 계속 초빙중
※ 졸업 후 전문 참구과정: 조주록, 임제록, 무문관, 벽암록 등 선어록 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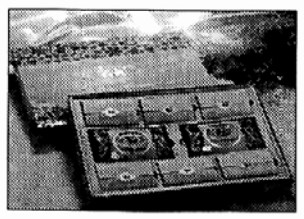
※ 학과목 및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선착순 모집합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원 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7-5 삼윤빌딩 8층
전화: 02)541-0002~3 / 팩스: 02)541-0004
E-mail: moobool@netsgo.com
moobool@channeli.net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사 설

부불회의 시민대상 '환영'

부산불교신도회가 1월 31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교화·기획·조직사업의 2000년도 계획을 확정하면서 불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환경 및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시민대상을 제정·시상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의 환경보존과 아름다운 사회건설에 불교의 보살정신을 함양하여 청정한 불국정토를 구현하는 사업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며, 불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찬사를 받을 만한 일이다.

불교는 인간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다. 모든 생명이 함께 하여 아름다운 환경, 화목한 사회를 구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승보살은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환경과 사회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보시행이며, 보살정신의 실현이다. 이러한 살아 있는 보살을 찾아 자랑스런 시민으로 그 공덕을 찬탄하고 위로하며, 모든 시민이 그 뜻과 행동에 함께 할 수 있다면 불국정토의 실현은 앞당겨질 것이다.

부산불교신도회의 시민대상 제정을 계기로 각 지역의 불교단체는 물론 전국적인 차원에서 중앙신도회나 종단 또는 종단협이 주관하여 환경운동과 사회정화 및 교육·문화·예술 등 각 부분별 공헌을 찬양할 수 있는 대상을 제정 시상하여 불교의 대사회적 입장을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러나 현재 교단과 교직자 내지 불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소위 불교의 주역들이 과연 불·보살의 자비정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자연과 생명이 숨쉬는 사회에 어떻게 회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현 위치에서 모든 불자가 스스로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특히, 부산불교신도회에 기대하고 싶은 것은 말만 앞세우는 불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종단이나 불교단체의 일각에서 사회복지나 깨달음의 사회화 등 많은 대사회적 불사가 거론되기는 했지만,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면 부끄러운 일이 없지도 않다. 부산불교신도회의 계획이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하며, 교계의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는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유전자 조작 생물체 '우려'

지난 달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생명공학 안정성 의정서 채택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1백30여개국 대표들이 제안된 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유전자 조작 생물체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한 세계적 규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던 GMO의 유해가능성이 인정되면서 앞으로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받아 들인다.

GMO 가운데서도 우선 화급한 문제는 콩 옥수수 감자등 농산물이다. 농산물 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10년안에 수출농산물의 95%가 유전자 변형((gene-altered)작물이 될 것이라 내다본다. 농산물 자급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한국의 식탁은 이미 유전자 변형 농산물과 그 2차 식품들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 가을 있었던 두부파동이 한 예다. 유전자 변형작물이 유해한 것이라면 이처럼 심각한 문제도 없다.

미국 캐나다등 농산물 주요수출국은 지금도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수확을 크게 늘릴수 있어 기아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복지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신중한 실험과정이 배제된, 그래서 어떤 생태적 재앙과 건강상 위험을 가져올지 모를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소비자들이 달가와 할리 없다. 더구나 지난 해 영국에서는 유전자 변형 감자가 쥐의 장기를 위축시킨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고 그 얼마 전 미국에서도 변형된 옥수수 꽃가루가 나비의 애벌레를 죽인다는 불길한 실험결과들이 나와 있다.

무엇보다 우선하는 문제는 인간이 과연 자연을 그렇게 마음대로 조작해도 되는 것인가에 있다. 생명의 진화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면 자연스런 생명체 진화를 막아 결국 인류에게도 재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그만큼 전체생명체에 대한 책임의식도 가져야 한다. 한포기의 잡초에도 기생하는 수많은 벌레와 그 꽃을 찾는 나비가 있다. 이같은 실상에 대한 이해와 고려없이 저지르는 일은 위험한 불장난이기 십상이다. 그 근원에서 우리는 부처님이 지적하신 인간의 무지와 오만을 발견한다.

불교적 세계관, 중중무진의 연기법은 장엄한 생명실상에 대한 외경과 존엄을 일러준다. 유전자 조작은 자칫 연기의 바탕인 업(業)의 질서를 파괴, 무서운 파멸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제 어떤 제등으로도 멈출 수 없었던 과학의 질주에 대한 경고음이 한번 울린 셈인데 불교계에서도 본격적인 논의와 대응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열 린 마 당

본말사 성보 통합관리

본사급 사찰의 성보박물관에서 말사의 성보까지 통합관리하는 종책이 시행되면서 말사의 신도, 지역주민, 관할관청 등의 감정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월인석보〉(보물 745호)를 소장한 홍천 수타사, 금동삼존불(409호)을 봉안한 충남 당진 영탑사, 탱화 2점을 이전한 원주 구룡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성보를 소장한 사찰들은 "종책은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신도와 지역 주민은 "지역을 대표하는 유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중요 불교문화재들을 엮어 관광사업을 구상하는 관할 관청 역시 성보 이전을 반대한다. 당초 전국에 흩어진 국보급 불교문화재의 훼손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짓기 시작한 성보박물관의 '성보 통합관리'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도난·훼손 효과적 예방"

일철〈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전국 말사에 소재한 성보들을 성보박물관으로 이전, 통합관리 하는 것은 성보 문화재 관련 조계종의 종책이다. 이 제도는 깊은 산중에 흩어져 있는 성보문화재에 대한 훼손과 절도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난해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서 밝혀졌듯이 87년 이후 전국 사찰에서 도난당한 성보문화재의 수는 4백53점에 이른다. 성보들이 이토록 수난을 당하는 것은 무방비한 사찰로서는 문화재 절도범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불교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 외에도 '성보박물관'은 불교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공립박물관의 수장고에 묻혀 있는 불교유물을 대여할 수도, 교체 전시를 기획할 수도 있다. '격'이 같기 때문에 교류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본사급 사찰에는 문화부가 개설되지 않았는데, 성보박물관은 그 역할을 도맡을 수 있으며, 지역 불교문화를 활성화 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성보문화재 이전을 놓고 본·말사, 신도, 지역 주민, 관할 관청 사이에 이견이 생기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갈등에는 한 가지 오해가 있다. 성보 문화재를 무조건 가져가는게 아니다. 조계종 문화부는 성보를 소장하고 있는 지역 사찰의 보안 시스템을 우선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성보 이전을 결정하도록 하는 협조 공문을 각 성보박물관에 보내고 있다. 설혹 본사 성보박물관으로 이전하더라도, 그것은 '대여'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지역 사찰에서 도난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성보문화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인력 확보 급선무"

소재구〈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박물관의 개관 계획을 세울 때는 유물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는게 이 계통의 일반적인 관례이다. 그런데 성보박물관은 그런 절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본·말사라는 직계만 염두했을 뿐 성보가 지역의 유산임을 간과했던 것이다. 본사 단위로 박물관을 지어 말사의 성보까지도 통합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만 믿고 추진한 탓도 한 몫했다.

또 문화재 이전에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유물을 포장해 특수차량으로 운반해야 한다. 그리고 박물관 작업실에서 포장을 뜯고 유물을 청결히 하고 보수·소독해야 한다. 유물의 실측과 촬영 등 기초조사는 말할 것도 없다. 불교유물은 종이류 직물류, 목공예류 등이 많은데, 곰팡이와 균을 박멸하지 않으면 전시나 격납 후 대량의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성보박물관 가운데 이같은 이전 절차를 밟은 곳은 과연 몇 곳이나 될까. 문화재 전문가들은 성보박물관과 불교문화재 통합관리를 걱정스런 눈으로 보고 있다. 사찰 특성을 살린 것도 아니고, 사찰 재정에 맞는 규모도 아니고,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도 않다. 더욱이 말사의 적극적인 조력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성보박물관은 박물관 관리를 위해 재정을 확보하고 또 전담 부서나 전문인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또 유물 확보를 위해 성보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단순히 '가져오기 식'이 아닌 '대여'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성보박물관이 시기나 성격에 맞는 교체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정 기간 성보를 빌리는 방식이 감정의 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성보관리 논쟁사례

지난해 7월 강원도 홍천군 수타사는 교구본사 월정사에서 보낸 공문을 받았다. 수타사에 소장된 〈월인석보〉(보물 745호)를 월정사성보박물관에 이전·보관하겠다는 것이다.

수타사는 영서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월인석보〉을 비롯해 다양한 성보들을 소장하고 있는 말사다. 그런데 본사에서 '성보문화재 통합관리'라는 종책에 따라 소장하고 있는 성보문화재를 차례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종책에 가장 먼저 반발한 사람들은 신도들과 지역 주민들이다. 그들은 "수타사의 표상인 〈월인석보〉를 비롯 앞으로 범종과 탱화 등 불교유물이 줄이어 옮겨질 경우 수타사는 대들보가 빠지는 것과 같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관할 군청에서도 반대했다.

홍천군과 수타사는 군 차원의 성보박물관을 지어 〈월인석보〉를 되찾아오고 지역 성보문화재도 함께 보관·관리하는 방침을 세웠다. 또 이춘섭 홍천군수 등은 월정사를 방문해 지역 여론을 전달했다.

월정사와 수타사의 갈등은 '일정 기간 대여' '박물관 건립' 등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다. 또 금동삼존불(보물 409호)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수덕사와 충남 당진군 영탑사도 말사에서 그대로 소장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원주시 구룡사의 경우 지역 주민과 신도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들은 "협의도 없이 불화 2점을 이운의식도 봉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사 성보박물관으로 이전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이전된 불화 때문에 사찰과 지역 주민, 신도들이 지금도 반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목탁소리

이 경 숙 〈취재1부 부장〉

좋아하는 문화재

문화재청이 최근 1천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재의 1, 2, 3 위가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팔만대장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국사나 석굴암, 팔만대장경이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또 문화재적 가치에서도 가장 뛰어난 성보중 하나라는 사실을 또한번 일깨워준 조사라 생각한다.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록이 되어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가장 많이 가서 보는 문화재란 점도 이번 가장 좋아하는 문화재 선정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성보들을 어떤 불자가 혹은 국민이 누구에게 그 문화재적 가치와 불교적인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에는 각각 매년 수백만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하지만 안내판에 쓰여있는 것 이상의, 그 어떤 지고한 불교적인 뜻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가는지 의문이다.

KBS 1-TV는 1월 19일 밤 '선무도'를 기획 방영했는데 불가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선무도의 본산 골굴사에서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수련하는 과정을 흥미있게 보여주었다. 선무도 수련에서는 아이들에게 무술뿐 아니라 반야심경도 외우게 하고 있어 반가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취재진이 반야심경을 쓰고 있는 한 학생에게 〈반야심경〉의 뜻이 무어냐고 묻자 아무말도 못했다. 물론 아이들이 〈반야심경〉의 심오한 뜻을 몇마디로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무조건 외우게 하기보다는 그 뜻을 간단하게라도 쉬운 비유로 알려주면서 외우게 하면 더 뜻있는 일이 아닐까 해 아쉬웠다.

올 가을에는 국제적 국가행사인 아셈회의가 열리고 내년은 한국방문의 해이다. 또 후년은 2002년 월드컵이 열린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올 것이고 우리 전통문화로 보여줄 대표적인 문화재들은 결국 사찰이고 불교문화재들일 것이다. 제발로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한국불교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불교의 진수를 쉽고 대중적으로 알릴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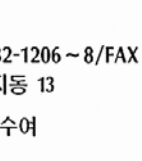
사찰 바로앞 아파트 건설 중단해야

원각사는 경북 구미시 선산읍의 산자락에서 7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며 고즈넉히 자리잡고 있는 전통사찰이다. 순치 6년에 조성돼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보살좌상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각사는 지금 몰지각한 건설업자들의 횡포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가 절 코앞에 14층 362세대의 고층아파트를 지으면서 전통사찰 환경권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건축 경계선과 참배와 기도의 장소인 원통전과 불과 30m, 객실과는 20m, 주지실과 상주대중 거처와는 35m, 신도들이 머무는 요사채와는 25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오는 5월 입주가 된다면 목탁 등을 사용한 의식집전때 주민들이 민원 분쟁을 할 소지가 있으며, 사찰 앞에 조성되는 주차장 때문에 24시간 소음과 매연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의 아파트 건립은 애초 우리 사찰과는 한마디 상의없이 택지 매입과 공사허가 등을 기만적으로 시작됐다. 여러차례 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와 영남건설 관계자를 찾아 다니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말로 일관할 뿐이었다.

구미시와는 사찰,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현장을 합동조사하고, 원천적으로 아파트 건설을 재검토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혜〈구미 원각사 주지〉

포교현장의 법사양성(3년과정)

2000학년도 경전전문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요일	과목	교 수	내 용
월요일	밀교의세계	허일범교수(진각대)	밀교개론과 대일경·금강정경의 핵심사상강의
화요일	법화경	박종교수 (동산대)	대승경전의 꽃 법화경! 화엄귀일사상 강의

※ 경전개설과목 : 아함경, 반야경,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 육조단경, 비교종교, 중론, 해심밀경, 대일경, 금강정경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30명) 통신반(30명)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이수자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④ 포교사 취득자	① 입학원서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000년 2월 7일~ 2000년 3월 4일(토) (서류전형)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9시 (본연구원 법당)

3. 개강일시 · 2000년 3월 6일(월), 7일(화) 오후 7시

4. 입 학 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3년과정의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찬 경전 (매주 2강좌)을 이수자에게 연구원 졸업장(전법사)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732-1206~8 / FAX 732-1207

동 산 불 교 전 문 연 구 원

주부·직장인을 위한 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을 개설!

■ 모집기간 : 년2회(매년 2월,8월)
■ 모집정원 : 200명

1.교과목

1년 교과목 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상담론

2년 교과목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법화사상·반야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

2.정규반, 주간반, 통신반

3. 문 의 처

☎732-1206~8 / FAX 732-1207

4. 특전사항

· 조계종 포교사 고시 거쳐 포교사 자격증 취득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2000년도 도시생활 포교자를 위한(1년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2000년 3월 4일 (토) 오후2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종순 법사	
한글불교의식 Ⅰ(전반기)	한글불교의식 Ⅱ (후반기)
·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 송주 …… 장엄염불	· 백일·돌·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장례의식 (1) …… 일반의식 · 장례의식 (2) …… 임종·매장·화장의식 ·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 50명	① 한국불교의식 희망자 ② 포교사 취득자 ③ 포교당 운영자	① 입학원서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2000년 2월 7일(월)~ 2000년 3월 3일(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동산법당)

3. 입 학 금 · 일십만원

4. 원서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 732-1206~8/FAX 732-1207 (10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5.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봉은사

대규모 봉은문화예술단 창립
일반인대상 문화강습프로 개발

관문사

미술전·서예전 등 적극 유치
국악예술단·그룹사운드도 결성



◇지난해 11월 서울 관문사서 열린 천태예술제. 격년제로 실시되는 예술제를 통해 불교문화를 통한 포교의 새장을 펼치고 있다.

"사찰을 문화도량으로"

문화의 세기, 문화적으로 불교를 전할 방법은 무엇일까.

문화적 접근을 통해 불자와 일반인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사찰들의 고민이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봉은사가 '봉은문화예술단' 창립을 올해 주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면서, 문화 포교의 전형을 보여주겠다고 나섰다. 새로 구성되는 어린이예술단은 만 3세 이상 18세 미만의 남녀 108명을 선발해 무용, 연주, 합창, 연기 등 분야별 전문 유·소년 공연단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중예술단은 연극, 마임, 대중가수, 연기자 등 프로집단으로 구성, 문화 이슈를 방편으로 불교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게 된다. 또 합창단은 기존 활동과 더불어 범패 등 불교전통음악분야에 노력을 기울여 독창적 영역을 확보하고, 무용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습프로그램 개발이 주력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직 구축을 통해 봉은예술단은, 안으로 신도와 신도자녀들을 위한 문화공간의 기능에 충실하는 한편, 밖으로 초파일과 월드컵 등 국내외 문화 학술행사에서 한국불교의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는 준비위 발족과 더불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회원구성 등 완벽한 준비를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게 된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도 문화를 포교 방편으로 지역민과 호흡하는 대표적인 사찰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관문사를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의 뜻에 따라 98년 개원한 이후 미술전시회, 서예전 등 각종 전시회를 유치하고, 지난해 9월에는 2백명 규모의 국악예술단을 창단하고, 청년회와 학생회를 중심으로 그룹사운드도 결성했다.

이같은 활동은 불교예술문화 진흥을 위해 격년으로 마련하는 천태예술제에서 꽃을 피운다. 새로운 불교음악과 무용을 선보이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한마당 속에서 불교의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다. 관문사는 현재 불교전시관 건립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차계루기 대회와 예술제, 합창제 등 대형 문화행사를 개최해 불교문화 진흥을 통한 포교의 새장을 열어 나가겠다고 한다.

합창단을 중심으로 한 사찰들의 문화포교는 그 역사가 오래다. 상당수의 사찰에서 합창단을 구성하고, 각종 법회나 행사에서 활동해 오고 있다. 이제 이같은 활동들이 기초가 되어 몇몇 신도들의 소모임적 친목도모 형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문화포교에 나설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다. 앞으로 사찰은 청소년과 중장년, 노년에 이르는 계층별 문화를 생산하는 문화공간의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살아있는 신행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불교학 비전공자들의 불교연구모임

교양수준 넘어 깊이 있다

교수·강사중심 20여곳 활동

언뜻 불교학과 관련이 적어 보이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전공 학자들을 비롯해 인문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불교를 연구하는 모임이 늘고 있다.

소모임이나 윤독회를 지원하고 있는 '성철선사상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20여개 이상의 동아리 형식의 모임이 구성돼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신심'을 충족시키는 교양 수준을 넘어 새로운 이론을 찾으려 노력으로까지 연구의 심도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원대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무문관(관장 정기문)은 불교를 토대로 자신의 학문영역을 넓히고 있는 대표적 모임. 현재 경제학과 손병암, 회계학과 최종윤, 재료공학과 남인탁, 지리교육과 옥한석, 미술학과 신철균 교수 등 전공이 다른 14명의 학자들이 모여 불교학을 공부하고 있다. 1983년 처음 결성된 무문관은 지금까지 〈화엄의 사상〉〈혜능〉〈부모은중경〉〈금강경〉〈능엄경〉 등을 윤독했다. 최근에는 독일의 불교학자 하간(S.Hagan)의 〈불교〉를 탐독하기 시작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지금은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지만, 정신문화연구원 김지견 박사, 서강대 물리학과 박영재 교수 등도 이곳을 거쳐갔다.

동양사회사상연구회(대표 이영찬)는 영남대·계명대·대구대·경북대 등 대구지역 교수와 강사 10여 명이 만든 선사상연구 모임으로 매월 1·3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정기적으로 연구 모임을 갖고 있다. 지난해 〈육조법보단경강의〉를 윤독했으며, 지금은 〈고경(古鏡)〉을 공부하고 있다. 이영찬(계명대 사회학과)교수는 "선사상은 통일체적 세계인식으로, 아직까지도 현대사회의 주요 이데올로기인 헤겔이나 마르크스의 변증법을 논리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틀"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근 원효스님의 〈대승육정참회〉〈발심수행장〉을 읽은 동국대 '동학서당', 전남 영암의 대불대 교수들의 모임인 '우담발화'(대표 이효근), 강원도 원주 상지대 교수들의 모임인 '봉원재'(대표 최종덕)도 있다. '동학서당'은 전통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한문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동국대 36명의 교수들이 꾸린 한문강독 모임이다. 또 영남대 석·박사들의 모임인 '한국불교자료윤독회'(대표 김윤곤), 서울교육대 '육조단경윤독회'(대표 은정희), 부산대 불교독경회(회장 이진오) 등도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 대부분이 불교학 비전공자이지만, 모임에서 이뤄낸 연구성과물은 기존 불교학계의 신선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종욱 기자



한국불교음악협회 기금마련 음악회

각 사암에서 활동하는 합창단 지휘자들이 함께 모여 마련한 '한국불교음악협회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가 1월29일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려 법음의 하모니를 연출했다.

한국불교음악협회 총재 겸 이사장 운문스님(운문사주지)을 비롯해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함께 한 이번 음악회에서는, 불교음악지도자연합합창단의 찬불가 합창과 성악가 정률스님의 음성공양 등이 열렬한 박수 갈채를 받았다. 운문스님은 공연에 앞서 5억원 상당의 구기동 운문사를 한국불교음악협회에 회사했다. 한국불교음악협회는 이번 공연을 통해 3천만원의 발전 기금을 모금했다.

김주일 기자

윤이상의 고향 통영서 '현대음악제' 열린다

불교의 윤회사상과 동양의 노장사상을 음악을 통해 구현했던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故 윤이상. 윤씨의 고향 통영을 최대 음악성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통영 현대음악제-윤이상을 기리며'가 18일~20일 경남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린다.

피아니스트 최희연씨와 창원시립교향악단 등이 윤씨의 '다섯개의 소품' '현악4중주 제5번' '교향곡 제2번' 등을 연주하는 이번 음악회는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경원시되어 왔던 윤이상의 음악세계를 제대로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범패의 맥을 오늘에 되살린 송암스님의 영결식은 3일 서울봉원사에서 영산재보존회장으로 봉행됐다.

무형문화재 제50호 송암스님 입적

범패연구-보급에 헌신

후학 1200여명 양성

우리 민족문화의 맥을 오늘에 되살리려는 남다른 열정으로 전통불교음악인 범패의 보급과 연구에 일생을 바쳐온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송암스님(세수 86세, 법랍67세)이 1일 우리 곁을 떠났다.

스님은 여든을 훌쩍 넘긴 고령에도 불구하고 봉원사 영산보존회 부설 범음대학에서 안차비소리와 짓소리 등 영산재의 모든 의식을 직접 지도하며 후학양성에 매진해 왔다. 열반에 들기 하루 전까지도 새로 맞을 범음대학 신입생 모집과정을 준비하고, 올해도 변함없이 범음대학 3학년 과정을 직접 지도할 계획이었다. 스님은 출가 이후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부처님 앞에서 염불하는 일을 빠뜨리는 일이 없었다. 지난 1일 새벽에도 여느때와 다름없이 새벽예불을 마치고, 몸을 깨끗이 씻은 뒤 설법전에서 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앉아서 열반에 드셨다. 생사의 경계를 일상사 넘나들 듯 그렇게 떠나가신 것이다.

스님은 19세때 아버지인 운허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범패를 평생의 화두로 삼았다. 출가 당시부터 봉원사 이월하(李月河)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해, 타고난 미성과 한번 들으면 절대 잊지 않는 기억력, 남다른 기량으로 10년을 배워야 하는 범패과정을 2만년에 습득했다.

지난 73년 중요무형문화제 제5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로 지정 받은 후 한국 전통불교문화의 계승과 한국불교음악의 원류인 범패 보급을 위해 헌신해 왔다.

87년 봉원사 영산재가 종묘제례악과 전주대사습놀이에 이어 무형문화재 단체지정을 받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단오절 영산재를 열었고, 불사의 현장에서 후학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며 전통 범패의 진수를 몸소 보여주었다. 스님은 대중적 관심에서 멀어진 범패의 맥을 잇기 위해 그동안 김구해(준 인간문화재), 마일운스님(봉원사), 조동선스님(봉원사), 이기봉스님(봉원사), 동희스님(청량사) 등 1천2백여명이 넘는 후학을 양성했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94년 문화의날 기념행사에서 옥관문화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범패의 신묘한 성음을 기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입으로 소리를 전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근래 오선지에 범패를 채보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범패의 제맛을 살릴 수는 없어요. 단지 범패의 뼈대만을 기록할 뿐인데, 그나마 범패를 현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점에서 고마울 따름이지요." 생전에 스님은 교본도 없이 구전심수(口傳心授)로 배우는 범패의 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특유의 상성(上聲)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그 목소리를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지만 범패 외길을 걸어온 스님의 열정과 노력은 문화의 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랜 가르침으로 되살아 날 것이다.

송암스님의 영결식은 3일 오전 10시 봉원사에서 봉원사 영산재보존회장으로 봉행됐다.

이은자 기자

송암스님 수행이력

-1915년 서울 출생
-1933년 영진불교전문강원 대교과 수료 및 경성상업학교 졸업
-1934년 박운허스님을 은사로 봉원사서 득도
-1934년 월하스님으로부터 범패전수
-1969년 옥천범음회 설립
-1973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 지정
-1987년 영산재보존회 총재
-1994년 영산재보존회 부설 범음대학 학장
-1994년 옥관문화훈장 수상
-1998년 한국불교태고종 승정에 추대
-1999년 한국불교 태고종 대종사에 추대

21세기 선진화 포교학당
2000학년도 불교복지 보건대학 신입생 모집

◎ 부처님은 과거 . 현재 . 미래세의 으뜸가는 「의왕(醫王)」이시며 「중생구제 복지사」 이십니다.
◎ 자리이타(自利利他)란 '스스로의 지혜를 밝혀 나를 건지고 이웃을 건지며 더불어 복된길로 나아가는것' 입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내 가족에게 몸과 마음의 「안락」을 보시 하십시오. 이 실천이 최고의 복전(福田)이요, 포교이며, 수행입니다.

1. 모집학과

과 정	기간	교육일시	입학자격	등 록 금	특 전
제2기 포교사과정 (포교복지사)	1년	매주: 화·수 (오후7시~9시)	체계적인 불교 공부를 원하는 분 불교복지활동에 관심 있는 분	입학금: 5만원(교재대포함) 수강료: 월5만원	포교사 고시를 거쳐 조계종 「포교사」자격품수 본교 학칙에 의한 「포교복지사」 자격수여
제1기 자비심리상담사	1년	매주:금 (오후7시~10시)	상담에 관심있는 분 포교사,복지사로서 상담활동관계자 신도상담,포교상담 일반상담직 진출자	입학금: 8만원(교재대포함) 수강료: 6만원 (자격검정료,집단수련비 제외) ※ 본교포교사과정 등록자 및 포교사, 복지사: 수강료 30%할인	수료자는 전형을 거쳐 민간 자격기본법에 의한「심리상담사2급」 자격취득
제3기 불심호스피스 (간병봉사자)과정	3개월	매주: 화·금 (오후2시~5시)	의료복지분야 종사 활동자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자	수강료:월5만원(교재대포함)	수료증및 단원자격증 수여 유급.무급 활동지원
제2기 불교최·뜸 포교봉사자	1년	매주: 월·목 (오후7시~10시)	포교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자원봉사희망자 가족의 건강을 돌볼 분	교재대:5만원 수강료:월15만원	한국 최고 침·뜸 명인 「구당·김남수원장」「뜸사랑 부산동문회」 회원자격

2. 과정설명
◎ 위의 각 과정은 덕 높으신 스님들과 유명대학의 전문교수님들이 기초부터 실무까지 체계적으로 쉽게 교육합니다.
◎ 초발심 불자 뿐만 아니라 불교지도자들도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 개인·가정·사회가 갖고 있는 정신적 갈등과 신체적 고통 등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건복지 분야의 자원봉사 및 포교 교육과정입니다.

3. 구비서류 및 원서마감
◎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사진3매(반명함판)
◎ 마감일: 3월 8일(수요일)까지 / 불심 호스피스(간병봉사)과정은 2월 18일까지

4. 입학식
◎ 3월 10일 금요일 오후7시 / 불심 호스피스(간병봉사)과정은 2월 22일(화) 오후2시

불교복지보건대학 명예학장: 성오스님 부산광역시 진구 범천1동 847-18 (건축사회관6층)
학 장: 혜도스님 문의전화: (051)647-6556~7

직장인을 위한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통신·출강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8년간 2천여동문 졸업·41기생 모집중>

1. 강의시간 3월 2일 입학·주5일 수업(월,화,수,목,금) 19:00~20:30

2. 교육과목 20개 과목외 범패의식 (법현스님) 특강(동·하계 스쿨링때 범패의식 교육)

1학년	1학기(16주)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유식사상 ◇초기불교의 이해 ◇불교상용 의식
	2학기(12주)	◇선사상 ◇중국불교의 이해 ◇비교종교 ◇구사론(아비달마) ◇불교상용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8주)	◇부파불교의 이해 ◇한국불교의 이해 ◇불교사회학 ◇기신론 강해 ◇우리말 불교의식
	2학기(12주)	◇법화경의 이해 ◇반야사상과 대승불교 ◇보살사상의 이해 ◇화엄사상 ◇우리말 불교의식 실습

3. 교 수 진 권탄준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허경구박사, 김경집박사, 이봉순박사 김호귀박사, 권오성법사, 법현스님(동국대), 김은희박사, 박경준박사
초빙강사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권기종(동국대 사회교육원장), 강건기(전북불교대 학장)

4. 모집 및 전형

모집과목 및 인원	지 원 자 격	제 출 서 류	전형방법
●불교학 출강 00명 ●불교학 통신 00명	●체계적 불교교육을 원하는자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보유자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1부 (사진 3매)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지

5. 원서교부 및 접수 2월 29일까지 (본대학 서무과) ※수시접수가능
원서교부 ▶ 서울 불교 문화센터 (불교방송국) (02)703-0108 ▶ 대구 적선사불교서점 (053)255-8875 ▶ 원주 법웅사 (0371)742-2701 ▶ 진해 삼밀사 (0553)542-6531 ▶ 하동 도림사거사림 (0595)882-4585 ▶ 목포 축성암 (0693)461-1212

6. 특전사항 ◇ 법사고시 경유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불화서 배우는 불교의 진리

정병삼 교수 '그림으로 보는 불교이야기'



사찰을 찾으면 늘 보게 되는 것이 불화이지만, 그 뜻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불자들이 으레 법당에 걸려 있는 것쯤으로 지나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화의 내용을 알고 사찰을 찾으면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참배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정병삼 숙명여대 교수가 쓴 〈그림으로 보는 불교이야기〉(풀빛)가 돋보이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이 책은 불화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 그 속에 깃든 불교의 진리를 터득하게 해 준다.

이 책이 지닌 또 하나의 장점은 친근감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절에서 늘 보던 불화들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사찰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250여 장의 불화사진이 수록돼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교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결국 이 책은 절에서 흔히 접하게 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헤아리기 어려운 불화의 내용을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풀어 쓴 책이라 할 수 있겠다.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은 방대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어느 한 부문이나 항목에 대해 자세하게 접근하는 방식은 아주 유효적절하다. 또한 이런 시도는 불교출판물의 저변을 넓힌다는 점에서도 크게 환영할 만하다. 값 1만8천원.

김중근 기자

고대 인도인의 잠언시 모음집

재연스님 '수바시따'



재연스님이 인도 잠언시를 모아 엮은 〈수바시따〉(자음과모음)를 내놓았다. 지난해 〈입산〉이후 처음으로 펴낸 이 책은, 고대 인도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 온 고전시가이다.

인도 문학 가운데 베다와 우파니샤드가 특권층의 장르라 한다면, 수바시따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다. 서민들에 의해 구전돼 온 다양한 주제의 잠언, 속담, 경구, 풍자시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수바시따에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가 담겨 있다. 인간의 탄생과 고뇌, 질병과 죽음, 삶의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이 시집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삶의 노래라 할 수 있다.

삶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 수바시따 시들의 주제는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바시따 모음은 힌두교도들의 생의 목표인 종교, 부(재물), 사랑, 해탈 등 이 네 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진다. 5천5백원.

김중근 기자

웃음꽃 핀 불자가정 위하여

혜주스님 '…불교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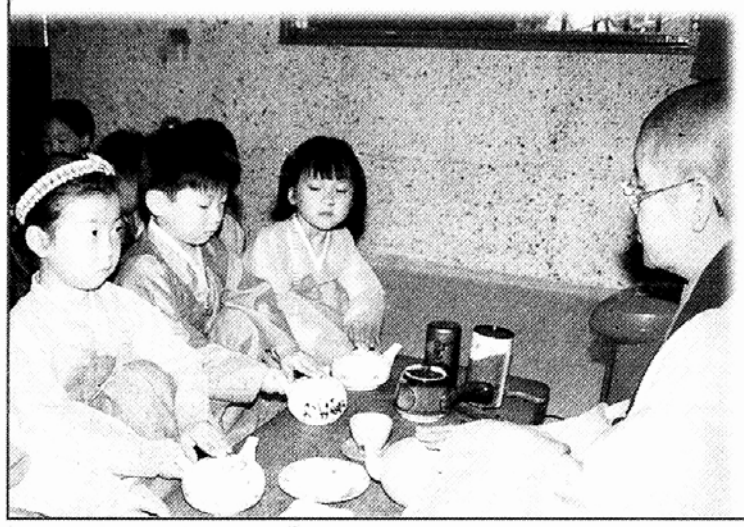
쉽고 재미있게 풀어 쓴 교리·예절·불교동화

신라시대까지만 해도 불교는 생활속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또다시 생활불교를 주장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불교가 생활 속에서 멀어졌다는 뜻이다. 여러 사찰과 신행단체에서 '불교 생활화'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불교는 생활의 불교화에 있음이 더욱 분명해진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불자들이 어떻게 해야 생활 불교인지를 성실하게 묻고 실천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점에서 포항 옥천사 부설 연화유치원장 혜주스님이 내놓은 〈온가족이 함께 읽는 불교이야기〉(들녘)는 주목할 만하다. 불자들이 실천해야 할 불교신행의 기본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쓴 이 책은,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읽고 실천할 수 있는 튼실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출간 의도는 불자가정 만들기이다. 이는 생활불교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글쓴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딱한 이론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가족들이 함께 읽으면서 불심을 함양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 나간다.

◇혜주스님은 유치원생들이 다도를 통해 예의범절과 불교적 심성을 갖게 하기위해 매주 다도를 지도하고 있다.



부처님의 생애(팔상록)는 그림과 함께 읽는 이야기 형식으로, 오계는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 팔정도는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변형했고, 불교의 5대 명절을 통해 불교의 기본예절을 익힐 수 있게 한다. 물론 기초교리와 불교 동화들도 빼놓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흥미롭게 불교에 접근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게 하는 한편, 어른들에게는 불교의 기초지식을 탄탄하게 하는 데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책은 철저히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내용을 전개해 간다. 그래서 글의 소재도 다양하다. 부처님의 생애와 보살의 의미에서부터 심우도,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 〈부모은중경〉, 불교 상징물, 사찰 예절, 극락과 지옥, 다례까지 펼쳐 놓는다. 특히,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글쓴이가 끌어 들인 '어린이 다례'는 이 책을 빛나게 하는 데 큰 구실을 한다. 실제 유아교육 현장에서 실시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만든 어린이 다례편은 차 문화 교육서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짜임새 있다.

사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책을 펴내기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어른들조차 이해하기 힘든 경전과 교리들을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일러줘야 할지는 보통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자칫하면 조잡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책은 아쉬운 점이 보인다. 고어투의 문장과 부적절한 용어 사용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글쓴이가 20여 년간 유아포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재미있게 불교지식을 얻고 행할 수 있도록 한 시도란 점에서 다소 미흡한 부문은 묻힐 만하다.

황옥자 동국대교수(불교아동학과)는 "방대한 경전을 유아교육에 적용시켜 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방편으로 재구성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런 난점을 극복한 책이 있다면 교재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불교 유아교육과 '어린이 포교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글쓴이는 이 책을 통해, 불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 습득보다 '불자가정에 어떻게 불성의 꽃을 피우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더 무게를 둔다. 불자들이 좀 더 불법에 다가서고자 할 때, 초심자이건, 아니 신심이 돈독한 불자일수록 더욱 이 질문은 절실하다.

이 질문을 놓고 오래 숙고하고 실천하는 것은 이 책을 읽는 불자들의 몫일 것이다. 값 2만5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대장엄론경'

화룡스님 해설



마명스님이 수행의 요체를 이야기체로 풀어 쓴 〈대장업론경〉(운주사)을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 나왔다.

불교의 역사와 부처님의 전기, 그리고 우화, 본생담 등을 통해 불교의 진리를 설하고 있는 이 책은 보시의 공덕과 마음가짐 그리고 참된 보시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등을 비롯 올바른 공양이란 무엇인가에 이르기까지 90여 개의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주제별로 엮어져 있는 〈대장업론경〉은 탑파 승배, 지계, 보시, 인욕정진, 소욕지족 등 여러 면에 걸쳐 다루고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뼈대는 삼보 승배이다. 또 재가불교의 규범과 보시 그리고 염불의 공덕을 설하는 것이 많다는 것도 이 책의 또다른 특징이다.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유식삼십송석'

박인성씨 번역



스티라마띠(安慧·510~570년경)가 주석한 〈유식삼십송석〉(민족사)이 번역돼 나왔다.

바수반두(世親·320~400년경)가, 〈해심밀경〉〈대승아비달마경〉〈유가사지론〉에서 〈섭대승론〉까지 유식학의 요체를 30개의 송(頌) 속에 담아 놓은 논서가 〈유식삼십송〉이다.

이 책은 산스크리트 유식용어로 된 송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와 함께 이 책의 번역 출간에 무게를 두는 것은, 인도불교의 큰 흐름인 유식불교를 그대로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중국 논사들이 쓴 한역본을 교과서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또 이 책은 고려대장경에 수록돼 있는 〈성유식론〉등 유식문헌을 올바로 해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높다. 값 2만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림원
2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레
3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 림
4	금강경 강해	김용옥	통나무
5	노자와 21세기(하)	김용옥	통나무
6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7	오계이야기	일 타	효 림
8	좌선수행법	남민수	불교시대사
9	부처님께 재를 탈면	스티븐미첼	여시아문
10	포교방법론1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도서 안내:(02)737-0695

새로나온 책



▲부처님 발자취를 찾아서(법흥·수진스님 공저, 감로여행사)= 법흥·수진스님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인도 8대 불교성지를 순례하고 쓴 답사기. 탄생·수도·성도·전법·열반지 등의 모습과 그곳에서 느낀 감회를 적고 있다. 값 8천원.



▲반야심경 강의(김성규 지음, 이사금)= 〈반야심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쓴 해설서이다. 경의 이름에서부터 구조, 그리고 공(空)사상까지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반야심경〉. 그러나 아직도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불자들이 많다. 그래서 글쓴이의 의도도 모든 불자들이 〈반야심경〉에 눈밝은이가 되게 하는 데 있다. 값 3천원.



▲어린이 한자-부모은중경(불국토사회연구원 펴냄, 부다가야)= 〈부모은중경〉에 나오는 한자를 써보고, 운율에 맞춰 노래도 부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 그리기, 낱말맞추기, 동화 등도 곁들여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공부하며 부모님 은혜가 왜 소중한지를 일깨우고 있다. 어린이법회 사경시간이나 어린이 한자 시간에 활용할 만하다. 값 3천4백원.

▲동양을 위하여, 동양을 넘어서(홍원식 외 지음, 예문서원)= 종교학, 철학, 사학, 문학, 음악, 미술 등의 분야 소장 동양학자 13인의 자전적 에세이다. '나의 한국학 여정기(최준식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를 비롯 일상속의 유교, 현대국악의 전개과정과 전망 등이 수록. 값 8천원.



▲신서(유향 지음, 임동석 옮김, 예문서원)= 중국 고대의 지혜가 담긴 188편의 짧은 역사 이야기. 이 책은 200년 전 중국 한나라 때 유향이 저술한 역사 고사집이다. 상고시대부터 한대에 이르기까지 선각자들의 일화와 고사를 중심으로 엮었다. 값 2만8천원.



▲살아남기, 근원으로 돌아가지(이병철 지음, 두레)= 생명운동, 귀농운동을 펴면서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며 땅이 죽어가고, 농촌이 망가져 가는 모습을 기록한 체험기. 인간성의 상실과 동동체의 상실이라는 위기를 직시하고 새로운 문명을 진지하게 모색한 책이다. 값 9천원.



▲21세기는 두뇌의 시대(김대환 지음, 한빛)= 21세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학문연구혁신을 위한 교양서. 대학생을 위한 총론적인 내용이 담긴 '보람있는 대학생활'을 비롯 면학의 기본자세, 독서, 21세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개발등 모두 4장으로 구성돼 있다. 값 1만원.

전통있는 불교포교의 명문 학당

2000년도 부산불교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1.모 집 학 과

학 과	교육기간	교육일시	입학자격	특 전
제10기 포교사 과정	2000.3~2001.2(1년)	매주 목,금 오후 7시~9시 매월 강의테이프16개 2달에 한번 출석강의	고졸이상의 남,여	수료생은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고시를 거쳐)
제10기 포교사과정통신반				
제5기 경전연구과정	2000.3~2002.2(2년)	매주 수 오후 7시~9시	본교 포교사과정 수료한자 및 동등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본대학 학칙에 의거 자격증 수여
제15기 교리반	2000.3~8(6개월)	매주 목,금 오후 2시~4시	불교를 알고 싶은 입문자	수료자는 포교사 과정에 우선 입학 할 수 있음
제6기 수화반		매주 목 오후 7시~9시	수화를 알고 싶은 남,여	수화 통역사 자격 시험에 추천

2.교과목 및 강사

1)포교사과정 및 통신반은 권위있는 교수진으로 대승경전, 불교사, 근본불교사상, 포교론, 불교미술, 불교사회복지, 불교의식 등을 체계적으로 쉽게 교수함
2)경전연구과정은 대강백 각성스님을 모시고 육조단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아함경 원전을 강의함.
3)교리반은 입문자를 위하여 불교사상을 쉽게 교수함.
4)수화반은 농아인을 위한 손발이 되도록 체계적인 강의를 통해 기능을 습득케 함.

3.원서접수 및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본교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첨부. 2월 29일까지 접수함.
▶기타 상세한 것은 본교 교학처로 문의 바람(신입생 모집 요강 참조)

4.전 형 방 법

서류 심사

부산불교교육대학 614-031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1동 390-34 8/2 화엄회관 2층(구진구청 뒷편)
전화 051)818-8659, 807-7351

2000학년도 제9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 한국불교법사대학

통신 출강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법사(法師)의 정의와 역할

법사의 칭호는 대승경전에 의거하여 정의와 역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하연의 정법을 수순법지하고 섭수정법하는 대승보살로서 여법히 불교의례에 따라 법사법위를 품수받은 불교지도자임을, 말합니다.

모집안내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불교 기본의식 포함) 대법사과정 = 2년 (불교 상용의식 포함)
6. 원서교부 및 접수 : 2000년 2월 25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소정의 법사법위품수와 법사자격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본 법사교단에 포교원및 사찰을 등록할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3층)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인터넷홈페이지 http://pubsa.buddhism.org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순간 마음의 울림 듣고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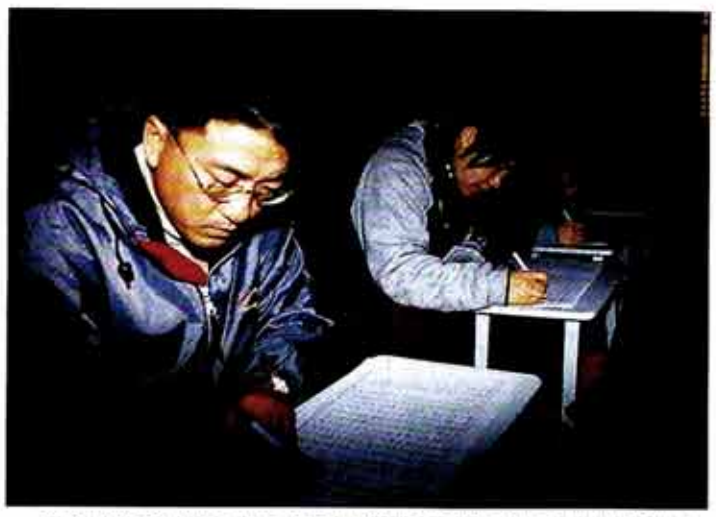
보성 대원사 '티벳불교 체험수련회' 취재기



◇두손을 모으고 지극한 마음으로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 본다. 그리고 진언을 염송하며 나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생각과 소리에 귀기울인다.



◇부처님전에 향사루고 그동안 불법을 실천하지 않고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며 생활한것을 스스로 경책해보는 참회시간.



◇부처님의 몸과 마음 그리고 가르침을 내안에 가득채워 본다.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로 통할때까지 정성을 다해 사경 · 사불을 하며 기도한다.

나는 지금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간직한 대숲을 걷고 있다. 왼손을 심장에 갖다댄 뒤 오른손으로 감싸며 숨한번에 반걸음씩 그렇게 앞으로 나아간다. 이른바 경행(經行)이다. 시원한 공기가 아무런 걸림없이 내몸을 스쳐간다. 태아가 엄마자궁에서 한뼘도 안되는 거리를 몇시간에 걸쳐 세상으로 나오듯이 천천히 발을 움직이며 내안의 나를 본다. 자연과 나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생각과 소리에 귀 기울린다. 마음의 본성을 관찰해 번뇌로 부터 벗어나고자 함이다.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은 창조성을 지닌 순수한 의식이며 존재다. 그러나 한편으론 쉽게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에 갇혀버린다. 그리고 차츰 존재 자체의 완전성을 잃어간다. 자신의 실체가 공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때문이다. 나는 오늘 3박4일간의 티벳불교 체험을 마치면서 새삼 그것을 느낀다.

48시간 동안 단식 묵언 불면 불와의 '반주삼매 융뇌(NUNG-NEY)수련'은 내 마음의 본성이 푸른 하늘과 같고, 자성의 본질이 밝은 태양과 같음을 알기 위해 욕심과 집착 그리고 번뇌를 떨쳐버리는 티벳의 수행법이다. 티벳인들은 1년에 2번씩 물한방울 밖에 못먹는 아귀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생동물들의 고통을 경험해보며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진다고 한다.

'티벳의 지혜와 명상'을 주제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티벳불교 수련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단식-묵언-불면-불와
48시간 융뇌수련
다라니염송과 밀교기공
육근참회 108배 정진
"욕심과 번뇌 사라지는듯"

27일 오후 2시 백제고찰 전남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에 다다랐다. 인연따라 대원사에 온 30명의 도반들과 함께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 마음의 태양을 맞이하는 여행을 시작한 것이다.

입재식에서 주지 현장스님은 "자기를 확장하려 하지 말고 나쁜 습관 하나를 버리는 데 역점을 두고 진실한 발심과 각오로 수행하자"고 말한다.

이어 쵸펠스님(티벳승려)은 "우리 스스로가 무명한 빛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현상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입재식을 마치고 약석(藥石)에 참여했다. 약석은 오후불식하던 승가의 전통과 달리 선종에서 몸이 약한 수행자들에게 간단한 저녁식사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약석은 아픈배를 돌로 치료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약석의 의미를 새겨보며 약간의 죽인밥을 마치 약을 먹듯이 천천히 씹어 삼켰다. 이 음식은 다음날 시작되는 융뇌수련을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음식물이다.

어둠이 땅에 내려앉는 것을 시작으로 만트라 학습에 들입했다. 만트라는 다라니(진언)를 염송함으로써 해탈에 이르는 수행법을 말한다. 정토다라니 삼밀법은 먼저 좌선자세로 앉는 다음 큰숨을 세번 내쉰 뒤 합장한 채 두 엄지손가락을 눈썹 가운데 대고 '옴', 그리고 목에 대고 '아', 심장에 대고 '훔'하고 숨이 다하도록 길게 내뱉는 수행법이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나면 순수한 마음자리만 남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어서 밀교기공이다. 가부좌 자세를 한뒤 숨을 고른 다음 날숨을 길게 하며 '아미타불'의 미소를 관하며 열번 암송한다. 들숨도 마찬가지로 하며 숨이 정수리 숨골을 통해 밝은 빛으로 들어온다고 관상한다. 밤이 깊어 하루수행을 마감하는 당선법회를 마치고 절마당에 나와 보니, 아미타불의 화신인 양 둥근달이 환하게 내려보고 있다.

새벽 4시 30분. 범종소리가 시방세계에 울려퍼지고 아침예불이 시작된다. 108배 정진에 이어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 육근(六根)으로 지은 죄를 참회하는 육근참회 108배 정진을 했다. '시작도 없는 옛적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몸과 입으로 지은 죄업을 모두 참회합니다. 원컨데 부처님의 법신과 정법, 마음을 깨달도록 해 주십시오.' 한배 한배 쉼없이 절을 하며 간절한 발원을 계속한다. 어느덧 법당에 훈훈한 기운이 돌고, 죽비소리와 함께 멈춰선 수련자들의 얼굴에는 밝은 기운이 감돈다.

오후에는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듯, 기운 달이 차서 둥근달이 되듯,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부처님을 그리는 일자일불(一字一佛)을 했다.

그리고 기공예배법을 통해 아미타부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쳤다. 기공예배법을 행하며 깨달을 얻어



◇야외에서 정토다라니 수행법인 삼일법을 행하며 순수한 마음자리를 찾아본다.

온갖번뇌 사라지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했다. 다시 법당으로 가서 온몸의 기를 발바닥에 모으고 두 손을 가슴 앞에 펴 육바라밀, 지혜바라밀을 묵상했다. 이어 아미타불을 염불하고 둥근 원을 그리며 머리 위에서 합장한 뒤 투명한 빛이 정수리 위로 쏟아짐을 관한다. 합장한 손을 가슴까지 내리고 90도로 고개를 숙인 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손을 쭉 뻗어 중지손가락만 15도 정도 올린다. 그 상태로 숨을 멈춘 뒤 아미타불을 열번 암송하고 백팔배를 하고 나니 욕심과 질투와 번뇌가 사라진다. 이어서 가슴의 맺힘은 손끝으로 나가고 단전에 맺힘은 발가락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왔다.

셋째날에는 영혼의 세계와 죽은 뒤의 세계를 알려주는 '사자의 서'에 대한 시청각교육이 진행됐다. 사람이 몸뚱아리를 받어난 중음신인 바르도 상태가 되면 의식이 9배나 맑아져 완전한 해탈에 이루기가 쉽다고 한다. 바른생각을 잃지 않고 생명본디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살아서의 해탈이라는 것을 자각해 본다.

해가 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한다. 숨을 세번 크게 내쉰 뒤 두손을 모으고 서쪽으로 지는 해를 바라본다. 꿈속의 세계가 실체가 없듯이 이 세상도 텅비어 있음을 관한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승려상처럼 소박한 모양을 하고 있는 쌍계사 마애여래좌상. 조성연대는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마애불을 찾아서

쌍계사 마애여래좌상

바위 한쪽만 파내 감실처럼 꾸며
육계 뚜렷하고 큰머리 풍만한 얼굴

경남 하동군 화계면에 있는 이 마애불은 큰 암석의 한쪽 면을 움푹 들어가게 파내고 그안에 여래좌상을 두껍게 양각하였다. 그러므로 마치 감실안에 봉안한 것 같이 보이는 특이한 형식이다. 육계가 뚜렷한 큰 머리에 풍만한 얼굴이며 귀는 어깨에 가깝도록 길게 내려오고 법의는 두툼한 편이어서 옷주름의 표현은 비교적 뚜렷하지 못하다.

수인 역시 두툼한 법의에 덮혀있는 상태이므로 확실한 표현은 아니지만 선정인으로 보이며 목에 삼도가 없다. 이 불상은 마치 승려상으로 보일 만큼 소박한 형상이며 조성년대는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분화재자료 48호

글 · 사진=불지포교사진연합회 (011-337-7312)

신비의 달마도 카드모양


달마도-앞면



달마도-뒷면


관음도-앞면


지장도-앞면

庚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의 : 그림모양은 같으나 색상은 같을도 앞면과 같습니다 부드러운 솔으로 닦지 않으시면 물감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 개금 정안비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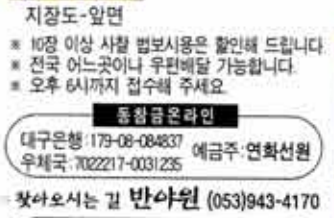
수맥을 차단하는 통판에 금분으로 그림을 입힌 후 색깔 개금 불자 때와 같이 99% 순금 금박 옷을 입혀드립니다. 개금하여 정불하는 그 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 관음도와 지장보살님 카드모양도 제작되었습니다.

※ 10장 이상 사찰 법보시용은 할인해 드립니다.
※ 전국 어느곳이나 우편배달 가능합니다.
※ 오후 6시까지 접수해 주세요.

동참금온라인
대구은행 179-08-084837 예금주 연화선원
우체국 7022217-0031235

찾아오시는 길 반야원 (053)943-4170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용도:새천년 새해 소원성취부 안전운행 · 불안정한 분 · 건강유지 기획 금봉스님 제작 · 공급처 반야원



체험수련회 지도 초펠스님

"참된 재산은 마음공덕이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끊고, 다음생까지 가져가는 참된 재산인 마음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원사 티벳불교 체험수련회를 지도한 쵸펠스님(티벳)은 "한국에서는 생소한 티벳의 밀교수행을 통해 한국불자들이 윤회를 실감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대인들이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병에 잘 걸리는 것은 탐진치 삼독에 얽매이기 때문이다"고 말한 스님은 삼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시한부 인생을 산다는 초발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이기심을 버리고 보리심을 말하는 대승불자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순수한 의식을 가지고 항상 염불수행하며,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투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공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삼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쵸펠스님은 현재 대원사에서 정진하며 주 1회 송광사 강원에서 특강을 하고 있고, 광주지역 신행공동체인 자비신행회에서 마련한 호스피스교육에도 참여하고 있다.

인터뷰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



"올내 티벳불교전시관 개원"

"올해안에 티벳의 정신과 불교문화를 소개할 티벳불교전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대원사주지 현장스님은 올해안에 티벳의 불교정신과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티벳불교전시관을 대지 1천평에 2층 전시관 140평과 3층에 법당 43평규모로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티벳불교전시관이 개원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문명의 발달로 인해 늘어나는 현대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해결해 주는 장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시관은 티벳사찰 건축양식으로 건립하며 지난해 국내에서 열린 2번의 티벳전시회에 나온 티벳불구 및 불교예술품 8백점을 모두 한곳에 모아 전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현장스님은 "불교적 삶의 완성을 티벳밀교에서 찾을 수 있다는 확신하에 이번 티벳불교 수련대회를 열게 됐다"며 "앞으로도 티벳불교 수행법을 한국의 불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매주 주말수련대회를 계속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달마 혈맥론(血脈論) ①

三界混起 同歸一心
삼계혼귀 동귀일심
前佛後佛 以心傳心
전불후불 이심전심
不立文字
불입문자

"삼계(三界)가 어지럽게 일어나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앞서 깨달은 분이나 뒤에 깨달은 분이 모두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 것이지 글자에 의존하지 않았느니라."

問曰 若不立文字 以何爲心
문왈 약불입문자 이하위심

어떤 이가 묻기를 "만약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마음을 표현합니까." 하였다.

答曰 汝問吾
답왈 여문오
卽是汝心 吾答汝
로 너의 마음이다. 끝없는 옛날부터 활동하고 살아온 모든 시간과 장소들이 모두 그대의 근본 마음이며, 근본 부처이다. 마음이 곧 부처라 함은 바로 그와 같아서이다.

除此心外 終無別佛可得
제차심외 종무별불가득
離此心外 覓菩提涅槃
이차심외 멱보리열반
無有是處 自性眞實
무유시처 자성진실
非因非果 法卽是心義
비인비과 법즉시심의
自心 是菩提 自心是涅槃
자심 시보리 자심시열반
若言心外 有佛及菩提可得
약언심외 유불급보리가득
無有是處 佛及菩提
無有是處 불급보리
皆在何處 譬如有人
개재하처 비여유인
以手捉 虛空得否
이수착 허공득부

마음 떠나서 부처 찾을 수 없으니
자기마음이 바로 보리요 열반이다

즉시여심 오문여
卽是吾心 吾若無心
즉시오심 오약무심
因何解答汝 汝若無心
인하해답여 여약무심
因何解問吾 問吾卽是
인하해문오 문오즉시
汝心 從無始曠大劫以來
여심 종무시광대겁이래
乃至施爲運動 一切時中
내지시위운동 일체시중
一切處所 皆是汝本心
일체처소 개시여본심
皆是汝本佛 卽心是佛
개시여본불 즉심시불
亦復如是
역부여시

이렇게 대답했다.

"그대가 나에게 물는 그 자체가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나에게 마음이 없다면 어찌 그대에게 대답할 수 있으며, 그대가 마음이 없다면 어찌 나에게 물을 수 있겠느냐. 나에게 묻는 그 자체가 바로 너의 마음이다. 끝없는 옛날부터 활동하고 살아온 모든 시간과 장소들이 모두 그대의 근본 마음이며, 근본 부처이다. 마음이 곧 부처라 함은 바로 그와 같아서이다.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을 수 없으니, 마음을 떠나 보리와 열반을 구한다면 옳지 못하다.

자성(自性)은 진실하므로 인과(因果)에도 구애받지 않으며, 법 그 자체가 마음이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이 바로 보리요 열반인 것이다. 만약 마음을 떠나 부처가 있고 보리를 얻는다 한다면 옳지 않다. 도대체 부처와 보리가 어디에 있는가?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잡을 수 있겠는가?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혈맥론(血脈論)과 관심론(觀心論)

〈혈맥론〉과 〈관심론〉은 달마(達磨 : ?-528) 스님의 어록이다. 인도의 승려로 중국에 건너와 대승불교를 일으킨 중국 선종의 시조이다. 이 〈혈맥론〉과 〈관심론〉은 대승불교의 중심사상인 〈마음〉에 관해서 문답형식에 의해 전개하고 있다. 다시말해 교리나 문지에 의하지 않고 바로 사람의 마음을 직관(直觀)하여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음을 설파하신 것이다.

불자(佛子)라면 승속(僧俗)을 막론하고 반드시 읽어야 할 귀중한 보서(寶書)이다.

큰 스님과의 대화

정무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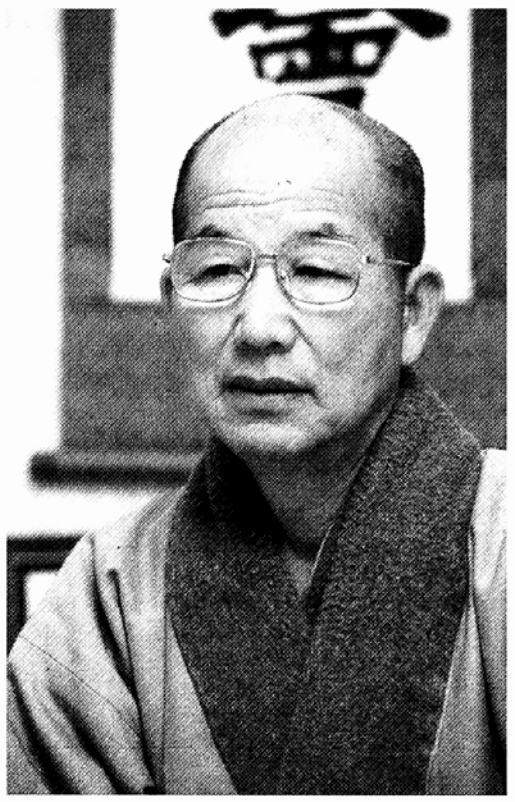
이천 영월암 주지

집에서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정보화의 발달은 극도의 개인주의를 불러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를 단절시켜 인간 소외감을 가중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 IMF경제한파로 인해 우리 사회는 최근 가정의 해체와 분열 현상이 가속화돼가고 있다는 좋지 않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일까. 최근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등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들을 초청해 가진 신년하례회 겸 간담회 자리에서 종교지도자들은 박장관에서 '가정붕괴현상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가정은 사회구성의 최소단위이자 모든 이들의 안식처이다. 그러나 종교지도자들이 가정붕괴 대책을 요구할 만큼 요즘 우리네 가정은 위기를 맞고 있다. 가정이 안정되고 행복하지 못하면 그속에서 부부문제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등이 일어나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여타 사회문제가 파생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설부모은중경판이 봉안돼 있는 용주사 주지를 수차례 역임하면서 누구보다도 효와 가정,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정무스님을 만났다.

"부모답고 자식다우면 가정화목"



- 1931년 전북 옥구 生
- 57년 전북대 농과대 수의학과 졸
- 58년 은적사에서 전강선사를 은사로 사미계
- 62년 삼척 영은사에서 대교과 수료
- 65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선사를 계사로 비구계
- 63년 김제 부흥사에서 전강선사를 조실로 5안거 성만
- 68년 영주포교당 주지
- 71~83년 수원 용주사 주지
- 84년 신륵사 주지
- 77년 조계종 종정 표창, 82년 법무부장관 감사장 등 수상
- 현재 이천 영월암에 주석

"누구나 혼자 살 수 없는법 '나'와 '너' 조화이뤄야 행복도 기쁨도 가능"

— 컴퓨터 등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간은 집에 혼자 있어도 의식(衣食)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가 단절돼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지나 않을지, 원만한 인간관계가 막혀 불화와 갈등이 높아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가고 있습니다.

▲ 누구나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나라는 것은 네가 있어 성립되고 너는 내가 있어 성립된다는 연기법의 실상을 꿰뚫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옆을 살피질 않고 살피려고 노력도 안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독단, 자기 중심에 빠져버리지요. 사회가 그러한 경향으로 간다고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불행은 곧 나의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원인없는 결과는 없는 법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고독하다고, 소외감을 유난히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곰곰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결국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가정의 기본 구성원은 어머니 아버지 자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늘 바쁘다는 굉계로 가정에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낮에 집에 있는 주부는 능력없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밖에 있는 시간이 많지요. 사는 것은 풍족해졌고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은 많은 반면 자녀들에게 제대로 존경을 못받고 있고, 가족구성원들의 밀착력도 점차 희박해져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 사람들이 정신 못 차려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사는 일이 바빠도 정신만 번쩍 차리면 됩니다. 자기를 바로 보세요. 자기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부모 모시고 자녀 거느리고 3대의 가정윤리가 서야하는데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는 데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고쳐가야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바로 보면 문제를 알게되고 원인을 파악하면 대책은 나오게 마련이지요.

— 사람들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요사이 사는 것이 지난 60~70년대에 비해 엄청나게 좋아졌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해 졌는데도 정신적으로는 공허감이나 부족을 느끼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인상을 찌푸리고 항상 불만족한 얼굴들을 많이 봅니다.

▲ 내 경험으로는 50년전보다 생활수준이 백배는 좋아졌습니다. 물질은 몇십배로 향상이 되어 그만큼 편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반대로 불행해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있기까지 자기존재가 어떻게 섰느냐. 무슨 까닭으로 자기가 존재하는가. 어디서 왔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다섯가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 은혜, 국가은혜, 동포은혜, 스승의 은혜, 그리고 자연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은 혜는 열가지가 있습니다. 부모은중경에 자세히 나오지요. 또 국가의 은혜는 역사와 문화라고 보면 됩니다. 한 민족이 됐다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혼자는 못 삽니다. 서로서로 주고받고 도와주어야 하지요. 스승중의 만세의 스승이 누구냐. 단연코 대자대비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또 온 인류는 한시라도 자연의 혜택을 떠나서 살 수가 없지요. 이 다섯가지 은혜를 철저히 안다면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봉사하고픈 생각도 나지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봉사는 즐겁습니다. 자유보다 좋은 것이 복종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종 안할 수가 없지요.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무슨 통계를 보니까 미국 일본 등 잘사는 나라 국민들보다 못사는 나라 국민들이 생활에서 더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더군요. 행복하려면 '일체유심조'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세요. 자기앞에 불행이나 어려움이 닥칠때 보통 사람들은 펄펄 매고 운명을 원망해요. 조상탓 남탓을 하고 불행해 하지만 불자들은 '보왕삼매론'의 "세상살이에 곤란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라는 구절을 떠올리고 역경을 거울로 삼아 장애속에서 보리를 얻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늘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 요새는 1등만이 전부인 것처럼 사회에서도 부추기고 경쟁이 치열해 스트레스가 큽니다. 1등만이 대접받는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오되고 절망을 느끼는데요.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는 양보라든가 이타행이라든가 하는 말이 설득력을 얻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양보하고 지는 것이 얼마마한 미덕이고 이익이 오는지 세상사람들은 생각안합니다. 어느 곳에 형하고 동생이 살았는데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형이 살림주관을 하니까 20평 아파트 밖에 못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寧: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본포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와 강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돌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의료법인 태영의료재단
효성양방 · 한방병원 안내



▲ 효성양방 · 한방병원 전경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안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 · 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자금과 불사(佛事) 시주금으로 마련한 4백억을 투자하여 건축허가분 실버타운 300여실을 증축하고 한국목탑(木塔) 형식의 3층 법당(150평규모), 세계 최대규모인 108미터 열반와불(臥佛)상과 10만위(位)의 영골(靈骨)을 모시는 영묘사리탑(靈廟舍利塔), 열반 와불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신병신경성 질환, 당뇨병, 중풍(와사풍 포함),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완치될 때까지(약 1개월안에 치료 가능) 무료로 치료해 드리고자 하오니, 전국의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의료법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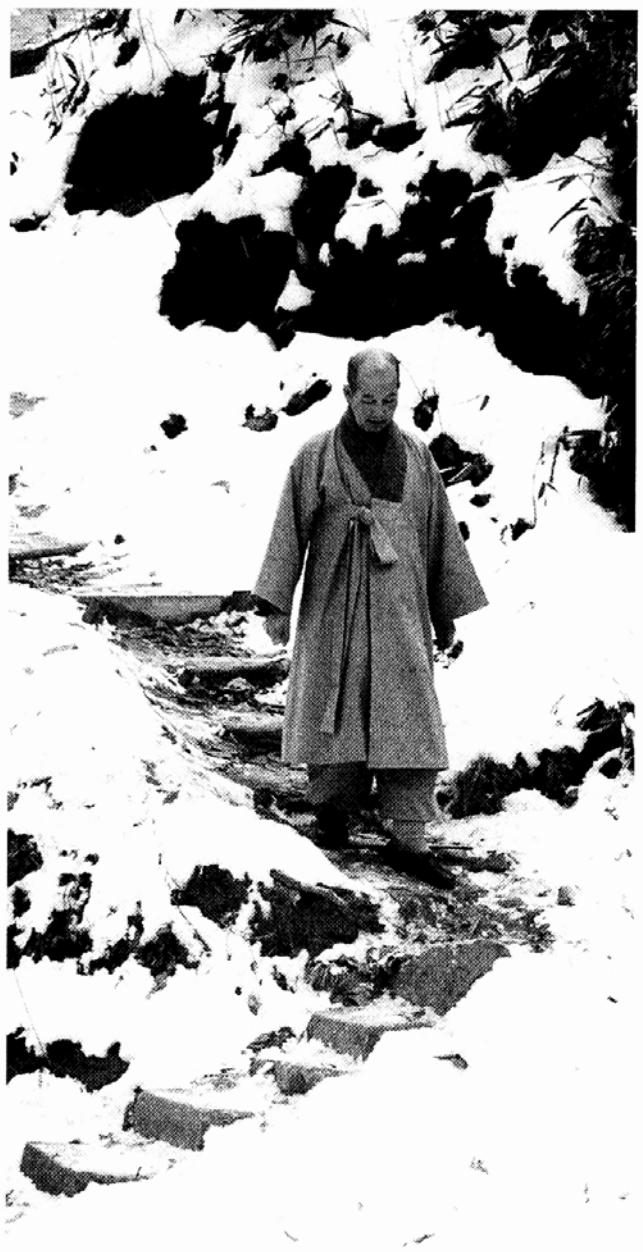
(이사장 직통) 대구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실버타운 분양안내

구분	금액	비고
2인 1실	각 20,000,000원	전세
1인 1실	30,000,000원	전세

선착순 104실 / 매월 식대 400,000원(개인부담)

"은혜 갚을 줄 알아야 보살 힘 닿는대로 봉사하세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다섯가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매일매일 이 즐겁고, 봉사도 잘하게 된다고 강조하시는 정무스님.

사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안 됩니다. 35평 사주세요" 하고 마음대로 35평 아파트 계약서를 형님앞에 갖다놓는다면 형님마음이 어떻겠어요. 정이 떨어지고 밉겠지요. 아마 20평도 사주기 아까울 겁니다. 반대로 동생이 "형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15평도 참 좋습니다"하고 15평 계약서를 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형 마음이 그냥 녹아버려요. 아이고 저 동생 내가 생명을 다 바쳐서 잘해 줘야지 합니다. 사소한 예지만 양보의 미덕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데 그냥 기를 쓰고 많이 얻고 남위에 올라서려 하고 그게 제일인줄 알지요. 요새 노자강의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는데 그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 요즘 원조교제니 마약이니 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이 심각합니다. 신세대들이라고 해서 예전과 같은 교육으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자녀들을 올바르 기르기 위한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하는지요?

▲ 평상심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부모가 아니라 부모다운 심성과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잘못 하면 펄펄 뛸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고 어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진 부모 밑에서는 가출하는 청소년이 안 나와요. 설혹 가출했다고 합시다. 어디 가겠어요. 거지꼴이 돼 가지고 고생하겠지요. 그러면 친구가 와 가지고 술집에서 심부름하고 있어요 그럽니다. 추운데 방도 없이 떨어요 그럽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때 아무말 말고 돈이 필요하겠다 이돈 갖다 주어라 해보세요. 그러면 손오공이 아무리 날아가도 부처님손바닥안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슬쩍 이런말이 들어가게 한마디 해보세요. "사람은 그런 고생도 해 봐야 돼" 또 부를 명분도 생기잖아요. 그러한 어진 마음으로 다스린다면 하나도 안 놓칩니다. 백발백중 다 다시오게 되어 있어요. "이놈아, 다시 나갈거냐" 컬컬 뛰며 야단치고 창에 가두고 묶어놓아도 소용없어요. 마음을 움직이도록 해야합니다. 부모가 평상심을 갖고, 자비심으로 대하면 하나도 잘못 되지 않습니다.

또 자녀가 자기 가정의 보물 1호인줄 알아야 합니다. 돈 더 버는 일에 몰두하다가 가장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돈 좀 더 벌려고 자녀들에게 소홀하니 어리석지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부처님께서 아직 어려 장난이 심하고 거짓말로 남을 괴롭히던 라훌라를 교육시킨 이야기가 있어요.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해 이것을 비유로 삼아 스스로 깨닫게 했어요. 라훌라는 그때부터 달라져 남들모르게 열심히 수행하 그결과 밀행제일존자라는 칭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이 교육방법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면 누가 뭐라 안해도 달라집니다. 강요보다는 스스로 깨닫게 해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이지요.

— 30년전 용주사 주지로 계실때, 아직 교계에 사찰수련회가 없고 인식도 안돼 있던 때부터 용주사에서 수련대회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용주사에 효행관이 있어 청소년 교육에 앞장서고 있지요. 핵가족화가 되어 어느 가정이나 아이가 하나나 둘 밖에 없어 귀하게 자라 자기밖에 모르는 이 시대에 효 개념도 점점 희박해 갑니다. 청소년들에게 효 관념을 심어 주는데 사찰이 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당시 방학때는 사찰일을 전폐하고 다 받았지요. 그때는 부모은혜 10가지를 설명하면 막 눈물을 흘리고 참회를 했지요. 요새는 눈물 흘리는 아이들이 없어요. 사람의 본질이 자비심입니다. 자비한 마음으로 불쌍한 것을 돌보는 마음이 보살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모 아니예요? 효사상 선양이라는 것이 단순히 부모에게 잘 하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웃과 사회, 국가로 확산해야 합니다. 가정윤리에 머물지 말고 사회윤리 국가윤리 세계윤리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거지요. 효라고 따로 이름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본질인 자비심을 이 시대에 적극 현양하자, 나투자. 그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사찰에서 수련프로그램을 만들어 어릴때부터 교육시킨다면 효과가 크겠지요.

— 불교가 21세기의 희망이고 대안이라고 해 불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를 정화시키고 도덕을 선양시키는 역할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요.

▲ 일심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본질로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5계만 잘 지켜도 도덕이 바로 섭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무슨 종교나 할 것 없이 정신들이 없어요. 돈 벌어서 자기 교세나 늘일려고 하고... 오계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불자가 많아진다면 그 사회는 밝아지고 깨끗해 집니다. 불교신자부터 깨어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의 부모를 향한 효성을 이웃에, 인류로 확대하는 것이 인간성숙의 도이고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잘사는 나라, 선진국들의 국민들을 보세요. 자기 힘대로 여건닿는대로 봉사 안합니까?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은혜를 안 갚겠습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잘 갚는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 신도들에게 해주시는 법문중에 불교신앙과 자연건강, 여행을 자주하라 이 세가지를 항상 강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 종교신앙을 확고히 해서 어렸을 때부터 불교적인 세계관으로 사물을 대하게 해야 합니다. 또 우리 주위는 너무도 건강치 못한 환경이예요. 공해뿐이지요. 건강에 대한 고도정보를 얻어 섭생을 잘 해야 합니다. 건강자체가 목적은 아니예요. 건강해야 수행도 봉사도 합니다. 우리 생의 목적인 깨달음을 위해서도 건강이 중요하지요. 평생 건강에 유념하고 살아야 합니다. 못 고칠 병은 없어요. 못 고칠 습관만 있을 뿐이지. 건강은 습관으로 평생 살아가는 것이예요. 수행도 똑같아요.

그리고 먹고 입는 것을 절약해 여행을 하세요. 우리나라도 브고 세계도 보고 해야 합니다. 내가 불교에 관계되는 나라는 거의 가 보았습니다. 선진국 사람들이 여행 많이 한다고 그러지요. 거의 정년퇴직한 노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건 못씁니다. 여행도 젊었을 때 해야 합니다. 여행에서 얻은 그 경험 그 풍부한 감수성을 실생활에 써야 풍부하고 넓은 사고를 가진 건전한 인간으로 자라납니다. 세계는 넓고 갈데는 많다. 중국 미국 인도만이라도 꼭 가보도록 권합니다. 인도는 가장 영광스러운 문화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귀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어떻게 수행하느냐고. 참선할 때 집중안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는 확신이 깔려있어야 수행이 제대로 되지요.

자꾸 세상이 어지러워 갑니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밖으로 휘둘려져 마음이 약해지고 정신을 못차립니다. 그래서 수행이 더욱 필요합니다.

대담=이경숙 부장
(gslee@buddhapia.com)

효림스님이 쓰는 이런스님

■걸출한 선승 대선스님

가끔 신도들이나 아는 사람으로부터 "스님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무어 걱정할 일이 있나. 힘든 일이 있나. 세상에 가장 편안한 사람이지요"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글쎄.... 스님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일까? 특히 고향사람이나 어린 시절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들로부터 걱정 없는 사람, 팔자 늘어진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할 말을 잃어버린다.

대체적으로 세상사람들은 스님들의 수행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 절에 오랫동안 다닌 신도들 가운데도 스님들의 생활이 무사안일한 것으로 알고있는 경우가 많다. 정말 스님들의 수행세계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다.

문경에 있는 희양산 봉암사의 객실에 명곤스님 선견스님 등 도반들 몇몇이 앉아있는데 대선스님께서 바랑을 지고 들어오셨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다. 인사를 나눈 뒤 대선스님을 앞에 모시고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대선스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지금 이 바랑에 들은 것이 무엇인줄 아나? 약보따리다"

평소 스님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대선스님이 목소리에 무게를 실어 "약보따리다"하는 말을 할 때에 벌써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라고 짐작을 했다. '스님이 무슨

약보따리 멘 대선스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부에 매진하려고 한다"

병에라도 걸렸나?' 평소 스님의 성격으로는 우리들 같은 후배들이 특별한 병도 없이 몸이나 건강해지겠다고 약을 다려먹는 것을 보면 신심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약단지를 발로 걷어찰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스님의 그러한 대기대용한 기질을 존경했다.

"자네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젊고 힘있을 때 공부에 힘쓰도록 해. 내 나이가 40이 넘었어. 남들은 대선이 공부 잘 한다고 하지만 내가 나를 돌아보니 몸은 약해지고 마음이 비장하다. 그래서 이 약 다려먹고 몸을 추스른 후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할려고 한다. 내 대단한 결심을 했다"

그날 우리는 스님의 말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다시한번 발심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방안의 공기는 자못 엄숙해졌고 대선스님은 우리에게 수행자가 공부에 임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 어떤 법문보다도 소중한 법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날 스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공부하면서 겪은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을 이야기해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행의 어려움을 새롭게 돌아보게 된 것이다. 곁들여 60년대 망월사에서 춘성노스님을 모시고 공부하던 것과 춘성노스님의 무애자재한 모습에서 진정한 수행자의 탈속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했다.

그렇다. 스님은 보기드문 걸출한 선승이다. 한마디로 그릇이 큰 분이다. 8.15이후 우리나라 선승가운데 가장 걸출하고 고준한 분을 꼽으라면 아마 누구나 춘성노스님을 들 것이다. 한데 그 춘성노스님 회상인 망월사에서 공부한 스님들 가운데는 걸출한 선승이 많았다. 그 걸출한 상족(上足) 가운데 한사람이 바로 대선스님이다.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있어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풍모를 가지고 있다. 얼굴에는 항상 광채가 났다. 말을 할 때는 목소리가 우렁차고 걸걸하면서도 유창하다. 자세는 항상 반듯하여 마주 대하고 앉으면 상대를 제압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너무 추켜세운다고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스님을 딱 한번이라도 보기만 하면 내말이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대선스님이 나이 40 넘어 새롭게 출가하는 마음으로 공부에 일로매진하기 위해서 굳은 결심으로 발심했을 그때 바로 봉암사를 찾아왔던 것이다. 우리에게는 항상 굳건한 기둥같은 분이었던 대선스님도 내면으로는 힘들어 할 때가 있었던 것이다. 수행이란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다. 아니 큰 그릇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힘든 진통이 뒤따르는 것이다.

나는 스님을 모시고 해인사 등지에서 몇 철을 살았는데 대중을 이끌고 가는 힘이 있어 스님이 회중(會中)에 있으면 모두들 마음이 편안하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스님은 천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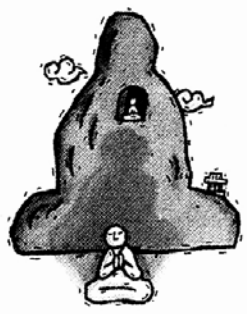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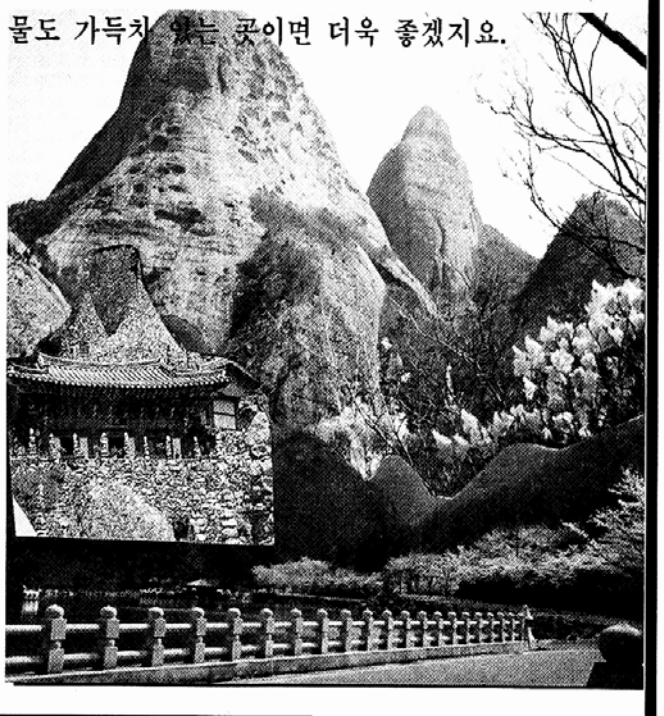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장난기도 많은 분이어서 대중들을 선동하여 엉뚱한 일을 하게 할 때도 있다. 한때 해인사에 오래 살기도 했었는데 방장이신 성철노스님으로부터 각별한 인정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스님은 누가 보아도 당시 선원의 지도자로 자리잡고 있었다 호연한 성품과 대기대용하는 기질이 장차 불교계의 큰 스승으로서 혹은 선객들의 지도자로서 대 선지식이 될 기량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스님은 우리 후배들의 바람과는 달리 해인사를 떠났고 이내 대중처소를 떠나게 되었다. 나는 스님의 세속 모친도 두번 만나본 일이 있는데 아주 여장부다운 그런 분이었다. 그 모친께서도 스님이 큰절에서 대중들을 지도하는 그런 스님으로 남아있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하여튼 대선스님은 이런저런 것을 버리고 대중처소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당신의 세속집을 사찰로 만들어 그곳에서 벌써 20년째 두문불출한 채로 공부만 하고 계신다. 큰 스님이 어찌 총림이나 대 가람에서만 나오랴. 오히려 옛날 눈밝은 선지식들 가운데는 일정한 처소도 없이 사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름도 없는 아주 작은 암자나 토굴 같은 곳에서 일생을 사신 분들이 많다. 나는 대선스님도 반드시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라고 믿는다.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탑사 —탑영제 방생—

· 관광과 방생을 한 곳에서 ·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433-2900, 0303
(0655)432-0652, 0072

■약도


전국 유명 서점 및 불교서점 절찬리 판매중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쉼 없는 수행자의 투명한 감동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면 빗자루 끝에서
생명이 샘솟는 듯 합니다.
소납은 하루를 시작하면 빗자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빗자루는 나의 스승과도 같습니다.

이 글은 불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교훈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고 담박하고 깔끔한 문장이 잡은 참에 읽힌다. 내 자신도 늘 되돌아 보는 바이지만, 출가 수행자에게는 글 쓰는 일이 수행의 한 여기(余技)에 지나지 않는다. 수행자의 본업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착실한 중노릇이다. 스스로 깨어있고 이웃을 일깨우는 일이다.

-법정스님-

혜총스님 지음 /신국판 / 정가 8,000원 | 부다가야 | 614-062 부산광역시 전구 양정2동 333-2 전화 (051) 865-4383 · 팩스 865-4821

혜총스님의 중노릇

온 몸으로 만나는 자연이라는 경전



◇중봉에서 덕유평전쪽으로 가는길에 만난 주목.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세한에도 꼿꼿하기 이를데 없다.

백두대간 속으로 〈8〉 덕유산→삼봉산→소사고개



◇덕유평전 내리막길. 5~6월이면 이곳엔 철쭉과 원추리가 되어 천상의 화원을 이룬다. 백두대간의 주릉은 화면 왼쪽의 능선쪽으로 이어진다.

파도의 높낮이 한순간 몸바꿈하듯 높은산 낮은산 얼싸안은 백두대간

다시 향적봉에 섰다. 낮게 내려앉은 하늘에는 눈이 분분(紛紛)하다. 이렇게 한자말로 '분분'이라고 적고 보니까, '풀풀 날린다'는 우리말 만큼이나 정감이 간다. 귀에 닿는 맛이 비슷한 까닭이리라.

때로 '말의 내용'보다 '말투'가 더 중요한 것도, 말이 지닌 음악성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어린 아이의 머리맡에서 들려주는 엄마의 옛날이야기가 자장가가 될 수 있는 것도, 시(詩)가 산문보다 더 음악에 가까운 것도 같은 이치다. 따라서 같은 궁극적으로 소리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 소리는 자연의 소리와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음의 경계로 떨어지고 만다.

백두대간 속으로 조금씩 더 들어서면서부터는 부쩍 글쓰는 일이 어려워지고 조심스러워진다.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어렴풋이나마 말의 낙처(落處)를 본 탓이다. 솔직히 부담스런 자각이다. 치기와 만용으로도 버틸까말까 한 형편으로는, 범접하기 힘든 길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연재를 시작한 지도 한참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 독자 여러분께 도리가 아니라는 점도 잘 안다. 그렇지만 결코 새삼스러운 고백은 아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제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어쨌든 앞으로는, 거지 갑등을 쥐어짜 독자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꼭 밝히고 싶다.

향적봉 아래 중봉에서 아침을 맞기로 했다. 백두대간이 덕유산을 벗어나는 지점은 백암봉이지만, 이왕이면 좀더 조망이 좋은 중봉에서 해오름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조그마한 천막을 세우고 때이른 잠을 청해 보지만 워낙 추운 탓에 쉽게 잠이 오지 않는다. 밖에서는 나무와 바람이 두런거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아침 일찍 산에 오른 사람들의 인기척에 잠을 깬다. 오늘도 또 한발 늦었다. 산이 깨어나는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아직 내 귀는, 자연의 내밀한 소리까지 들을 정도는 아닌 모양이다. 온갖 소음에 찌든 탓일까.

꽁꽁 오그라든 몸을 일으켜세워 양껏 기지개를 켜 본다. 희한하게도 몸이 가뿐하다. 땅심을 듬뿍 받아서일까? 가 보지는 않았지만, 요즘 유행하는 황토방이라는 데도 이만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바람이 맵차다. 하지만 빌딩 숲에 부딪쳐 멍든 바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상쾌하다. 폐부 가득 들이마시며 몸 속 이곳저곳의 먼지를 털어본다.

이내처럼 갈린 구름을 비집고 햇살이 몸을 끌치자 나뭇가지들은 은빛으로 화답을 한다. 밤새 그렇게도 나무와 바람이 몸을 부비더니 이렇게도 눈부신 상고대를 만들었을 줄이야. 바람에 섞인 물알갱이가 나뭇가지에 얼어붙어서 생겨나는 상고대는, 땅과 수직으로 쌓이는 눈꽃과 달리 땅과 같은 방향으로 나뭇가지 옆에 붙어 있다. 그래서인지 그 모습은 꼭 바람의 몸짓 같다.

느긋이 아침을 먹고 모든 흔적들을 거둔 다음 백암봉을 향한다. 그 길이 곧 덕유평전을 가로지르는 길이다. 눈길에 다 내리막길이지만 워낙 편안한 품새인지라, 머리 속으로, 익은 봄의 철쭉과 원추리를 그려 보게 할 만큼 흥을 돋운다.

항상 느끼는 바지만, 내리막과 오르막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새삼 실감한다. 하나로 어우러진 전체에서는 크고 작음, 오르고 내림, 높고 낮음이 결코 맞선말이 아니다. 우리의 옛 어른들이 우리 땅의 뼈대를 백두대간이라는 큰 줄기로 파악한 것도 그러한 인식의 결과일 것이다. 곧추선 높은 봉우리만 추켜세우는 식의 발상으로는 대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두대간을 걷는 행위는 정상을 정복(?)하는 일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인간 관계도 이러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른과 아이, 상사와 부하,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관계가, 수직의 위계가 아니라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만들어내는 화음이나 '빨주노초파남보'로 이루어진 투명한 빛과 같을 수 있을 텐데.

이를 신경림 시인은 '산에 대하여'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그리 짧지 않은 시이지만 어디 한 곳 뺄 데가 없어서 그대로 옮겨 본다.

산이라 해서 다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다 험하고 가파른 것은 아니다
어떤 산은 크고 높은 산 아래
시시덕거리고 웃으며 나즈막히 엎드려 있고
또 어떤 산은 험하고 가파른 산자락에서
숨그머니 빠져 동네까지 내려와
부려운 듯 사람사는 꼴을 구경하고 섰다
그리고는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순하디순한 길이 되어 주기도 하고
남의 눈을 꺼리는 젊은 쌍에게 짐승
따뜻한 숨을 자리가 돼주기도 한다
그래서 낮은 산은 내 이웃이면
간난이네 안방 왕골자리처럼 때에 절고
그 누더기 이불처럼 지린내가 배지만
눈개비나무 찰피나무며 모싯대 개속에 덮여
곤줄박이 개개비 휘파람새 노랫소리를 듣는 기쁨은 낮은 산만이 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서 잡아죽일 듯
이빨을 갈고 손톱을 세우다가도
흙넝쿨처럼 감기고 어울어지는
사랑사는 재미는 낮은 산만이 안다
사람이 다 크고 잘난 것이 아니듯
다 외치며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듯
산이라 해서 모두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모두 흰 구름을 겨드랑이에 끼고
어깨로 바람 맞받아치며 사는 것이 아니다

평여 이 시를 읽고, 낮은 산에 대한 시인의 짙은 애정을 높은 산에 대한 순가락질로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대상은 높은 산이 아니다. 오로지 높은 데 오르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것을 출세로 여기는, 욕심많고 포악한 일부의 인간을 향한 것이다. 산은 사람들과 다르다. 높은 산도 저절로, 낮은 산도 저절로, 절로 그렇게 선 것일 뿐이다. 마치 파도의 높낮이가 바다라는 한 몸의 순간적인 몸 바꿈이듯이, 백두대간 또한 그렇게, 높은 산 낮은 산이라는 층하를 두지 않고 이 땅을 한 몸으로 얼싸안으며, 백두에서 지리까지, 지리에서 백두까지 그렇게 물결쳐 흐르는 것이다.

갈길이 바쁜데 너무 한 곳에 머무른 것 같다. 어차피 먼 길을 가노라면 이런 때도 있지 않을까 하고 너그러이 봐 주시리라 믿는다.

백암봉에서 이번 산행의 목적지인 소사고개까지는, 지봉(1302.2m)과 대봉이라는 봉우리를 넘는 동안 아기자기한 오르내림을 반복하다가, 대간을 가로지르며 무주와 거창을 연결하는 신풍령이라는 고갯마루에서 잠시 다리쉬임을 한 후, 덕유삼봉산(1264m)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급히 떨어지며 소사마을에 이른다. 족히 한 마을은 넉넉히 거뜬히 만한 너른 들을 부려 놓은 대간은 다시 이름만큼이나 넉넉한 대덕산을 오르게 되는데, 그곳은 다음을 기약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산행에서도 백두대간은 언제나 그랬듯이,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지봉과 대봉 사이 투구봉 갈림길 봉우리의 조망이 아주 빼어난데, 오던 길을 되짚어 보는 눈맛이 보통이 아니다. 지리산의 연봉들이 가로로 결쳐 보이는가 하면, 오른쪽으로 향적봉이 잡힐 듯 가깝고 왼쪽으로 멀리 가야산이 탑을 쌓아올린 듯한 모습으로 층층 산을 이루며 솟아 있다. 그런 기쁨과 팔만대장경의 위업이 참으로 잘 어울린다는 생각은 나만의 억측일까.

아무튼 우리는 지금, 자연이라는 경전의 백두대간 부분을 온몸으로 읽어가고 있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건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전통민간요법 방식 제조/ 발명특허 제117964호
거시달린 뽕나무의 놀라운 효능!!!

꾸지뽕(산뽕) 엑기스 개발


꾸지뽕 나무


꾸지뽕 엑기스

1. 야생(산에서 서식하는 꾸지뽕나무를 채취하여 제품 생산
2. 전통비법에 의한 열탕추출법(10시간이상다림)
3. 수인보 특산물 지정
4. 충주대학교 식품공학과와 산학협동 체결(생산기술, 연구실험, 위생관리 제휴)
5. 충청북도 신지식인 선정(배영환 사장)

▶ 꾸지뽕 엑기스는 이런 분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각종암, 간질환, 당뇨, 고혈압, 변비, 성인병, 술 많이 드시는 분

꾸지뽕나무란?

꾸지뽕나무는 일반 뽕나무와 달리 줄기에 가시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꾸지뽕(상백피)는 생김새가 보기 좋은 편이 못되고 흔하지도 않은 까닭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약재로는 꾸지뽕 나무처럼 여러 질병에 두루 뛰어난 효과가 있는것은 찾기 어렵다.꾸지뽕나무는 여러면에서 뽕나무보다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뽕나무보다 그 효능이 훨씬 더 강하다.

- 충주대학교 식품공학과 농학박사 민윤식
- 보 도 MBC TV "고향은 지금", KBS TV "7시 뉴스", 중앙일보

구입문의… /수안보 본사 및 총판 (0441)845-0117
/청주점 (0431)213-2551 / 대전점 (042)255-8027

※ 전국 대리점 및 유능한 영업사원을 모집합니다 ※

산학협동 충주대학교 (주)뽕그린식품 TEL. (0441)841-5247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 433번지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8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8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0343)470-3116 ● TEL:(0343)470-3155

내면의 '父' 믿어야 현실의 '子' 상봉

여러분과 앉았는 사이 없이 한도량에 함께 앉았습니다. 참나참나 이렇게 옴기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함이 없이 하는 도리입니다. 그리고 허공에서 날아다니는 새들도 깃을 다듬고 날 듯이 우리도 생각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집니다. 생각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못됩니다. 서로 더불어 생각을 하고 사는 거니까요.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도인과 범부의 성내는 차이점

문 저는 부산지원의 이하경입니다. 항상 이러한 법문자리를 마련해주시는 큰스님께 고맙고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저희들 누구를 막론하고 므두 성을 낼 수 있습니다. 깨달으신 분과 깨닫지 못한 범부의 성내는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답 착이 있게 성을 내는 거와 착이 없이 성을 내는 건 차원이 아주 다릅니다. 성이 나지 않고 성을 내는 것 즉 말하자면 착이 없이 성을 내는 것은 성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착을 두고 성을 내는 것은 바로 그것이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 한 계단 차이, 한 생각 차이의 문제로 공덕이 되느냐 사복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사람 사람이 누구나가 다 한 생각 차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것도 참 극치적으로 어려운 문제죠. 아주 쉽다 하는데도 그게 어려운 문젭니다. 착을 두지 않고 그냥 말을 하느냐 성을 내느냐 화를 내느냐 하는건 가르침에 의해서 그건 방편이지 진짜로 성을 넌 게 아니 됩니다. 그리고 착을 두지 않고 그냥 굉등하게 하면서 성을 내는 그것은 바로 어둡이 개이는 소리라고 봅니다.

새 · 나뭇잎도 법문한다는 뜻

문 두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일체가 법문이 아닌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날아가는 새가 법문하고 바람에 굴러가는 가랑잎이 법문한다면 그 법문은 어떻게 다르옵니까?

답 우리가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만이 법문이 아니고 문이 없는 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법문을 할 때에 법문함이 없이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지금 말을 서로 나누지 못하는 이치들, 나무하고나 새하고나 꽃하고나 물하고나 모두 서로 말을 나누지 못하시죠. 그런데 나눌 수 있는 것은 내 내면에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근본 나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뜻으로서. 그래서 요만한 거 하나도 모르는 거 없이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란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모두가. 그러니 우리가 서로 말을 할 줄 모르고 말을 나눌 줄 모른다고 해서 통신이 안되는게 아니라 모습 없는 모습의 나가 모든 일을 다 해결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더라도 그것이 착이 없는 상

> 나의 모습 아닌 나는
> 불에서도 타지 않고
> 물에서도 죽지 않아

태에서 조금 잘못하는 것은 용서가 되고 회개가 되지만 그것이 아주 모르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공덕도 되지 않고 용서도 될 수 없고 회개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거 같아도 이게 크고, 큰 거 같지만 조그맣고, 아주 많지만 없고, 없지만 그냥 허공에 꽉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법좌서 말없이 내려오는 법문

문 마지막 질문 올리겠습니다. 큰스님께서 법좌에 오르셨다가 아무 말씀 안하시고 그대로 내려오신다 해도 역시 법문하신 걸로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신도들은 어떤 법문을 들게 되겠습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답 신도들의 문없는 문이 열리고 또는 함이 없이 하는 도리의 근본을 안다면, 예를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 된다면 자(子)로 하나로 되고 말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父)로 하나가 돼서 모두 그것을 알고 들을 줄 알죠. 말이 없어도 들을 줄 알고 말이 있어도 들을 줄 알고 그래서 함이 없이 하고 들은 사이 없이 듣는다 이겁니다. 참, 우리 회장님 아주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잘 질문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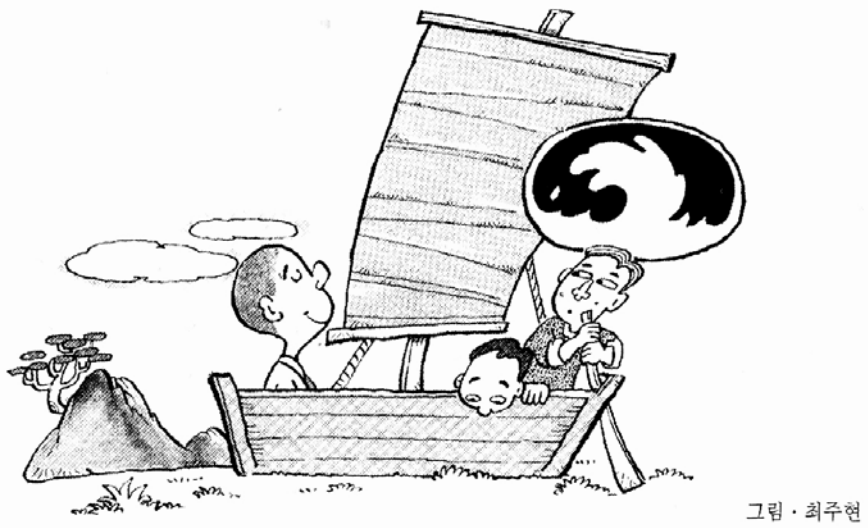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만법 하나로 돌아가듯 전력창고도 하나

돌계집이 해산한다는 뜻은…

문 부산지원의 현성기입니다.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큰 가르침을 내려주시는 큰스님, 새해에도 늘 편안하신 삶과 금강같은 기력이 충만한 육체를 보존하옵기를 기원드립니다. 큰스님의 위대하신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만은 그 누구못지 않게 간절합니다마는 아직도 너무나 무지하기에 그저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큰스님의 법문집인 '한마음요전'을 여러번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예화 한편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제목은 '돌계집의 해산'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선지식께서 말씀하시길, "얘야 지금 급하게 오던 길에 아주 무겁고 요지부동한 돌계집이 애를 낳았어. 그런데 지금 해산 구완을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시면서 한 귀를 일러 보아라 하였다. 큰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하겠는가? 가볍게 해서는 아니된다. 흔히 그냥 이대로가 법이니 방편에 걸려서는 안된다고 하는가 하면은 돌계집이 따로 있고 애 낳는게 따로 있느냐 하는데 말씀하신 뜻과는 천지차이다. 한 귀를 일러보아라." 뭐 저희같은 범부들 경우에는 그저 들은 지식으로 풀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그보다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돌 아닌 그 자리에 답이 나올 때까지 참구해야 되는지 큰스님의 가르침 부탁합니다.

답 우리가 공부한다는 이 길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아주 가까우면서도 멉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스님이 어떠한 방편을 내놓으신다 할지라도 알아들을 수 있고 대답할 수 있고 그렇게 함이 없이 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바로 여러분의 내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사도 떠나서 놀러 나왔다가 놀다가 들어가는 거나 같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데 그 내면의 자기 과거의 부(父)를 믿지 않으면 현실의 자(子)와 상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봉이 된다 하면 뜻으로서 말없이 서로 말을 나눌 수가 있고 또 그 도리도 알 수 있고 모두 알 수 있는건데 그걸 말로 가르쳐 주면 여러분이 그냥 말로 알아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돌계집이라고 해도 좋고 목신집이라고 해도 좋고 석신이라고 해도 좋고 어떠한 거라도 다 용납이 되죠. 그 내면의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둘 아니게 상봉한다면 말입니다. 뜻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지식들께서 법회하시는데 모두 가서 서 계시다가 설법을 하면은 "이 놈아 네 말 좀 해라. 원숭이처럼 남의 말만 하지 말고 네 말을 해라." 이러고 주장자를 쳤다고 합니다.

집안에 천식이 유전돼요

문 저는 부산 법형제회의 정승용입니다. 유전성에 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선친께서는 70세에 천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큰아이도 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집안의 유전성인지요? 만일에 유전성이라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딸아이는 자기가 중심을 잃고 있을 때 반드시 천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자기가 뭐를 붙들고 있으며 뭐를 놓치고 있는지 되돌아 보고 그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그걸 알게 되었을 때 거짓말같이 천식이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아이는 이 천식이 게으른 자기의 공부를 위해서 나툰 주인공의 작용이라고 믿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씩 천식으로 인해서 호흡에 괴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지켜보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한번 정말 훌쩍 뛰어 넘을 수 있는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그게 여러분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못났든 잘났든 우리가 이 세상에 생겼을 때에 생긴 자체가 바로 내가 내 근본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종자가 있으니까 생긴 겁니다. 그러니 그 종자를 믿어야죠. 믿는다면 아무 문제 없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믿으면 그냥 훌떡 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유전성이라는 건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할아버지도 그랬으니까 유전성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양금 말이예요. 무조건 그냥 믿는다 이런다면 그 양금도 없어질텐데 이럭하면 없어진다는 건 아는데 그 양금이 지워지질 않아요. 그러니 그 양금마저도 없애려면 진짜로 믿어야 한다.

예전에 내가 이런 말을 했지요. 종문서를 없애야 할텐데 종문서를 가졌다가 도로 놓았다 가졌다 도로 놓았다 이러니까 이것이 유전성이나 업보성이나 영계성인과성 모두가 주둔해서 그렇게 생긴대로 나온다구요. 또 내가 그랬죠, 이 누진에는 바로 자동 컴퓨터와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과거로부터 살아오면서 누적된 입력이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자꾸 놓아들어가니까 앞서의 입력이 자꾸 없어진다구요. 그러면 유전성도 녹아서 없어지죠, 그 양금마저 없애면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유전이라는 건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유전이라는 거지 유전이라는 언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옛날에 이런 점이 있지요. 부처님께서 사제법을 먼저 가르치시고 뒤에 하도 이 말 저 말 사단이 많으니까 이 세상에 둥근 공이 있는데 공을 누가 움쭉거리게 하느냐? 또 그 공 가운데엔 티끌만한 공이 있는데 그 공을 누가 쉬지 않고 튀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 봤더랍니다. 물어보니깐 하나도 대답을 못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은 모두 다 알수 있으니까 여러 말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거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더랍니다. 부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부처님이 하셨다기 보다도 우리가 지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떠 다니는 공과 같습니다. 티끌 공! 그 공이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그 쉬지 않고 돌아가는 그 공이 자기의 티끌만한 공 속에서 빠져야 큰 공 속에서도 빠지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마시고 아주 간편하게 쉽게 생각하세요.

☞ 14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분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삼 · 부 · 농 · 산 · 은 · 슴 · 기 · 재 · 배 · 약 · 초 · 만 · 을 · 생 · 산 · 하 · 고 · 있 · 습 · 니 · 다.

97.11.6/99.9.2 MBC-TV '고향은 지금'
99.9.24 KBS-TV '6시 내고향'
99.7.10 SBS-TV '모닝와이드' 방영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싹이나서 열매가 열리게하거늘 하물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일체 환고는 이 다라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라니와 더불어 유기재배한 약초로 효과가 뛰어나도록 하였습니다.

■ 삼불초의 놀라운 성분들 ■

황 토삼백초에는 '수용성 탄닌' 플라본계 물질, 유효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하여 혈행을 돕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며,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액순환과 해독작용을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 장의 연동력으로 숙변 등 몸안의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

▶ 항상 머리가 개운치 않고 의욕이 없으신분
▶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속이 편치 않으신 분
▶ 통변이 시원치 못하신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
▶ 식수공해가 걱정되시는 분
▶ 팔다리가 아프신 분



大悟居士
(김봉서 원장)

차나 숭늉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삼 부 농 산
SAM BU Farrm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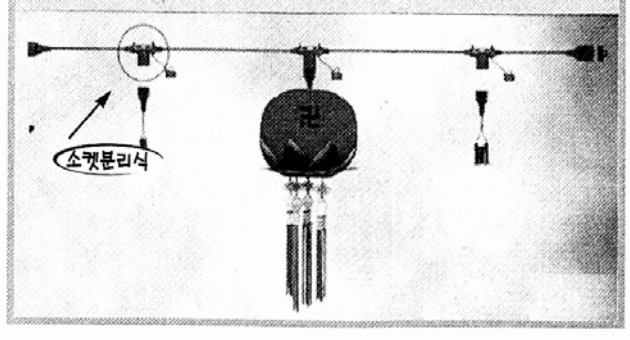
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케이블)
봉축행사 사찰연등 법당기도등용 불제 T형 전선(케이블)

사용용도
사찰연등용 · 옥외행사용

규 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주문
· 모델 : DW-101, DW-100F (고리용)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 확보
· KS전선사용
· 감전,화재사고를 예방
· 설치 ·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시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

불제 연등용 전선(케이블)



전등배선
· 일일이 피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 이런 사소한 배선에서도 단선, 누전, 합선, 단락, 과열 등에 의해 감전사고나 화재사고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 전기는 소리도, 냄새도, 보이지도 않고, 예고도 없습니다.
· 단지 충분한 지식의 이해와 점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입 본사 영업부
문의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080-5826-236
A/S : (032)583-4023
FAX : (032)571-9470

대원기업

사찰용, 연등용 전구 3W~5W도 납품합니다.
(고추전구, 인지전구)

■ 인터넷: http//:www.bulje.co.kr

사찰 전기화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시다. 4 · 8 봉축 이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0343)470-3116 ● TEL:(0343)470-3155

살아가는 도리가 불법이고 진리죠

☞ 13면에서 계속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아주 간편하고 지혜롭게 또 편리하게 얼른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능동적으로 편안하게 모두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놓으시면 그게 직통 아주 적합한 얘깁니다. 텔레비전에서나 신문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거는 그냥 돌리고 어떤 거는 참 참다웁고 잘한다 이렇거도 보시고 어떤 땐 아이구 참혹하고 불쌍하다 이렇게도 보시고, 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의 나는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도 수만가지로 모습을 나투는 그런 사연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즉 말하자면 한 발 내려 딛어서 보살로 칭하면서 응신이 돼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응신이 돼 주셔도 그 응신이라는 거는 하나지마는 수많은 이름도 다 보살이라는 이름에서 헤결이 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살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한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뱃속에 들어있는 중생들이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치니깐 살려달라고 막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하고 찾는데 어떤 분은 가만히 그냥 태연하게 앉았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기를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힐려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계시냐고 하니깐 내가 없으니까 생각할 것도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뱃사공은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고 육체속에 있는 생명들은 중생이 되고 여러분의 몸은 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게 아주 평전하게 걸어가시는 걸로 알지 마시고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살아 생전에 내가 저 강을 꼭 건너야겠다. 그전에도 말했지만 강을 건너야겠는데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 불에 들어가면 타 죽는다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그건 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 아닌 나는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빠져죽지 않고 건널 때도 한 찰나면 건너고 그럴 거를 생각을 넓게 못하고 모습을 자기로만 아니깐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모습을 자기로만 알면은 사단이 복잡하죠.

그리고 또 보살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신장 따로 있고 지장 따로 있고 관세음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본다면 아주 또 복잡해지죠. 왜 복잡하냐 하면 죽어갈 때도 멍 길게 해달라고 한다면 칠성 브처님한테 빌어야 하고 또 좋은 데로 가게 해달라고 한다면 지장보살한테 빌어야 하고 이렇게 갖가지로 해야 하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보세요. 전력창고는 하나예요. 전력창고가 하나라구요. 하나로 돌아간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 말이예요. 여러분 하나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텐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으니까 있는 겁니다. 그 전력을 꺼내는 창고는 하난데 씀씀이는 여러 가지로 많죠, 다양하게. 그 다양하게 쓰는 거를 우리가 한군데서 꺼내 쓸 줄 안다면 별의별 걸 다 한군데서 꺼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죠. 부처님이 모든 걸 자유스럽게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부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문을 열 줄 알고 함이 없이 할 줄 알아야 부처님과 둘이 아니게 된단 얘깁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집의 마음이고 집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니깐 못하는 게 없죠.

예를 들어서 하늘을 받칠텐데 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하늘을 받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한마음의 도리라면 길고 짧음이 없이 들이댄다. 이 손가락이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깐 우리의 한생각이, 손가락이 아닌 그 속도가 아주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빠른 속도로 그냥 한생각에 문지방 너머든 미국이든 다른 혹성이든 똑같이 갑니다. 우리가 살 때는 짧다 길다 못간다 간다 이런 문제가 나오지마는 이 마음의 척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물 속 몇 미터에 들어가야 한다 또는 다른 혹성을 간다 또는 삼천년전을 간다 하더라도 한 찰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구는 나쁘고 다른 혹성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좋고 나쁜 거는 여러분의 공부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써야 자동적인 컴퓨터에서 바꿔진다고들 얘기하죠. 예를 들어 아주 억울한 업보가 얼키고 설켰다 이런다면 그 업보를 없애려면 앞서 그 입력된 거를 지워야 될텐데 그러면 지우는 건 어떻게 지우느냐. 바로 그 입력된 데다가 되놓으니깐 앞서에 입력된 건 없어지고 새로운 입력이 자꾸 들어가서 그 업보는 자꾸 없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됐다 하더라도 수없는 겁을 거쳐오면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이렇게 하면서 진화됐는데, 무슨 죄를 지으려고 그랬던것도 아니고 죄를 알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이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고는 못살겠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없이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이랬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가 어디에 붙을 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그러하시니까 죄가 있지 죄가 어디 붙을 데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넓게 해보십시오. 암흑속에서 불 하나 켜면 환해질텐데 그 불 하나 켤 줄 몰라서 암흑속에서 허덕이고 보질 못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살죠. 그렇다면 그 참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어린애들이 보는 만화나 무슨 게임 같은 것들을 보면 전부 상대를 죽이는데 에너지를 쓰고 또 그런 걸 재미있게 봐요. 그런데 우리의 한생각이 죽는 걸 사는 걸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영화나 만화 하나에서라도 전부 살리는 쪽으로 모습을 바꾼다면 참 살기좋은 세상이 되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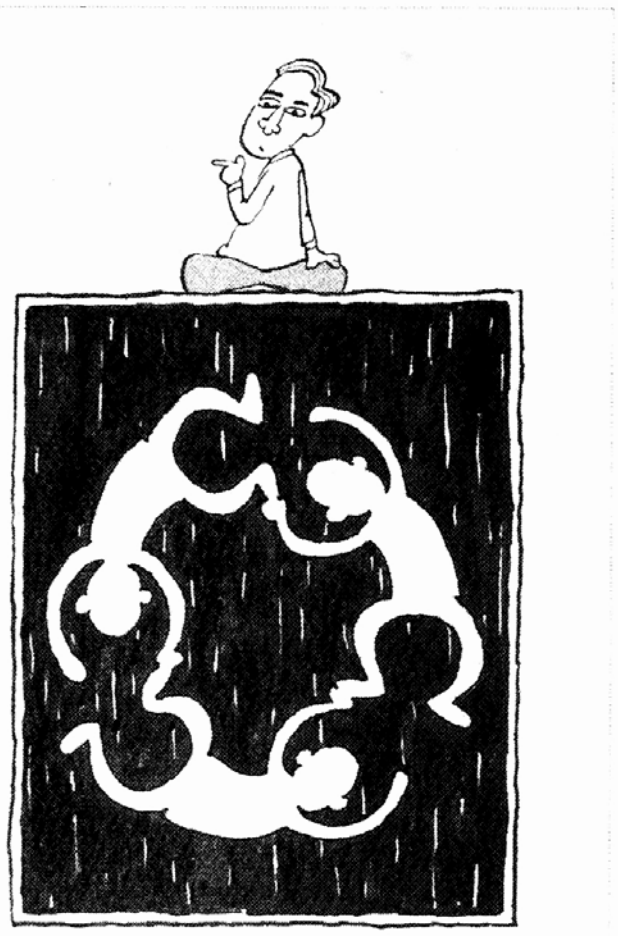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아무리 나빠도 나쁜걸로 생각하지 말고 진정믿어 좋게 생각하면 좋게 바뀝니다

한 가정에 가족이 갖추어서 사는 가정이 있는데 이것이 공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얘 아무개야" 부를 때에 "네"그러고 아들 노릇을 하지 딴 사람 노릇을 하지 않죠. 그렇게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이름만 바뀐단 말입니다. 바뀔 때는 보이지 않는 데서 아들로 과거로 그냥 되는 거죠. 그래 "아버지" 할 때는 또 아버지 노릇 하느라고 바뀌죠. 속에서는 바뀌는 거예요. 거죽 모습은 안바뀌어도, 속에서는 바뀌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또 "여보" 하면은 또 남편 노릇을 하는대로 그냥 바뀌는 거죠. 바뀌는데도 찰나에 바뀌는 거죠. 두고두고 바뀌는게 아니라 찰나찰나 빠르게 돌아가는데 그 바뀌는 것마다 가만히 보세요. 바뀌는데 그 어떤 것이 나인가. 내가 아빠로 바뀌었을 때 나라고 할 건가, 남편으로 되었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아들로 되었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어느 것이 나라고 할 수가 없죠. 한 가정 속에서 아버지라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열식구라면 열식구에 다 바꿔가면서 나투니깐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셔도 이렇게 바뀌는 건 아시죠? 바뀐다는 건 아실거예요. 바뀐다는 걸 아시면 지금 우리가 잘못 살아나가는 것도 그냥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금방 찰나에 바뀝니다. 두고두고 바뀌는 것도 아니예요. 그러니까 한생각이 그렇게 바뀔 때에 찰나에 바뀌는 거다. 바뀌면서 서서히 좋은 느낌이 온다. 좋은 느낌이 와서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좋은 생각으로서, 아무리 나빠도 나쁜 걸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진정코 믿어서 좋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좋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주인공! 주인공! 하고 부르지만 그것도 다 알고 보면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될 때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그런 악한 일을 제거하고 가는 겁니다.

이 한생각에 나쁘게 될 것이 좋게 된다. 부부지간에도 싸울 일을 '어떡하든지 싸우지 않게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한다면 그게 안 싸워져요. 절대로. 생각없이 그냥 막 해대고 생각없이 그냥 들어오는 대로 막 해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싸움이 잦아지죠. 그런데 그 싸움 안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태평이 거기 붙어 돌아간다. 아주 좋은 일로 인해서 웃고 살 수 있는 화목이 거기에 뒤따라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요만한 거 하나도 예누리가 없습니다. 보살이라는 이름없는 이름을 가지려면은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게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보살행을 하는데는 여러가지 수행이 있는데 아주 몹시 이렇게 진실로서 해보는 그런 행이 중요합니다. 자기 몸 속에 있는 중생들도 처음에는 배울 때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죠. 남만 중생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도 중생인 것을요. 모두가 자기 아님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할아버지로 계시다가 다시 그 집 손주로 나왔어요. 손주로 나와 가지고선 '이렇게 하면은 아니되는데 이럭하면 되나' 하고서는 차곡차곡 어린애가 어른처럼 말을 하거든요. '이럭하시면 안됩니다. 이럭하시면 안됩니다' 하고 애가 그러니깐 '참 쟤 말이 옳아, 쟤 말을 들어서 해나가면 하나도 손색이 없겠어.' 이러지만 그게 할아버지였거든요. 할아버지가 잘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니 자식들이 재산을 탕진해 버렸어요. 그러니 할아버지가 보다 못해 다시 그 집 자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하나하나 이렇게 어린애라도 자꾸 가르치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생각없이 살아서는 안됩니다. 생각이 있으면은 그저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하고 이제 닥치는대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식구가 다 그 애의 말을 듣고서 배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몸이 들어서 식구가 다 마음을 잘 써서 잘 살게 되더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그냥 온전히 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만 있는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 뜻을 가지고 부쳐님은 일대사의 인연을 다 맺으셨죠. 그러기 때문에 뼈 한무더기를 봐도 그것은 먼저 돌아가신 내 할아버질 수도 있고 할머닐 수도 있고 어머닐 수도 있고 그렇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 뒤에 숨어있는 뜻을 먼저 알아야 이 뼈 한무더기 놓고 절하는 그 뜻을 알죠. 그래서 한마디 하면은 이 말을 하면 속뜻부터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했는데 이 말만 알아듣지 말고 이 말 속에 있는 뜻을 알아야 이 말의 뜻이 올바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데에 그 과거의 부처님 법 그 설법을 들을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현상에서 내가 생각해서 생활하는 것도 이게 설법 중에 제일 으뜸가는 설법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지혜있게 살아라 이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도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요. 왜냐? 사람이 유순하게 이렇게 다루면 그걸 생각을 하고 나가서도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때리고 욕하고 뭐 별짓 다 하고 그렇게 못살게 구는 부모한테는 나가서 생각하기를 오히려 아주 더 삐뚤게 나가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깐 집안 구석구석이 나빠진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생각 한 번 잘 하면은 어떠냐. 생각 한 번 잘 해서 그 잘 하는 생각으로서 이 세상을 모두 살아나간다면 나 하나 뿐이 아니라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들도 그 본을 받아서 모두 건강하고 풍족하고 그런 반면에 속에 있는 내 생명들은 그냥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나고 들고 나고 들고 이런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이 생명들이 나고 들고 나고 들고 이래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나쁜 일도 하는가 하면 좋을 일도 합니다. 이렇게 묘한 법입니다, 이게. 그래 우리가 묘한 사람들이죠. 아주 묘한 사람들이예요. 수억겁을 거쳐나오면서 형성되고 진화됐으니 얼마나 묘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나쁘고 좋은 거는 미리 다 알면서도 모든 사람이 살아온 그 착 때문에 고집멸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 고를 갖다가 집착하지 않는다면 모든게 멸하고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이 전자에 이런 이런 일을 하셨다고 수없이 얘기해드려도 여러분은 '부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산이 없어요. 여러분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과 둘이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도 부처님의 마음과 둘이 아니요, 또 부처님의 법이 우리들의 법과 둘이 아니라 하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을 지혜롭게 굴려서 잘 살아나갈 거를 괜히 과거의 부처님 법이 이랬다. 부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거를 듣고서 바깥으로만 자꾸 마음을 돌린다면 여러분은 한발짝도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묘한 것은 여러분이 아파서 누웠다 하더라도 그 눕게 한 놈이 누구냐 하는 얘깁니다. 아파서 눕게 한 놈이 누구냐 그거를 알면은 아파도 웃어가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다보면 '응 너가 형성시켰고 이렇게 만든 것도 다 일리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일으키는 것도 너가 일으켜라. 뭐 생각할 게 있느냐.' 이렇게 넙게 생각을 한다면 그 이튿날 바로 그냥 한잠 자고 나면 일어날테죠. 그런데 그것을 아프면 아프다고 집착을 하고 또 의사한테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에 걸려서 집착을 하니 이 몸 속의 생명들도 그렇게 알아 듣고선 행하죠. 그러니 사람이 잘못될 수 밖에요. 그래서 모든 게 묘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죠. 길을 걸어가는데 마음속에서 '이건 길이 아니다. 저 산꼭대기에 길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걸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생각을 하니깐 믿게 되는 거죠. 그 언덕배기가 길이라고 그러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뜻이 있으니깐 믿는 겁니다. 여기가 길이라고 했으니 저건 길이 아닌 것만은 사실이지만 길이라고 하니까 한 번 그 뒤에 문제를 좀 알아보자 하구선 길로 올라가서, 까만데 올라서서 보니깐 허공만 보이거든요. 허허허허. 허공만 보이니깐 어 이게 허공길이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보지 않으면 모르고 생각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지금은 이렇게 발달이 된 세상이니까 옛날처럼 몸으로 직접 가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서 이게 길이 아니라 저 산꼭대기가 길이다 이런다면 생각으로도 그저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엔 모자라서 거기가 길이라면 그냥 올라갔지만 말입니다. 나 어려서만 해도 그렇게 못듣고 못보고 했으니 어리석은 일이 많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육체의 고행이 아니더라도 정신 노력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지간 싸울 일도 어떡하든 싸우지 않게 '너만이 할 수 있잖아' 맡기면 금새 화평

이 모두가 사람이 지혜롭게 사람다웁게 살아가면서 인정있고 이해하고 이런 것만 충분하다면 뭐든지 남을 해롭게 생각을 안하고 좋게 돌려 놓을 수 있죠. 해롭게 생각을 하면 해롭게 이루어지는 거니깐요. 그게 업보로 돌아가니까 그건 지금 당대에 안받아도 요다음에 반드시 인연이 돼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기 위한 말이라도 착이 없이 말하는 거와 착이 있게 말을 하는 거는 아주 다르다 이런 말이죠. 착이 있게 하는 건 감정이 있어서 그냥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죠.

하여튼 여러분이 때로는 고맙기도 합니다. 모른다 안다를 떠나서 그래도 내한테 주인공이 있다는데 하고서 이렇게 쥐고 가는 것만 해도 고맙단 얘깁니다. 말하자면 바다에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을때 그 붙들 막대기가 있다는게 참 어딥니까? 그러니 그런데 빠져서 죽을 염려는 없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이 생각만 잘 한다면 귀신한테 홀려 죽었다 이런 것도 없을 거고 귀신한테 말려서 애를쓰고 산다 이런 것도 없을 겁니다. 귀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서 좀 풍족하게 살도록 하세요. 하다 못해 밥 한 그릇에 숟가락을 다섯 여섯개 꽂고 온 식구가 먹는다 하더래도 웃으면서 아주 평화스럽게 잡수실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렇게 안 먹어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러죠. 저 스님은 항상 부처님 법 얘길 안 하시고 만날 그런 얘기만 하신다고요. 그러나 우리 사는게 부처님 법이예요. 무슨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나가는 그 도리가 바로 부처님 법이예요. 진리이고요.

참 오늘 질문하신 것도 아주 묘있게 질문하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2000년 1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쁘든 언덕을 넘든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암, 간경화 완치 보장
http://www.no3medical.co.kr
전이된암, 만성신장병
성인병, 원인모를병
치료후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치료비+일천만원) 드립니다.
032)3478-119~8/011)559-8118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400-3 동우B/D 405호
의 단 원

강좌

남 너 비구 비구니 **철학원생 모집**
첫번째 인연은 전생에 있고
두번째 인연은 운명에 있다.
세번째 인연은 이름에 있고
네번째 인연은 궁합에 있다.
오복은 이것을 잘 분석하는
진정한 도인을 만남에 있다.
사주 작명 관상 풍수부적
관 달 마 사 포 교 원
02)999-4804/02)999-5551 **달마**
02)921-4804/02)928-5551 **스님**
051)418-4804

찬불가 피아노 렛슨
前 신라 · 위커힐 방송피아니스트
찬불가, 가요, 가곡, 팝송을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
초보 3개월 완성
⊙찬불가 합창 반주자반⊙째즈반
⊙프로연주반 - 전공자 중심 렛슨
02)824-3517 (서울)
011)742-1999
※피아노 반주자가 필요하신 사찰에 반주자를 보내드립니다

역학 수강생 모집
▶과목: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과정: 기초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3시~5시
저녁 7시~9시 (월~금, 주5일)
※ 매주 토요일 관상학 특강: 오후 3시
▶강사: 엄윤문 원장(명학비해 外 20여권 저술)
김회선 선생, 관상학의 달인 신기원 선생
▶기타: 사주감정 의뢰하실 분(3만원 입금후 전화요)
제일은행(105-20-163426) 엄윤문
▶문의: 02)824-3517
청운역리학원

전통불교의식 학인 모집
◆ 습의과정 ◆
도량석·쇳송·상단예불·각단예불·불공시식
대령관욕·신중작법·지장청·관음시식
다비의식·특별의식등
◆ 기본반·중급반·통신반 ◆
◆ 지방수강생 모집 ◆교육기간: 3개월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 02)481-4482

제6기 무료강좌안내
⊙ 따주기 ⊙ 수족침요법
⊙ 침구 ⊙기공
2개월간 주1회 교육
통신교육도 가능
※지회및 분회 개설할 분도 연락요망
한국전통민간요법학회
02)2246-7477
011)9090-1049

구인구직

사주 명리학 강의
★ 6개월 완성 ★
초보에서 완성까지(스님직강)
(사주, 택일, 궁합 작명등)
※스님 佛者 환영 · 출가상담 ※
(수강료:월 10만원)
월 · 화 · 수 오후 2시부터
인천 032-504-1387
H.P 011-9046-9903

공 채
주부사원 모집
보령제약(주)
고졸이상
35세~55세
10시~17시 근무
02)766-0057
02)3675-0397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구함
보덕사
0348)952-7905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기도하실 스님 모십니다
016)342-7777

구 직
사찰에서
운전기사로 처사겸
일할 곳을 찾습니다
0351)826-1152
주간에 전화받지 않으면
야간에 전화 주십시오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탈종공고

탈 종 공 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승적번호 : 1070-0298
◇주민번호 : 370915-2400518
◇성 명 : 류정자 ◇법 명 : 법 일
◇소 재 지 : 대전시 동구 판암동 54번지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0. 2. 1..

기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귀 민속 불교 백화점 // 전통 민속 국악사
◆본점 1층(50평 금불상, 금탱화, 승복, 서적, 유가일절
◆2층(50평 불상, 탱화, 전시장
◆3층(50평 북, 장구, 농악복, 국악기, 일절
지점 1층(25평 옥불상, 목불상, 특수탱화,
수입불상 일절 불교, 무속, 민속일절
지점 3층 2001년 국내 최대 메머드 마트형
시설과 도매상권을 갖추어 OPEN
민속불교백화점은 국내초대매장으로
신상품과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본점 : 0345)495-4848, 4845, 4846 FAX491-8548
지점 : 0345)417-4848, 480-4848, 406-4310, 4311
불교/무속/민속용품, 전국도매
불교용품/불교사/만물사 개업/창업 사업을
원하시는 분 상세히 알선하여 드립니다.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화엄경 (80권) -1,400,000원
법화경 (7권) - 170,000원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99)932-7252
011)545-7252
김 창 본 처 사

보이산차
40년생, 15년생 입하
칠지범차 소탁차
일엽차
※ 염가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림
02)911-6798
017)406-6682
茶道里

염불 수행의 비법
· 불교 세계관의 결정체
· 정토신앙의 오묘한 도리
· 창조적인 염불수행
· 연락하시면 염불 수행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361)254-5397

사람을 살리는 **육각성의 비밀** (책자 무료) **책** 290쪽 2권 ₩13,000 (우송료 포함)
나도 좋은 집터, 명당을 얻을 수 있다.
1. 신비의 히란야 육각성의 기적
2. 육각성의 비밀 - 육각성은 수맥파도 차단한다
3. 경혈점(인체경혈도) - 내몸은 내가 고친다.
氣 측정기 무료
값가 통하면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사라진다 330p 정가 : 10,000원 우송료 3,000원
※성인병의 최신정보 (고혈압, 당뇨, 위, 장, 간, 신경통)
※전화를 주시면 사상체질과 氣를 check해 드립니다.
(우체국) 014092-0035728 김건순
韓國氣功研究院 02)455-6944, 02)453-5851

침대가 과학이라면, 돌침대는 자연입니다.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젠 돌침대를 쓰셔야 합니다.


◆척추를 반듯하게 교정해 줍니다.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합니다.
숙면, 쾌변 그리고 氣…
생명에너지 위에서 상쾌한 아침을
◆초장파 시스템으로 몸속 깊숙이 뭉친곳을 풀어줍니다.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한달전기료는 15,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2인용)◆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보료 89만원(S)부터, 침대 149만원(Q)부터 : 한정판매
순침대의 정도
氣 리빙스톤(옥스톤) 서울 송파구 삼전동 91-9 구입 · A/S : 02)424-9427

건강에의 신비!
준천 玉山家 옥
고혈압 당뇨, 간경화, 폐암, 관절염, 두통, 정력부족 기타 성인병환자들이 이 옥을 활용하고 효과를 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의학적 **자연치유!** 간경상태에 따라옥제품과 사용방법을 권상해 드립니다
(주)대일광업 서울 玉山家 (02)-777-0105

역학개인지도
⊙책 없이도 손만 펴서 중생의 운명을 인도하는 인생비법을 전수합니다.
⊙간단하면서도 뜻깊은 이 학문은 득도한 스님들이 잘 쓰는 역학입니다.
⊙조상의 길 · 흉과 연 관계를 알아내는 이 비법은 부처님 氣가 임하신 분은 빨리 터득합니다.
태극명리연구원 02)2232-0029
011)695-2320

사찰안내

사찰 안내
◆ 위치 : 포항시 신광면 우각1리 38번지 감로사
◆ 대지 1,200평
◆ 법당 18평, 산신각 2평, 요사채 20평, 대웅전 18평
◆ 가액 : 5억
0562)243-7932

임법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수원
◆ 건물만 20평
◆ 이주관계로 급
◆ 가액 : 절충
019)408-5264

사찰 안내
◇위 치 : 경기
◇법 당 : 25평
◇지장전 : 20평
◇요 사 : 33평
◇부 지 : 740평
◇가 액 : 4억 3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 대지 600평
(사용부지 1,000평 이상)
◆ 법당 28평(사무실 포함)
◆ 요사채 55평, 삼성각, 창고, 주차장, 시설일체 A급
◆ 특징 : 계곡과 경관이 좋으며 교통 편리, 별장으로도 적합
◆ 가액 : 2억 3천(절충가능)
0547)436-5036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함안
(함안 가야읍에서 택시타고 5분거리)
◆ 평수 : 777평
◆ 건물 : 64평 1동
◆ 사찰명 : 천거사
◆ 가액 : 3억
0552)582-2220

사찰 (급)안내
◆ 위치: **경기 이천 소재**(장호원)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이나 급매로 절충하여 정함 ◆교환가
◆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017)430-9051

황토방 안내
◆ 황토방 2칸
-> 1칸당 2천만원
◆ 위치: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902번지
※수행 높으신 노스님 구합니다.
011)8039-4862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시 소재
◆ 대지 : 300평
◆ 법당 30평, 요사채 60평
◆ 특징 : 3층건물의 도심사찰로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포교하기에 최적지이며 사정상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양도코저 합니다.
◆ 가액 : 4억
서울 02)3666-9020
통진불사 대구 053)635-9080
휴대폰 018)334-9021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읍 소재
◆ 대지 : 800평
◆ 법당 30평, 요사채 2동 60평
◆ 10년 경험의 사찰 중개 전문업소입니다.
◆ 사찰, 포교당 양도 · 양수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인연될시다
◆ 가액 : 1억 5천만원
서울 02)3666-9020
통진불사 대구 053)635-9080
휴대폰 018)334-9021

절터 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고제면 (절골) 무주 구천동 인근
◆ 부지 : 약30만평
◆ 가액 : 상담 후 절충
◆ 특징 : 이조 초기 절터임.
덕유산 줄기 시수, 천연 고로쇠 나무, 자작 나무, 잣 나무 등 경관 수려, 현재 사슴 농장으로 운영중
(주,야) 0598)942-2400

포교당 안내
◆ 위치 : 광명시 새마을시장 3층
◆ 평수 : 35평, 10년되었음
◆ 가격 : 상담후 결정
02)2618-0767

사찰 안내
◆ 위 치 : 전북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학동부락 197번지
◆ 대지 120평, 방7개, 임법당 삼존불,108부처님 완성
◆ 법당 25평 집은 한옥 기와집
◆ 대도로에서 2분거리
◆ 가 격 : 4천만원 (답사후 결정)
011)655-3883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동영시내에서 7분거리
◆ 시설 : 법당 20평, 요사채 70평, 대지 200평
◆ 가액 : 8,000만원
0557)644-5679
017)590-1900

토굴 안내
◆ 위치 : 김천역에서 10분거리 국도변에서는 2~3분거리
◆ 전답 1,800평, 적벽돌과 기와집으로 28평짜리 집이 有
◆ 방 2, 거실, 법당 1(大), 목욕탕, 주방, 주차장 시설 완비
◆ 가액 : 산 4,500평 7천만원 (평당 3천원)
011)465-1017/0431)264-8220

사 찰 (급) 안 내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 서마산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너편 ◆부지 450평 이상
◆ 주차장 무제한완비 법당30평 ◆목조건물 금단청필(3포 5포)
◆ 요사채 60평, 방 8개, 주방 2개, 지하 요사채 20평, 명부전 8평 단청필 주지실 사무실 기타건물평
◆ 건물 완공은 4년 시설일체 무상기증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는 규모가 가장 큰 도량, 스님 병안으로 매입코자 하오니 인연을 다 할 스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가액 : 8억 5천
◆총 공사비가10억을 들었습니다. ◆장난전화 사절
0551)294-4889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 부지 : 7,500평
◆ 법당 30평(목조), 요사 30평
◆ 산새 좋고 불교수련장 및 실버타운 적지임
◆ 가액 : 3억 5천
◆ 전국 사찰 암자 양도 · 양수 하실 분 찾습니다.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여주군
◆ 부지 : 1,350평
◆ 법당 20평(목조), 요사 80평
◆ 산새 좋음, 80년된 고찰임
◆ 가액 : 4억 5천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 경주시 안강읍 하곡리 60번지(서당마을)
◆평수 : 1,560평 중에 대지 200평(스레이트 주택 1동, 전기 · 전화, 상수도 有)
◆특징 : 산성산 밑에 있고 지목은 밭이며, 풍수지리상 묘터가 좋다고 하며, 이조시대에 인근에 고찰이 있었던 곳임. 현재 가옥 1동과 십삼년생 두충나무 약 4천그루가 있음. 차량출입가능.
◆ 가액 : 약 2억
053)427-3084(야간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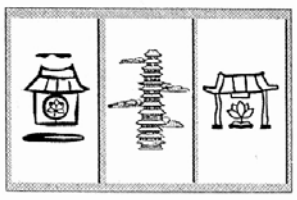
포교원(임법당) 안내
◆ 위치 : 부천시 고강본동(시장입구)
◆ 평수 : 32평(3층)
◆ 법당 : 삼존불, 후불탱화(산신각)
◆ 내부시설 : 방1개, 주방, 상담실, 도시가스
◆ 가격 : 1,500만원(즉시가능)
017)289-7464 스님 직접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효목동
◆ 평수 : 20평
◆ 법당 1, 방1
◆ 가액 : 보증금 200만(월 20만)
◆ 시설비 약간, 교통편리
016)507-6822

사찰 안내
◆ 위치 :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내동 6-1
◆ 대지 : 700평, 임야 약 2700평
◆ 법당35평(목조), 요사채 60평 산신각6평, 독성각20평, 토굴32평(목조기와지붕)
◆ 가격 : 답사후 절충
0591)758-9797
0591)758-0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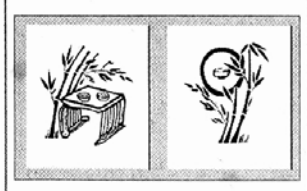
포교원 안내
◆위치 : 충남 천안시 성정동
◆건물 : 1층
◆요사채 : 21평, 주방 : 10평, 법당 : 21평(2층)
◆특징 : 지장보살 칠불
◆모든시설 완벽함
◆가액 : 전세 6천만원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417)577-1469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다 포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 하 몰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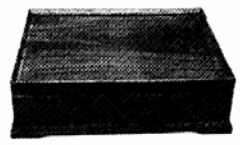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찻 상



규격 52×32×8cm/ 재질- 소나무
가격:₩54,000

다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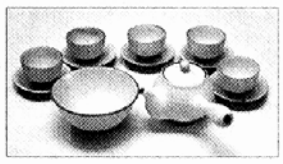
규격 . 50×39×15cm/ 재질- 소나무
가격:₩126,000

관음분청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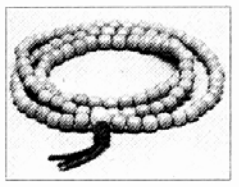
가격:₩495,000

고산다기



가격:₩120,000

생광석 108염주



가격:₩35,000

불성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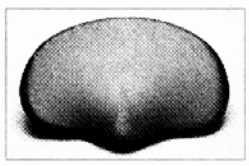
가격:우전₩90,000 / 세작 ₩50,000
중작₩30,000 / 대작₩20,000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쵸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가우스 X 4개

참선명상방석



규격 39×43cm
가격:₩27,000

심플릭산업1998-025009
인증등록특허 제387
인체공학적 설계로 검증보호

옥베게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불자반지



재질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면/ 인쇄 나염
· 문양 용문사 대웅전 창살
가격:₩5,000

반야심경 향로



(기정용) 규격 4높이×7cm지름)
가격:₩25,000

반야심경 종차걸이



· 색상 검정 · 금색
가격:₩9,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걸 망



색상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비디오테잎



· 1부 제대령
· 2부 관욕
· 상영시간 각 66분
■ 가격: 각 ₩25,000

윤순희 화선지

· 한지매수 20장
· 규 격 146cm X 74cm

한지는 섬유질이 많이 길긴 게 특징이며 통풍이 잘되 오랜세월이 돼도 빈질이 없어 서예, 고서 공예 등으로 많이 쓰여 진다

■ 가격: 각 ₩30,000

주목단주



■ 가격: ₩16,000
■재질: 주목 ■사이즈: 24mm

건강 옥 염주



청옥 · 백옥(小) ₩30,000
청옥 · 백옥(大) ₩40,000

반야심경 지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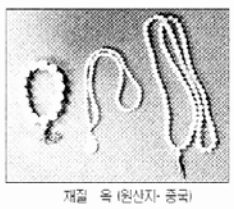
재질 대리석 석분(통가루)
규격(大) 높이 32cm×지름 25cm ₩220,000
규격(小) 높이 26cm×지름 20cm ₩140,000

금동미륵반가사유상



■코팅 · 골동품 ₩350,000
■개금 ₩580,000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 자연향101	₩2,000	◦ 수국향(중)	₩5,000	◦ 만복한방지함향	₩15,000
◦ 자연향102	₩4,200	◦ 수국불일향	₩3,000	◦ 만복백화향	₩15,000
◦ 명품향201	₩2,400	◦ 수국전단향	₩1,000	◦ 만복한방지관향	₩13,000
◦ 명품향202	₩5,000	◦ 수국우리향(대)	₩2,000	◦ 만복침향	₩10,000
◦ 전단향301	₩3,000	◦ 수국우리향(중)	₩2,000	◦ 만복신자단향	₩15,000
◦ 자연향(일반향)	₩1,000	◦ 수국단군향(대)	₩1,000	◦ 만복천연목향지관	₩15,000
◦ 명품향(일반향)	₩1,400	◦ 수국단군향(중)	₩1,000	◦ 현상공덕향(지장보살)	₩8,000
◦ 칠성기도향	₩4,000	◦ 오분향 생기향세트	₩60,000	◦ 현상공덕향(석가모니불)	₩8,000
◦ 수국향(대)	₩5,000	◦ 만복보원향	₩20,000	◦ 현상공덕향(관세음보살)	₩8,000

달마순금판 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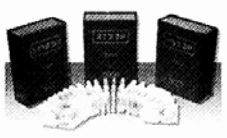
규격 27×32cm (액자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266호
가격: ₩120,000
상반신

달마순금판 액자



규격 27×32cm (액자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266호
가격: ₩120,000
전신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한국불교총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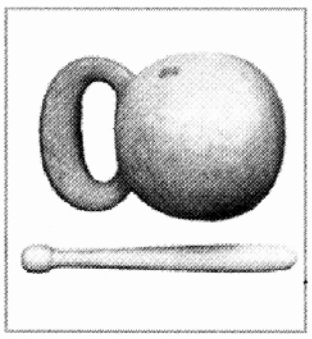


4×6배판/ 1,114쪽/ 양장제본
가격:₩120,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 살구나무목탁(2.6인치)	₩13,500	• 살구나무목탁(5.7인치)	₩117,000
• 살구나무목탁(2.8인치)	₩15,300	• 살구나무목탁(6인치)	₩126,000
• 살구나무목탁(3인치)	₩19,800	• 용무늬목탁(4인치)	₩81,000
• 살구나무목탁(3.2인치)	₩27,000	• 용무늬목탁(4.2인치)	₩86,400
• 살구나무목탁(3.5인치)	₩32,400	• 용무늬목탁(4.5인치)	₩90,000
• 살구나무목탁(3.7인치)	₩39,600	• 용무늬목탁(3.7인치)	₩75,600
• 살구나무목탁(4인치)	₩45,000	• 대추쌍목탁열쇠고리	₩5,000
• 살구나무목탁(4.2인치)	₩50,400	• 목탁단주	₩7,000
• 살구나무목탁(4.5인치)	₩54,000	• 벽조목외목탁열쇠고리	₩3,000
• 살구나무목탁(4.7인치)	₩72,000	• 목탁열쇠고리(향)	₩1,000
• 살구나무목탁(5인치)	₩81,000	• 목탁열쇠고리(대추)	₩5,000
• 살구나무목탁(5.2인치)	₩90,000	• 목탁열쇠고리(벽조목)	₩3,000
• 살구나무목탁(5.5인치)	₩99,000		



목어(木魚)

절에서 쓰이는 사물중의 하나이며 나무를 깍아 물고기 모양으로 조각하고 속을 파내어 만든 목어는 어고,목어고,어판 이라고도하며 배부분 안쪽의 양면을 나무 막대기로 두드려서 소리를 내고 물속의 모든 물고기를 제도하는 의미를 담고있다.

목탁(木鐸)

불교의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불구(佛具)로서목어에서 유래 되었기 때문에 그 형태도 고기모양을 하고 있으며 긴 고기 모양의 목어와는 달리 둥근 형태로만들어진다. 앞부분의 입과 입 옆의 둥근 두 눈(구멍)으로 고기형태를 나타내고있다. 이것을 사용하는 수행자들이잠을 자지않는 물고기를 연상하여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할 것을 유도하는 도구이다. 목탁의 구조는 둥근 본체와손잡이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체의 속은 비워지도록 파여져 있으며 중심 부분을 수평으로 가로질러양쪽에 직경으로 구멍을 뚫고 위쪽은 양쪽 구멍을 경계로하여 두부분으로 갈라지도록 되어 있고 아랫 부분은통채로 손잡이와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목탁을 칠때에는 가운데를 쳐야 소리가 잘나며 한쪽옆이나 밑부분의 통나무를 치게 되면 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
목탁채는 목탁을 때리는 부분은 도톰하며 손잡이 쪽으로내려오면서 차차 가늘어지다가 맨 밑 부분은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볼록한 방울 모양으로 끝을 맺고있다.목탁을 칠때는 왼손으로 목탁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들고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목탁채를 잡아 손을움직이며 목탁을 친다.

바위속에 숨은부처



비디오 테잎
가격: ₩13,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박범훈 작곡집 1(CD)



가격: ₩9,500

날개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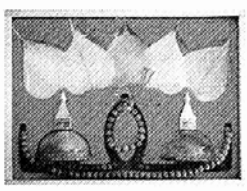
가격: ₩9,500

연좌대불상 진주



규격 25×30cm 가격:₩100,000

석가모니 탄생관련 성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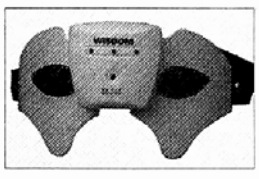
성품내용 성염(오색원) 성토, 성수, 성주 (인증서 첨부) 가격:₩148,000

쑥 환



₩56,000 (1달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눈안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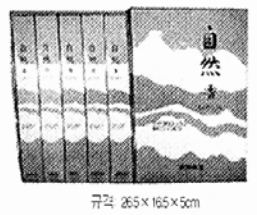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경 상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자연향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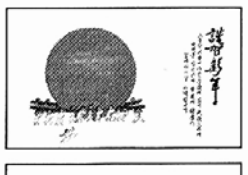


규격 265×165×5cm
가격: ₩10,000(개당 ₩2,000)

신년 연하장

잘될 새천년 해를 지고가는 아이들

귀의 삼보하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후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謹賀新年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가격: 5,000원 ■매수: 10매
■지상 혜안스님 작품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무궁한 부처님의 가피를 존경하는 분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마음 가득한 불심", "온누리 가득한 자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불심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부처님께서 성도(聖道)하신 바로 그곳 인도의 불교성지(佛敎聖地)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직접 모셔온 이 성불 인사장으로 마음 아리도록 소중한 분들의 새 천년을 열어주지 않으시렵니까? 부처님의 여러 모습이 그려진 보리수 잎은 그림과 같이 고급 색한지 위에 모셨고 본 보리수잎 성불인사장은 잎의 훼손을 피하기 위하여 우송용 봉투를 포함, 1매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한장 한장 정성들여 만든 수공예 인사장 입니다.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박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려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과(造果)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물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연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산촌 들깨유과	90,000원	산촌 콩유과	30,000원
산촌 김유과	90,000원	산촌 쑥유과	30,000원
산촌 잣유과	100,000원	산촌 호박유과	30,000원
산촌 대추유과	100,000원	산촌 김치유과	90,000원
산촌 땅콩유과	100,000원	산촌 된장유과	90,000원
산촌 흑임자유과	100,000원	산촌 고추장유과	90,000원
산촌 파래유과	90,000원	산촌 감자튀김	54,000원
산촌 찹쌀유과	30,000원	산촌 감자유과	54,000원

※ 1BOX : 4kg 공통

향적원…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풋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계율로 번뇌끊고 열반 이른다

혜능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5>

지계공덕

착한 법 짓고 화합 이루는 근원 방편
항상 자기를 반성하는 삶 살 수 있어

부처님께서 안타 국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계율을 잘 지켜라.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계율을 범하지 말라. 계율은 도에 들어가는 기초요, 번뇌를 없애는 길이며, 열반에 이르는 길이니라. 그러므로 계율을 가지는 이에게 큰 공덕이 있느니라."『현우경』

깨달음의 근본인 계율을 찬양하면서, 붓다고사(覺音) 장로 비구도 위숫디막가(『청정도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밖에 무슨 향기가 바람을 따라서, 또는 바람을 거슬러서 날아올까? 어떤 계단이 그를 하늘의 문으로 이끌까? 무슨 문이 니르바나의 도시를 향해 열려 있을까? 계율로 장신구를 한 현자는 진주로 장식한 왕보다 더욱 빛나네. 계율을 지키는 자는 비난받을 것들을 없애고 즐거움과 칭찬을 얻네. 그러므로 그대 알아야 한다네. 지계의 힘, 공덕의 근원, 결점의 제거에 대한 모든 가르침들이 여기(계율)에 있음을."

계율은 우리 생활을 제한하거나 억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다. 계율은 곧 질서이며 평등과 화합의 정신이다. 인간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려는 대자비심이다. 그래서 "보살은 계율로써 사람을 제도하여 생사의 바다를 건너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게 한다."(『승지율』)고 하셨다. 계율은 착한 법을 짓게 하는 근원이며, 착한 행법을 지어 최상의 불과(佛果)를 이루고 피안의 언덕에 이르게 한다. 계를 지키는 일은 남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스스로 착한 행법을 지어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문인 것이다.

모든 불자가 계율을 엄격히 지키기만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중 속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부처님은 입멸을 앞두고 이렇게 당부하신다.

"너희들은 내가 죽은 후 스승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내가 말한 법과 율이 너희들의 스승이다."『열반경』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불자들은 바라제목차, 즉 계로써 스승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계는 부처님이 제정한 것이므로 계율을 존중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불자라면 마땅히 계율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출가자들에게 있어서 비구가 근본대계(살·도·음·망의 네 가지 계)를 한 가지라도 범하면, 반드시 환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대계 이외의 비구 250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참회를 하여 스스로의 청정을 회복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계율을 제정한 가장 중요한 근본 정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근본 정신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올바른 지계의 정신에 의해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대중의 화합을 도모함 없이, 단지 계율을 핑계삼아 다른 이의 범계나 잘못을 비평하는 데 그친다면, 불교 교단에는 차츰 순수하고 올곧은 수행자가 줄어들고 범계한 사람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오직 계율로써 스승을 삼을 뿐이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종류의 새가 있느니라. '구시라'는 소리는 좋은데 모양이 추하다. '새매'는 모양은 좋은데 소리가 좋지 않다. '올빼미'는 소리도 추하고 모양도 추하다. '공작새'는 모양도 좋고 소리도 아름답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도 네 종류가 있다. 얼굴은 잘 생기고 행동도 점잖으나 법을 외우지도 못하고 받들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새매 같은 사람이다. 외모는 비록 허름하고 행동거지는 뛰어나지 못하지만, 항상 법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스스로 받들어 행하는 사람은, 구시라 같은 사람이다. 계행도 지키지 않고 법을 들지도 않으며 혹 들어도 바로 잊어버리는 사람은, 올빼미 같은 사람이다. 행동거지도 점잖고 얼굴도 단정하며 법을 항상 받들어 행하고 작은 허물도 부끄러워하며 고쳐나가는 사람은, 공작새 같은 사람이다."『증일아함경』

계율은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거울과 같다. 계율을 스승으로 삼으면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항상 참회하고, 기도하고, 발원하는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참다운 지계 생활임을 명심하자.

〈해인총림 율원장〉

"탐진치로 살면 지옥 계정혜로 살면 극락"

"자락능사(自樂能捨)하면 신경여성(信敬如聖)이요, 난행능행(難行能行)이면 존중여불(尊重如佛)이니라." 자기의 즐거움을 능히 버릴 줄 알면 성인을 믿고 공경하는 것과 같고,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는 것은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경진년입니다. 새천년이니 밀레니엄이니 하는데, 오늘의 해와 어제의 해가 다릅니까? 똑같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집니다. 단지 숫자만 다를 뿐이예요.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경진년을 맞이하는 선우회 법우들은 이런 생각을 같이 합시다. 지금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세계 운세며 개인 운세가 나오고 있어요. 운세에 너무 끄달리지 마세요. 거기에 현혹되면 불자가 아니라 운명론자입니다.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 아뇩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다고 했는데, 반야의 기본은 계정혜 삼학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탐진치 삼독에 빠져 지옥생활을 하게 되고, 계정혜 삼학을 생활화하면 열반적정에 이르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잘살고자 하면 계정혜로 살고, 벌레같이 살려면 탐진치로 살면 됩니다. 부처님 법대로 생활하는 것이 뭐가 힘듭니까. 오히려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경진년 새해에는 불자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시다. 그런데 혼자만 열심히 하고 남편과 아이들은 다른 종교를 믿도록 놔두는 불자들이 많아요. 기독교에서는 거의 드문 일입니다. 불자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면 왜 남편, 자식을 교화시키지 못했습니까. 주부가 불교를 제대로 알고 남편, 아들, 딸을 불교로 이끌어야지요. 사실 불교공부를 열심히 했다 해도 막상 설명하려면 머리 속에서만 뱅뱅 돌고 말로 잘 안나옵니다. 법회 때 법문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공부하세요. 아이들한테도 맞는 책을 읽게 해주고 말입니다. 산만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참선을 시키세요. 자세가 바르면 산만한 것이 줄어듭니다. 정신까지 달라지는 것이지요.

새해에는 개인적인 소망 성취 외에도 평화통일발원을 합시다. 민족의 복지는 남북통일입니다. 통일기금 통장도 만드세요. 독일 통일 때도 경제적으로 힘들었잖아요. 북한동포 한사람 정도는 책임질 수 있어야 해요. 저소득층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통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민족의 복지사업입니다.

새해에는 가정윤리를 회복합시다. 요즘 가정윤리가 위험수위에 달했어요. 주부, 가장이 바로 서야 합니다. 가정윤리를 나부터 세웁시다. 신(身)·구(口)·의(意) 삼업(三業)이 청정해야 가정윤리가 섭니다.

새해에는 신심을 가지고 좀더 체계적으로 불교를 실천합시다. 〈법화경〉 9품 5백제자 수기품에 보면 평생 부처님을 시봉했던 다문제일 아난존자가 제일 마지막으로 수기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제자보다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아난존자가 왜 마지막으로 수기를 받았을까요. 불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안듣는 것보다 듣는 것이 낫겠지만 반드시 명상, 좌선, 참회기도, 염불, 독경 등을 해야합니다. 독경을 해도 뜻을 새기며 해야 해요. 보현행원품에 10대원이 나오는데 경진년에는 참회업장원, 수희공덕원, 이 두가지만 실천하세요. 참회업장원은 삼업을 참회하는 것이고 수희공덕원은 다른 사람이 공덕 짓는 것을 보고 기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장보살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원을 가진 어머니와 같은 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의 지옥중생제도 원을 만분의 일이라도 마음에 담고 정진하는 불자가 됩시다. 지장보살의 후예로서 소외받는 이들을 살피면서 삽시다.

정리=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법회중계

선우회 정기법회

〈2000년 1월 25일〉



혜창스님 〈선우회 회주〉

불교는 체험하는 종교 많이 듣는 것보다 좌선·독경·염불해야

독일인 불교서 마음의 평화 찾는다

세계의 불교학 (5) 독일-4 〈끝〉

강좌·도서 등 영향 불교 대중속으로
독일불교련·불교의 집 주요단체 등장

문화관광부가 최근 발간한 〈해외 각국의 종교현황과 제도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독일인 가운데 기독교인은 71% 선이다. 이 수치는 29%의 독일인은 불교나 이슬람교와 같은 외래 종교를 믿고 있다는 뜻이다. 또 수치상으로 독일에서의 주류 종교는 분명히 기독교라는 점을 확인시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타종교가 빠른 속도로 독일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뜻도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독일의 유력한 시사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의 92년도 25호에는 이러한 상황을 진단한 글이 실려 있다. '신으로부터의 작별'이라는 주제의 이 기획 특집면에는 '25%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이 글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는 독일불교의 현주소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25년 전까지만 하여도 독일인 94%가 기독교인이었는데 반해 현재 71%에 불과하다. 더욱이 1967년까지 기독교인 중 25%가 매주 일요일 교회나 성당에 갔었는데 지금은 10%이며, 이들 가운데 12%는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독일인 중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71%이지만, 이들 중 정기적인 신앙 활동을 통해 그 세계관을 실천하는 사람은 겨우 2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신교와 천주교가 반반인 기독교국가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팽배해진 개인주의 풍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을 자연발생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회의 변혁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유로운 사상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독일불교학의 성과물들이 학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교리강좌와 소책자와 팸플릿 등을 통해 사회 각 계층으로 스며들었기에 가능했다. 세계 일류수준에 와 있다는 독일불교학계의 원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읽기에 부담없고 또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독일인의 머리와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통일 후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던 '유럽불교도대회'는 많은 관심과 시사점을 불러 일으켰다. '다양성과 단일성'이라는 주제하에 다양한 불교전통의 공통된 기초를 일깨우고, 유럽에서의 상호 인간이해를 위한 불교의 심오한 가르침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기회로 삼았다. 특히 독일 통일 후 그리고 동유럽 공산정권 붕괴 후 등 서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에서 동·서유럽의 불자 4천여명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유럽내 불교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독일 제 2공영방송인 체트데 에프(ZDF)는 '문화초점'이라는 주간프로그램에서도 독일 내의 불교상황을 상세히 소개하여 많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기도 했다.



◇티벳불교 사원 건축 현장에서 자원봉사하는 독일인 불자들.

▲독일불교연합= 1955년 독일불교협회를 모태로 출발하여 1958년 독일불교연합으로 개칭된 독일 최대 불교단체. 현재 6만여명이 100여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연꽃〉이라는 계간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한 해 두 차례 정기모임을 열고 각 지역에서 전개되는 불교계 활동을 점검하고 교류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1992년에는 베를린 광라이스 암 케스통스그라벤에서 '연합 창립 40주년 기념-불교의 날'을 개최해 독일에서의 불교의 위상을 한차원 높이기도 했다.

▲베를린불교협회= 루르트 슈미트박사(1879~1975)가 1951년 창립한 단체. 현재 비영리 공익단체로써 약 1천여명의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는 베를린에 있는 크고 작은 불교단체 20여개와 종파를 초월해 교류하고 있으며, 협회 내에 개설된 도서관과 법당 그리고 공동세미나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독일불교계에서 가장 탄탄한 명상 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불교의 집= 파을 달케 박사가 개원한 독일 최초의 사찰. 1942년 나찌의 비밀경찰에 의해 대부분의 경전들이 압수당한 채 폐쇄됐다. 1957년 다시 개원한 이 사찰은 스리랑카 불교포교회인 '독일달마회'의 소유로 넘어갔다. 이 단체는 수천 권의 장서로 가득한 도서관이 유명하다. 장서는 베를린시 과학·예술국의 지원으로 마련되고 있다. 1958년부터 이곳에는 스리랑카에서 온 스님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불교강연회 법회 참선 독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항상 진행되고 있다. 또 조용하고 풍광 좋은 숲속 언덕 위에 위치해, 달라이 라마가 베를린 방문시 꼭 찾는 사찰로도 유명하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는?

자연만을 고집하는 구생복지원 암행스님이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일대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잠인진쑥(茵陳蒿)을 여러 처사님들과 함께 직접 채취하여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 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서 강원남부생약농협 식품사업부에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순수익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선착순 300명에게는 뼈에 관절이나, 골다공증, 골절 등에 특효라는 홍화씨를 스님들이 직접 유황과 불재를 뿌리고 재배한 토종홍화씨환 100일분을 드리겠습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변비에 좋습니다.
2. 피부를 윤택하게 해줍니다.
3. 피를 맑게 해 줍니다.
4. 손, 발이 치거나 저린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5.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6. 당뇨병
7. 신경통
8. 생리불순이나 냉대하
9. 류마티스나 관절염
10. 심장이나 방광에도 매우 좋습니다.
11. 간이 나쁜사람
12. 위장병에도 효과적입니다.
13.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줍니다.
14. 중풍에도 좋습니다.
15. 고혈압, 저혈압
16.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17. 정력 회춘에도 아주 좋습니다.
18. 눈을 맑게 해 줍니다.
19. 불면증, 황달
20. 담즙 분비를 많이 해 줍니다.
21. 산모에게도 탁월한 효과!

☎ 주 문 처 080-988-4774
☎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

잘 먹고 싸고 자고 보고 듣고 느끼고 숨쉼이
최고의 깨침이자 사랑인
-혁명중의 혁명-『하나한』- 비전중의 비전

食事를 진지(眞知)로
배설을 이바지(以波止)로
취침을 주무심(住無心)으로

見을 觀으로
聽을 請으로
접촉을 滿朕으로
呼吸을 숨(息)으로
의식을 여의주로 다듬어

프라스틱 몸을 프리즘으로
요지경 마음을 조요경으로
富身 영혼을 當神으로

5박 6일 진진한 놀이 통해
애벌레 아닌 나비로 사는 비결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교의없이 가능하도록
언어 이전의 존재 자체 속에 담긴 신비 만끽
(자기감옥 탈출에서 대상과의 합일거쳐 스스로가 길이요 생명까지)

▶ 일시: 매월 셋째 월 15:00~토12:00(장소관계 1회 10명 통보받은 분만 가능)
▶ 장소: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517-1 전화 0337-885-1011 팩스 885-1022
▶ 회비: 求教(99)만원에서 多夢(33)만원까지 입금구좌 농협 111-12-330006

⊙ 창안자 일시구님은 육사를 나와 월남전에서 희아의 시체를 끌어안고 인간을 해부하기로 결심한 후 30년간 오직 궁극과 헌심을 여하히 쉽고 간결히 관통하느냐에 매진, 구름사이로 하늘 본지 20년 만에 구름열고 하늘땅 사는 법을 일반에 삼가 공개함.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새천년!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온누리 자비 광명(光明)으로
두루하신 부처님!
21세기를 향하여 떠오르는
밝은 아침입니다.

그동안
현대결혼연구원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미래 지향적인
혼인문화를 새로운 각도로 구상하고
이상적인 만남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 가피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더른 사랑으로 현대를 지켜봐
주십시요



원장 이 영 숙

■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게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7-2호 현대 골든텔(오피스텔) 8층 811호
강남역 (2호선) 3번출구
☎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야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새로운 천년시대에 경진년 용의 꿈은 천년의 운명을 밝게 해줍니다.

⊙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 인터넷 ◆ http://www.mahamall.co.kr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주)(02)2242-0331, 2242-0255 (야)(02)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이렇게 들었다 참교육

1월28일 교육 목적을 위한 체벌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체벌 허용 여부와 교사 재량권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 인정한 판단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사이의 일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여전히 입맛을 씁쓸하게 한다.

참교육은 학교와 가정, 교사와 학부모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 잘 가르쳐 달라고 회초리를 선물하는 학부모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는 학생들이 있을 때, 그리고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아이들을 '된사람'으로 키우려는 교사들의 열정이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참교육을 위한 스승과 제자의 도리를 새겨보자. 〈편집자〉

스승을 부처님 공경하듯 하라

▨스승은 다섯가지 일로 제자를 돌보아야 한다. 첫째는 불법에 의지해 조어(調御)함이요, 둘째는 그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침이요, 셋째는 그 질문하는 바를 따라 망념을 잘 풀어줌이요, 넷째는 그 선지식임을 보여줌이요, 다섯째는 자기의 아는 것을 다 가르쳐 아끼지 않음이다.
〈장아함경〉

▨스승은 다섯 가지 일로 제자를 측은히 여기며 가르쳐야 한다. 다섯 가지란 학문을 배우게 하며, 지극한 기예(技藝)를 가르치며, 배움에 민첩케 하며, 선도(善道)를 가지고 인도하며, 현명한 친구를 따르게 함이다.
〈선생자경〉

▨본의(本意)를 알고 있어야 남을 가르치기가 쉽다.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려 하면 먼저 저를 가르쳐야 한다.
〈불치신경〉

▨가르침을 펴면서 듣는 자를 위해 대비(大悲)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악마의 소행이다.
〈마역경〉

▨다섯가지의 꾸짖는 법이 있으니 함께 말하지 않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가려서 가르쳐 주지 않음, 그가 바치는 것을 받지 않음, 착한 이를 칭찬하지 않음, 의지가 되어주지 않음이니라.〈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잡사〉

▨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일이 있을 때는 꾸짖어 가르쳐 주어야 한다. 첫째는 신심이 없음이요, 둘째는 게으름이요, 셋째는 거친 말이요, 넷째는 부끄러움이 없음이요, 다섯째는 악지식(惡知識)과 가까이 지냄이다. 다만 다섯 가지 일 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라도 다 꾸짖어 가르쳐야 한다.
〈유부근본비나야율〉

▨스승은 공양과 공경을 받고서 다음의 다섯가지 일로 보답하는데, 속히 가르쳐서 때를 놓치지 않게 하고, 다 가르쳐서 모자람이 없게 하며, 제자가 자신을 능가함에 질투하지 않으며, 엄한 스승과 착한 벗을 소개해 주며, 임종에 이르러 재물을 주는 것이다.
〈우바새계경〉

▨제자는 스승 있는 곳에서 거친 말을 하지 못하며, 스승의 꾸짖음에 대꾸해서는 안되며, 스승의 상석을 먼저 닦아서 먼지나 개미 따위가 없게 해야 하며, 스승에게 자주 가서 필요한 것을 물어야 한다.

제자는 스승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침을 뱉지 못하며, 스승의 경행(經行)하는 곳은 늘 쓸어야 하며, 스승의 하는 일을 힘껏 도와야 하며, 남 있는 곳에서 스승의 과실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
〈선공경경〉

▨제자는 마땅히 다섯 가지 일로 스승을 바르게 존경하고 바르게 봉양해야 한다. 다섯 가지란, 모르는 점은 반드시 밝혀서 질문하며, 배움을 반드시 사랑하며, 일을 반드시 민첩히 처리하며, 그릇된 행위가 반드시 없게 하며, 스승을 반드시 공양함이다.
〈선생자경〉

▨제자가 스승을 공경해 받드는 데는 다섯 가지 일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필요한 물건을 공급함이요, 둘째는 존경해 봉사함이요, 셋째는 존중해 기대함이요, 넷째는 가르침을 따라서 어기지 않음이요, 다섯째는 스승으로부터 들은 가르침을 잘 수지해 잊지 않음이다.
〈장아함경〉

▨스승 공경하기를 부처님 공경하듯 해야 한다.
〈무진의보살경〉

▨스승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스승을 보았을 때는 곁에서 섬기고 보지 못할 때는 가르침을 생각하여, 효자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같이 하며, 사람들이 음식을 생각하는 것같이 해야 하느니라.
〈중심경〉

신행 캘린더

2월9일 (수)

■법흥사 새천년 맞이 신중기도 및 철야기도=영월 법흥사는 24시간 목탁소리가 끊이지 않는 '새 천년 맞이 21일 특별 신중기도 및 철야기도'를 봉행한다.

■재가연대 홈페이지 제작 무료교육=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는 오후6시 재가연대 사무실에서 '정보화 교육지원사업 1차년도 제1강좌'를 무료로 실시한다. 최용원 불교정보센터 제작자가 홈페이지 제작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02)725-6231

■사랑방 모임=한국석불문화연구회는 오후6시 삼청동 가족아카데미아에서 '경남지역 문화재'를 주제로 사랑방 모임을 갖는다. 02)760-5138

2월10일 (목)

■부산 '맑고 향기' 노인건강센터 자원활동=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노인건강센터에서 어르신의 목욕 및 식사, 청소를 돕고, 말벗이 되어 주는 봉사 활동을 벌인다. 051)898-2672

2월12일 (토)

■서불청 대성사 정진법회=서울불교청년회는 오후6시 대성사에서 정진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대성사 주지 도문스님이 법문한다. 02)730-9108

■종교학회 불교분과 동계워크샵=종교학회 불교분과는 양일간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동계워크샵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업과 연기' '무아와 윤회'에 대해 토론한다. 02)2260-3128

■불교상담개발원 실무자 회의=조계종 포교원은 오전10시 회의실에서 불교상담개발원 실무자 회의를 개최한다. 02)720-7060

2월13일 (일)

■화엄사 새천년맞이 사천왕불공=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는 새벽4시30분 천왕문에서 새천년 맞이 사천왕불공을 봉행한다. 0664)782-7600

■서울청 관악산 시산제=서울불교청년회는 오전9시 관악산에서 시산제를 봉행한다. 각자 도시락 지참. 02)730-9108

■동화사 시민을 위한 일요법회=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는 오전 10시 통일대불전에서 대구 시민을 위한 일요법회를 연다. 이날 법회에서는 동화사 포교국장 정현스님이 기도와 축원, 법문을 한다. 053)982-0101



◇불법의 사회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국의 사찰들이 지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일요법회를 정례화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신라문화원 경주문화기행·어린이문화학교 개설=신라문화원은 경주 소금강산권 문화기행을 실시한다. 용강동고분, 소금강산동록마애삼존불, 표암 등을 답사한다. 또 신라문화원은 초등학교 4~6학년 50명을 대상(선착순)으로 신라역사과학관, 불국사, 석굴암을 순례하는 문화학교를 연다. 전액 무료. 0561)774-1950

■대비양로원 자원봉사=맑고향기롭게는 대비양로원 자원봉사 활동을 떠난다. 오전9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에 가면 누구나 동참 가능하다. 02)741-4696

2월14일 (월)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은회=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은 저녁6시 신라호텔 루비룸 영빈관에서 사은회를 갖는다. 02)2264-2085

■법주사 정초 방생법회·고운사 순례=법주사는 정초 방생법회 및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방생법회는 안동댐에서, 답사는 고운사와 봉정사로 간다. 0416)841-6221

2월15일 (화)

■총지종 종령 록정대종사 추대법회=총지종은 제7대 종령으로 재추대된 록정 대종사의 추대법회를 오후2시 서울 총지사 3층 강당에서 갖는다. 02)552-1083

■동국대 불교대학원 졸업식=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은 오전10시 본관 중강당에서 제14기 졸업식을 갖는다. 02)2264-2085

법회안내

'대반열반경' 법문



성열 강남포교원장 스님은 16일 오전 11시 법회에 참석하는 신도에게 〈부처님 말씀〉을 주제로 법을 설한다. 또 스님은 20일 오전 11시 〈대반열반경〉에 대해 법문한다. 02)539-2631

미국 순회 법회



법륜 정토회 지도법사 스님은 9~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14일 달라스, 16일 콜롬버스, 17일 디트로이트 미주 순회법회를 갖는다. 02)587-8990

통일정사서 법문

최혜명 군불교진흥회 부회장은 13일 오전10시 하남시 통일정사에서 법문한다. 0347)793-8693

'인간 붓다' 주제 강연



최봉수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는 9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인간으로서의 붓다'를 주제로 법문한다. 02)703-0108

군법당 정림사서 설법

양영모 법사는 13일 오전 10시 제28보병사단 군법당 정림사에서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법문한다. 0355)835-9316

게시판

알림

▲불기협 결산총회=한국불교기자협회는 14일 오후6시30분 종단협 회의실에서 결산총회를 연다. 02)734-0165

▲장애아 집단상담=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대화가능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은 3월 한달간 8회에 걸쳐 인간관계 및 사회적응력 등 사회 적응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0443)652-0900

▲아동공부방 운영=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교 2~6학년을 대상으로 오후1시부터 4시까지 1시간씩 전과목 학습을 지도한다. 032)677-0108

모집

▲밑반찬 자원봉사자=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수요일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32)677-0108

▲직장인 위한 2년제 야간과정=대원불교대학은 3월2일 직장인을 위한 2년제 야간 전문과정을 개설한다. 접수는 29일까지. 강의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7시~9시30분. 02)773-9171

▲주간보호소 이용 어르신=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만60세 이상 경중 치매나 중풍, 신체가 허약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비용은 일반 1일 5천원,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다. 02)385-1351

▲설잔치 위한 후원물품=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설 잔치를 위한 후원물품 후원자를 모집한다. 과일, 떡, 한과류 등 식품류와 일상생활용품. 02)365-3677

▲NIE 교육생=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11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7시 NIE(신문을 위한 교육)를 배울 수강생을 모집한다. 신문의 구성·주제신문 만들기·타인의 마음 읽기 등을 교육하며, 수강료는 3개월에 6만원이다. 02)985-0161

▲한글교실, 장애인 방과후 교실 자원봉사=두송복지관은 한글교실과 정신지체장애인 방과 후 교실을 맡아 지도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한글교실은 매주 월·화요일 2시간이며, 장애인 방과 후 교실은 월·수·금요일 2인1조 주1회 봉사한다. 051)265-9471

▲치매시설·요양원 자원봉사=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치매나 뇌졸증, 노환 등의 어르신을 위한 치매단기보호소와 요양원 호암마을에서 의료서비스와 레크리에이션, 사무보조, 식사보조, 청소, 세탁 등의 일을 도와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385-8205

▲전통의식교육생=전통불교의식연구원은 학인을 모집한다. 습의과정은 도량석, 쇳송, 각단예불, 불공시식, 신중작법 등. 02)511-0108

▲합창단원=연주암은 합창단원을 모집한다. 월2회 연습, 회비 월1만원. 02)503-2177

▲통신강원 수강생=봉선사는 불교전문통신강원 수강생을 모집한다. 전문반과 교양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0346)527-1957

▲불경한자 한문 교육과 통신반=법화삼부경 강원은 15일까지 불경한자 한문 교육과 통신반을 모집한다. 교육과목은 〈무량의경〉〈묘법연화경〉〈관.보현보살 행법경〉 등. 053)952-8711

▲법사과정 학인=해동불교 불학원 해동불교 법을대학은 불교지도자를 위한 불교학과 법사과정 학인을 모집한다. 강의는 매주 토요일 오후5~7시 있다. 02)741-0495

▲사회교육원생=동국대 사회교육원은 3월6일 개강하는 2000학년도 봄학기 원생을 모집한다. '불교란 무엇인가'를 비롯 '좌선법의 이해와 실제' '서각' '카이로프래틱' 등 50여 강좌가 마련돼 있다. 02)2260-3725

구인

▲대안학교 교사=실상사 선돌학교는 중등과정을 가르칠 대졸학력 이상의 교사를 모집한다. 0671)636-3031

▲사회교육강사=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사회교육 강좌를 맡아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시간은 주1회 1시간 정도. 02)385-1351

이전

▲해들누리 사무실=도서출판 해들누리가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70-35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322-1490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중앙선원 단청불사·천일기도 九百日 전국 禪院長·祖室·方丈큰스님 특별초청

모시는 말씀

한국불교 선종본찰(재)선학원 중앙선원은 송만공, 만해 한용운, 백용성 큰스님들께서 화주가 되어 창건되었습니다. 선학원은 3·1운동을 주도한 국운창출의 원찰이며 해방 이후에는 이효봉, 하동산, 정금오, 이청담 대선사께서 한국불교계 정화불사를 이끌어 오늘의 조계종 전통종단을 중흥케 한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선학원이 한국선종불교의 聖地임은 自他가 공인하는 事實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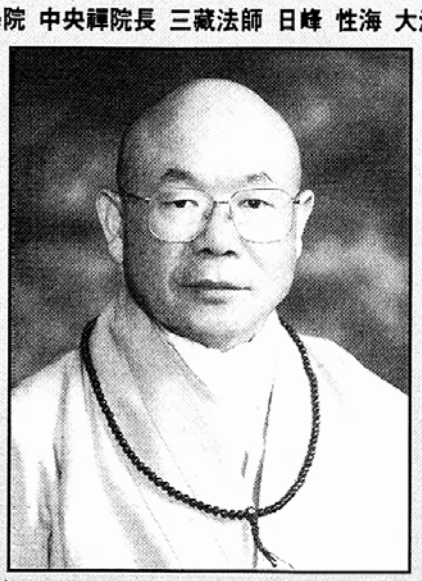
이 時代의 佛敎 聖地인 禪學院에는 특히 李成桂 太祖大王의 王師로 계시던 無學大師께서 宮터로 잡은 창덕궁(지금의 비원)의 백토를 가지고 송만공 큰스님께서 손수 조성한 부처님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선학원 부처님 외에 또 한 분의 부처님은 현재 수덕사 정혜선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선학원은 여러 명안조사님의 정기가 서려 있는 곳으로 또한 선학원 중앙선원이 동·하안거 방함록에 전국선원 중 제일 먼저 실려 있던 시절이 있었음을 돌이켜 볼 때 선학원의 禪風이 일면 한국 禪宗佛敎가 興하고 선학원의 위세가 가라앉으면 한국 禪宗佛敎가 혼돈을 겪는 것을 지켜본 후예로서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습니다. 三寶님께 발원하며 24년 만의 선학원 단청불사를 계기로 삼아 한국 선종불교 중흥 도량이 될 선학원 대작불사 서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時代의 佛敎聖地 歷史的인 佛事에 善男善女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있으시길 바라옵고 단청불사 千日기도 동참공덕으로 가정의 팔란과 고와액이 소멸되어 다행다복한 주인공이 되시옵길 축원합니다.

一柱門 建立을 위한 一人 一燈 萬人 萬燈 佛事 接受中입니다.

千日기도 九百日大法會

제10회 한국불교전통선(禪)중흥영산대설법회상

禪學院 中央禪院長 三藏法師 日峰 性海 大法師



약력: 서귀포 달라산원 선원장·미국 뉴욕 불국사 창건 주지·두일 홍법원 창건 회주 ICCBB창시자 겸 국제봉축 위원장·선학원중앙선원 원장·한국불교계정화사 건립위원장

아 래

說法 禪學院 中央禪院長 三藏法師 日峰 性海 大法師

■ 때 : 2000년 음 1월 3일(양 2월7일) 월요일 오전 11시
■ 곳 :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큰 법당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화주단
신도회·운영위원회·합창단·108보리심회·선정회·청년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40
☎ 02)732-3327, 720-8583, 720-8584
불기 2544년 음 1월 3일

韓國佛敎 禪宗本刹 禪學院 中央禪院 合掌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중흥불사 개요

① 기와 개수공사 완료 ② 내부 페인트 공사 완료
③ 단청불사 (24년만의 불사) 완료 ④ 선학원 선방 및 시민선실 내부공사 완료
1차 ⑤ 가스배관공사 및 보일러실(5개를 하나로 하는) 공사 완료
⑥ 일주문 전통양식 건립불사
⑦ 선학원중앙선원 단청불사, 중흥불사 千日기도 九百日 전국선원장·조실·방장큰스님 특별초청 韓國佛敎傳統禪中興靈山大說法會上主催 제1회~제10회(매 백일 간격으로)
2차 초청법사 제1회 황악산 직지사 조실 전관응 대선사 1997. 7. 4(양 6. 3) 성만
제2회 법수선원 조실 이성수 대선사 1997. 11. 13(양 12. 12) 성만
제3회 선학원 중앙선원 조실 이법행 대선사 1998. 2. 23(양 3. 21) 성만
제4회 승광사 조계총림 방장 법일보성 대선사 1998. 윤 5. 3(양 6. 26) 성만
제5회 회계사 조실 송산행원 대선사 1998. 8. 13(양 10. 3) 성만
제6회 전 조계종 종정 송서암 대종사 1998. 11. 23(양 1. 10) 성만
제7회 월금산 등화사 조실 진제 대선사 1999. 3. 3(양 4.18) 성만
제8회 설각산 보광사 조실 정일 대선사 1999. 6. 13(양 7. 25)
제9회 월공산 성전암 회주 철종 대선사 1999. 9. 23(양 10. 31)
⑧ 선학원 창건 사적비 세움 (3.1 운동주도 구국원찰)
⑨ 한국불교계 정화사 刊行 및 이時代佛敎聖地 宣布法會

화주단
황자현심 손진여심 오만덕화 박보리성 권지애심 이보현심 박덕순화 이광덕 이관음행
박선혜일 김복덕성 윤보공심 민길상심 송경헌 신옥순 김도원행 김마하연 유정혜성
송법성심 정선덕행 정본각성 이법왕자 이지혜장 고만덕성 이보원심 운영위원 및 합창단원

신도회
명예회장 엄무영월
고문 양보타원 이연화심 이경희 김명심행 엄공덕화 정본각성
회장 이관음행
부회장 이반야행 최복식 유정혜성 황자재심
총무 신성지행 이법왕자
재무 손진여심 신원명심
감사 박선혜월
감사 권법연화
1지역회장 이반야행
2지역회장 유정혜성
3지역회장 최복식
4지역회장 황자재심
운영위원일동
합창단장 유정혜성
단장 김진실행
108보리심회 회장 최인순
총무 박보리성
선정회 회장 백경주
부회장 박보리성
총무 이상은
운영위원 일동
청년회장 이상훈

약도
종로경찰서
청경궁 ← 안국동 로타리 → 경복궁
3호선 안국역
안국역에서 150m
선학원

● 전철노선 : 3호선 안국역 하차
● 버스노선 : 안국동 종로경찰서 하차
(84, 8-1, 205, 543, 2, 8, 20, 153)

'총선불교연대' 생긴다

15개 불교단체 참가 9일 발족

4·13 총선을 맞아 각 시민단체들의 낙선·낙천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단체들은 (가칭)2천년총선불교연대(총선불교연대)를 구성해 불국토 구현을 목표로 정치참여에 나선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전국불교운동연합, 조계사청년회, 대학생불교연합회, 새시대불교포럼,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자비의전화, 우리는선우, 불교환경교육원, 좋은벗들, 불교인권위원회, 불교장기수후원회, 한국불교서예인협회 등 15개 불교단체는 9일 총선불교연대를 발족시키기로 했으며, 대한불교청년회, 교수불자연합회,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도 참관단체로 참여한다.

지난 2일 모임을 가진 이들 단체 대표들은 상임공동대표에 청화스님(실천승가회 공동대표)과 박광서 재가연대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불교의 무소유정신과 불살생·불투도의 지계정신으로 2000년 총선이 '바른 심성'을 소유한 정치 지도자를 뽑는 계기가 되도록 정진하기로 했다.

총선불교연대는 "사회에 대한 불교의 외면과 무관심이 오늘의 정치현실을 만든 '사회적 공업(共業)'임을 자각하자"면서 "한국불교의 총체적 참회를 통한 30여년간 정치권력에 대한 의존과 예속을 극복하기 위해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선불교연대는 이를 위해 불교에서 제시하는 정치지도자상, 정치윤리 등에 대한 토론회와 포럼, 인터넷 주제발표 등을 통해 불교적 정치개혁과 유권자 주권운동의 이론적인 배경을 정리하기로 했다. 또 총선시민연대가 선정한 공천반대인사명단에 포함된 불자의원들을 비롯, 다른 종교단체와 연대해 종교인 정치인들(공천반대자 67명중 50명)의 참회를 촉구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인권유린 행위자와 민족정신을 훼손시킨 공천반대인사들에 단호한 반대입장을 개진하기로 했다.

이번 불교총선연대의 결성은 총선시민연대가 지역별·권역별·분야별로 활동을 세분화기로 한 것에 발맞춰 부산·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의 낙천·낙선운동 및 유권자 권리찾기 운동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특히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관계자였던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불심이 깊은 부산 지역구에서 '전국 최다득표율 당선'을 공언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대표적인 15개 불교시민단체들은 2일 재가연대 강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4·13총선 낙천·낙선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보리방송모니터회 총선 감시연대 동참

보리방송모니터회는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민주언론운동연합회, 여성민우회,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참교육학부모회, 기독교회협의회, 언론지키기시민연대 등 11개 언론단체와 함께 선거보도 감시연대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4일과 27일 이 단체들은 모임을 갖고 앞으로도 몇차례의 워크샵을 거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로 결의했다. 보리방송모니터회의 김재일 회장은 감시연대 공동대표를 맡았고 박창규총무는 감시연대 실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잠정적으로 보리방송모니터회는 방송 3사의 특집방송 모니터를 담당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선거기간동안 자원봉사로 참여할 모니터요원을 모집하고 있다. (02)712-5812.3 김재경 기자

등산객 벽돌나르고 공양하고 예불올리고

도봉산 천축사 대웅전 불사

지난 1월 30일 북한산국립공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배낭에 벽돌을 3장씩 넣어 둘러매고 산을 오른다. 1.6Km쯤 산을 오른 끝에 이들이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유서깊은 사찰 천축사. 짊어지고 온 벽돌을 증축불사가 진행중인 대웅전 옆에 차곡차곡 쌓아놓고는 곧바로 공양간으로 향한다. … 잠시 후 공양을 마친 사람들은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는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천축사(주지 현공)가 시민들로부터 불사 도움을 받고 이들에게 점심공양 등의 답례를 통해 포교에 나서고 있어 화제다.

천축사가 등산객들로부터 벽돌나르기 도움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대웅전 건축불사를 시작했지만 북한산국립공원 입구 매표소를 1km 지난 서원터에서부터 천축사까지는 차가 올라갈 수 없는 등산로여서 기와나 벽돌을 운반할 방법이 없었다. 천상 헬기를 이용해야 했으나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무리였다.

이때 신도회가 배낭을 만들어 사찰까지 짊어나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등산객들의 동참이 이어졌다. 사찰로서는 반갑기 그지없는 일. 등산객들에게 다과를 대접하기 시작했고, 계속해 등산객들의 도움이 줄을 잇자 점심때는 아예 공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자 공양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당을 참배하는 등산객들이 늘었고 자연스럽게 주지스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포교효과까지 올리고 있다. 요즘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하루 평균 많게는 500명 이상이 사찰을 참배한다.

현재까지 이렇게 쌓아올린 기와와 벽돌은 모두 23만장. 아직 올리지 못한 벽돌 10만장과 모래 100톤은 올해 6월까지면 다 올라오게 될 것으로 사찰측은 예측하고 있다.

주지 현공스님은 "공사비 절감효과도 크지만 무엇보다 일반인들이 사찰을 참배하고 신심을 내는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비록 증축불사이긴 하나 천축사 대웅전은 일반인들이 세운 법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불국사 가장 대표적이고 좋아하는 문화재"

문화재청 설문조사

우리나라를 가장 잘 대표하면서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재는 경주 불국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청장 서정배)이 '청' 승격을 계기로 지난달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의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의 문화재 인식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는 불국사(26.1%)-숭례문(13.1%)-석굴암(11%)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좋아하는 문화재는 불국사(17.3%)-석굴암(11.1%)-팔만대장경(7.9%)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존이 잘된 문화재로는 불국사-팔만대장경-숭례문-경복궁을 꼽았고 보존이 안된 문화재로는 복원 및 보수논란이 있어온 석굴암과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숭례문과 흥인지문을 들었다. 이와 관련 천연기념물의 보존이 잘 안되었다(1.8%)는 의견도 있어 최근 환경파괴와 더불어 천연기념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화재보존의 실태를 묻는 설문에서는 잘 안되고 있다(54.6%) 보통이다(27.2%) 잘되고있다(18.2%)로 나타나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며 그 이유로는 정부의 제도미비(38.5%) 국민의 무관심(18.1%) 무분별한 개발(17.4%) 감독소홀(11.9%)등을 지적했다.

우리 국민들은 또 문화재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주로 신문이나 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해 취득하고(74.4%)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의 문화재 보호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한다(76.9%)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품문화재의 해외전시에 대해서는 줄이기(43%)보다 늘려야한다(56.9%)는 의견이 높아 해외전시의 위험성보다는 해외전시를 통한 국위선양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윤호 기자

이런일이 있나

서울시 합창단 찬송가 콘테스트

서울시합창단(구 서울시립합창단)이 교회음악인 고스펠송 보급에 앞장서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 합창단은 '제1회 CCM 콘테스트'를 오는 3월 18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갖는다며 이는 국내 교회음악의 현주소를 점검, 수준높은 음악을 개발 보급하고 기량있는 신인 고스펠 음악인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축제라고 하였다.

종교편향대책위 손상훈국장과 통화한 서울시 합창단의 총무는 "합창단구성원의 90%가 기독교인이고 이들이 각 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어 행사를 기획했다"라고 행사취지를 소개했다.

종교편향대책위는 이에 대해 "당 행사는 교회차원에서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할 일이지 서울시 합창단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뉴스 & 뉴스

btn, 2월중 후원회 결성

불교TV(사장 주양자)는 1월29일 본사 회의실에서 '제32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2월 안으로 후원회를 조직해 경영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또 후원회장에 김기재 前 행정자치부장관을 선임키로 했으며 전상배 동민신경정신과원장을 신임이사로 영입했다.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불교TV 주식을 감자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뚜렷한 결론을 맺지 못했다. 김주일 기자

'길상화 장학금' 제정

고급 요정 '대원각'을 불법의 도량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김길상화(김영한)보살의 공덕을 기리는 장학금이 제정됐다. 맑고향기롭게(회주 법정스님)는 20일 오전 11시 '맑고향기롭게 길상화 장학금' 전달식을 갖는다.

장학금은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생과 각 학교 및 성북구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받은 불우청소년 22명에게 전달된다. 도필선 기자

백담사, 인제군에 장학금

백담사(주지 득우)가 최근 3년동안 인제군에 3,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미담이 되고 있다.

백담사는 지난 1월22일 인제군청을 방문,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98년부터 3년동안 재단법인 인제군장학회에 매년 1,000만원씩 기탁, 지역인재 양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김재경 기자

강원도 12개사찰 복원 정비

강원도가 사찰환경 개선과 문화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도내 12개 사찰을 연내 복원·정비한다.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국비·지방비 등 모두 27억6,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춘천 청평사 행각 복원을 비롯 10개 시·군 13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김재경 기자

캐나다 토론토 정혜사 개원

캐나다 토론토 정혜사는 오는 27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포교에 나설 예정이다. 주지 정혜스님은 개원후 캐나다인을 위한 한글학교와 교민을 위한 영어학교 운영으로 주민복지에 전력하며 효과적인 포교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황룡사 전시관 연내 착공

경주시 279억 들여 2002년 완공

신라 최대의 호국사찰이었던 황룡사지 유물전시관이 연내에 착공돼 오는2002년 완공될 예정이다.

경주시는 2백79억2천4백만원을 들여 황룡사지 인근 7천5백여평의 부지(경주시 구황동292-1번지)에 연건평1천8백여평의 황룡사지 유물전시관을 건립키로 하고 설계공모에 들어갔다.

경주시는 오는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뒤 문화재청의 승인을 거쳐 연내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양식을 가미한 현대식 건물로 세워질 황룡사지 유물전시관에는 전시실과 역사변천과정실 수장고 공공시설등이 들어간다. 특히 전시실과 역사변천과정실에는 첨단 영상기법을 도입하여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기존의 박물관과 차별성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의 담당공무원은 "황룡사9층목탑을 본떠 만든다는 애초의 계획은 원형고증의 어려움과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주=이윤호 기자

한마음선원 신도 120명 호국적성사 위문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스님은 신도 120여명과 함께 1월20일 25사단 70연대 호국적성사(법사 이정훈)를 방문하고 군장병불자들을 위로했다.

이정훈 법사는 호국적성사를 방문한 한마음선원 신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상승OP, 70연대 제1, 2, 3대대를 안내해 법당 및 불교지원 등 상황을 설명했다. 혜원스님은 이들 부대에 냉온수기 온풍기 VTR 등과 지원금을 전달했다.



한편 이정훈 법사는 혜원스님의 지원을 받아 호국적성사 중창불사를 할 계획이다.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 호국적성사는 법당 중수 외에도 법당 아래에 위치한 불상과 법당을 직접 잇는 108계단 및 요사채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코스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아바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사청앞, 3호사앞, 3조선 경북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일타큰스님의 유고법문집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큰스님 著 / 신국판 / 5,000원

참선·염불·간경·주력!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큰 행복과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며,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 책은 일타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고집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염불·간경·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상하게 설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타큰스님의 열반….
큰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오리다.

오계이야기

일타큰스님 著 / 4×6판 / 3,500원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의 필독서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할 5계!
계율을 잘 지켜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하면 고요하고 맑은 선정을 이루어 지혜의 빛을 발하게 되고,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살생·투도·사음·망어의 근본 4계에 불음주계를 합한 5계에 대해, 재미있는 일화를 들어 각 계율의 연원과 지키는 방법, 계율을 범했을 때의 과보 등을 자세히 설했습니다. 이 책은 근본 계율에 깃든 의미를 깨달아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들의 필독서입니다.

· · · 바른 수행의 길잡이 · · ·
일타큰스님의 다른 저서들

·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신국판 / 값 5,000원
· 기도 (祈禱) 신국판 / 값 5,000원
· 생활 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 불자의 기본예절 4×6판 / 값 3,500원
·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신국판 / 값 5,000원
· 범망경보살계 1 - 5 신국판 / 각권 6,000원
· 시작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법공양문 신국판 / 값 5,000원
· 감로법문 (5개 1세트) / 값 12,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총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제5회 신행수기 당선작(종단협의회장상)

백 의 관 음

현 재 명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그림 · 이준석

소년시절, 우리집에는 높이 약 40cm 가량의 하얀 도자기로 조성된 관세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었다. 그 관세음보살상은 어머니가 모셔놓은 것이었다. 그외에도 금색의 부처님상이 모셔져 있었으며, 뒤 벽면에는 관운장의 족자가 걸려 있었다. 즉 어머니는 당시에 관운장의 신명을 받은, 꽤 이름있는 무속인이었다. 이런 상황은 고교졸업 전까지 계속되었고 나의 성격형성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그때부터 관세음보살님과의 인연은 시작되었던 것 같다. 지금은 그 하얀 도자기의 관세음보살상이 어디에 모셔져 있는지 알 길이 없으나 가끔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리며 그리워 해보곤 한다.

우리나라 불자들은 대체로 관음신앙을 주로 하는것 같다. 때문에 〈천수경〉이 가장 많이 독송되고 있는 것일 것이다. 보통 무슨 일이 있으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듯이 우리에게는 관음신앙이 체질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저런 연유로 나도 자연스럽게 관음신앙에 젖어들게 되었다.

1974년 음력 정월 초하루, 아내와 함께 새벽 3시에 절을 향해 집을 나섰는데 눈이 쌓여 있었다. 찾아가는 절은 초행이라 길도 잘 모르고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산 정상 가까이에 있는 절을 향해 어림짐작으로 길을 잡았다. 신발에 새끼줄을 감고 눈덮힌 산길을 미끄러지고 엎어지면서 겨우 당도하였다. 아내는 어려서부터 친정 어머니를 따라 절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절의 예절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초심자였으므로 아내를 따라 열심히 예불과 기도를 드렸다. 우리 부부는 처음 만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만났으므로 내 기도는 오직 먹고 사는데 곤란하지 않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게해 달라는 것이었다.

1978년 가을, 급성기관지염이 걸리더니 그것이 나음만 하니까 급성간염에 걸렸다.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고 우선 4주를 기본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하였다. 당시에 나는 수입이 변변치 않아서 병원에 다니지 않고 자가치료를 하기로 하고 조카가 매일 집으로 와서 주사를 놓아 주었다. 그러면서 직장에 다녔다. 그러나 근무중에 굉장히 피로를 느껴서 틈만 나면 소파에 누워 있었다. 건강이 무너지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짐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 보다못한 아내가 동네인근 절에 기도를 가자고 하였다. 매일 2시간씩 3일간 아내와 함께 정성껏 기도를 하였다. 아주 간절히 다른 생각은 일체 끊고 병이 나아지기를 염원하였다. 기도중에는 피로한 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였다. 3일 기도를 마치고는 주사맞기를 중단했다. 병이 나은듯한 느낌이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간기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우리가 의사에게 솔직히 기도 얘기를 해주었더니 매우 놀라워 하면서 완쾌를 기뻐해 주었다.

노점상 하면서도 간절히 기도 힘찬 비상의 날을 고대하며… 3년만에 청와대서 일하게 됐다

친척중에 천주교 신자가 있다. 몇 년 성당에 다니더니 나를 만나면 천주교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곤 한다. 나도 천주교에 대해선 어는 정도 알고 있는 터였다. 어쨌거나 얼마후 나는 그 친척의 말 때문은 아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마음의 동요가 생겼다. 천주교로 종교를 바꾸어 볼까 하는. 그래서 아내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도 천주교로 개종하면 어떨까 했더니 아내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느냐는 듯이 내말을 묵살해 버렸다. 나도 그냥 잊고 며칠 후 절에 가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계단을 내려오다 발목을 삐게 되었다. 아내는 천주교 개종 운운 해서 그런거라며 나를 나무랐다. 나는 가슴이 섬뜩하여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지팡이에 의지해 절뚝거리며 겨우 산을 내려왔다. 그 일을 겪은 후 나는 더욱 더 신심을 굳히겠다고 마음속으로 몇번이고 다짐을 하였다.

그후 나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노점상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니 여름에는 더위에 지치고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거리질서 단속 때문에 이리저리 쫓겨 다녀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당장 뾰족한 수가 없으니 하루 하루를 바쁘고 무의미하게 지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짜증은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는 막연하게나마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꿈꾸고 있었다. 그 꿈의 정확한 실체는 없었다. 그저 현재와 같은 노점상의 상황에서 벗어나 좀 떳떳한 직업을 가져야 겠다는 것이었다.

광소에 열심히 일하고 틈틈히 망해암에 가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를 힘찬 비상의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런 노점상 생활을 한지 3년이 지났다. 그런데 그 기원이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졌다. 내가 청와대에 근무하게 된 것이다.

시쳇말로 조상의 묘를 잘 써야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청와대에 출근하게 된 것이었다. 나를 아는 주위의 사람들이 놀라고 부러워하는 가운데 우리는 열심히 절에 다니며 기도하였더니 이런 날도 있구나 하는 감동을 누를 길이 없었다.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적시며 부처님의 공덕이라고, 관세음보살님의 보살핌이라고 하면서 더욱 더 깊은 불심의 세계로 들어갔다.

몇년 후 의정부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사한 집에서 조금 올라가면 동네의 끝이고 산이 시작되는데 그 곳에 절 '자은사'가 있었다. 우리 부부는 자은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모든 일에 동참해 봉사하였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음력 정월 초하루, 사월 초파일, 칠월 칠석에는 꼭 안양 망해암에 먼저 새벽으로 다녀와서 동네의 절에 갔다. 몇 년 후 절이 중창불사를 하게 되었다. 아내는 공사기간 내내 절에 가서 스님들과 공사 인부들의 공양 뒷바라지를 하였다. 나는 나대로 직장에 다니면서 심부름을 도맡아 했다. 중창불사는 아무 탈없이 끝나게 되었다. 준공법회 때 그 동안의 봉사에 대한 배려로 나는 감사패를 받게 되었다. 그 감사패는 바로 부처님께서 내려 주시는 거나 다름없다고 여기면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몇 년 후 웬만한 절에서는 시행하기 어렵다는 만등불사를 하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이 만등불사의 성취를 위하여 노심초사 전력투구하며 불사에 동참하였다. 그 결과 만개의 등은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6천여 개의 등불이 온 도량에 밝혀져 일대 장관을 이루며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이 만등불사를 마치고 나니 다른 어떤 불사도 치를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다.

경기 포천 금주산 중턱에 금룡사가 있다. 그 금룡사에는 북을 향하여 우뚝 서 계시는 백의관세음보살님이 계신다. 밤에는 법당과 관세음보살님에 전기 조명을 비추어 멀리서도 그 나투신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놓았다. 처음 그곳 길을 낮에 가다가 뵙고 그 웅장함에 놀랐는데 밤에 지나다가 뵌 관세음보살님은 아주 감동적이었다. 불자가 아니더라도 그 모습에는 가슴 뭉클한 환희심을 느낄 것이다. 나는 그 앞을 자주 지나다니는 편이다. 그리고 그 웅장하고 자애로운 관세음보살님을 뵈올때는 운전중에 한 손을 가슴앞에 대고 예불을 한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박찬 환희심으로 메어져 오곤 한다. 따라서 나는 그 앞길을 지나가기를 좋아한다. 특히 밤에는 더욱 그러하다.

수년전 토요일 오후 친척과 함께 이동 방면으로 외식을 하러 간 적이 있었다. 저녁 식사후 돌아올 때는 캄캄한 밤이 되었다. 도중에 갑자기 아내가 토할 것 같다고 하였다. 급히 차를 세워 토하게 하였는데 입가심할 물이 없었다. 칠흑같은 밤에 멀리 등불 하나만 깜박이는데 어떻게 물을 구하나 걱정을 하는데 어찌하다 밑을 보니 병이 하나 보였다. 혹시나 해서 집어 보니 뚜껑도 따지 않은 음료수병이었다. 그 음료수 덕분에 아내는 입가심을 하고 복통을 가라앉힐 수가 있었다.

그 자점이 바로 금룡사 근처였다. 나는 속으로 관세음보살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였다. 같이 갔던 친척은 기독교인이었는데 관세음보살님의 보살핌이라는 우리의 말에 기적같은 일이라며 공감을 해 주었다.

불교에 귀의한 후 나름대로 공부를 하려 하였으나 생활여건이 공부에 심취하기엔 미흡했다. 그러던 중 인연이 닿아 조계사 불교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계기가 생겨 졸업후 조계종 포교사가 되었다. 그러나 이름만 포교사이지 공무원인 관계로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포교활동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6년 10월 5일 직장에 불교신행회가 창립되었다. '청와대불교신행회'라는 명칭으로 창립되었는데 이는 종교계나 언론계에 상당한 관심을 일으켰다. 나는 앞장서서 회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온갖 심부름을 다 하면서 청와대불교신행회의 번창을 기원하였다. 1년 여가 지나면서 약간 그 활동이 저조하다가 1998년 9월 16일 '청와대불자회'로 명칭을 바꾸어 재 발돋움하는 법회를 가졌다. 이 때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총무간사로 임명되어 예전과 같이 정불회를 위하여 동분서주하였다. 그러나 나 자신이 1999년 3월 명예퇴직함에 따라 더이상 정불회에 봉사를 할 수 없게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그동안 조계종 포교원에서는 포교사단을 결성하여 나는 경찰포교팀에 소속되어 알하고 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지만 나는 굳이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애써 변명하고 싶지 않다. 물론 궁극적으로야 깨달음을 이뤄야 하겠지만, 우선 복을 빌고 복을 받고 그 가피를 느끼며 수행을 하다보면 종래에는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부처님의 가피를 크고 작게 여러번 받아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 관세음보살님은 더욱 더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간절히 염원하면 그 원을 들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그 자비로운 손길로 고난을 넘어가게 힘을 주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

나에게는 내 나름대로의 포부와 원이 있다.

그 첫째는 타종교가 불교보다 우월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내는 일이다. 아니 불교가 모든 종교의 근본이라는 것을 입증해 내는 일이다. 어쩌면 이 일은 나 혼자의 힘으로는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힘이 자라는 데까지 노력할 것이다. 둘째는 각 종단이나 각 사찰에서 공통적으로 두루 쓰일 수 있는, 통일된 불경책을 편찬해 내고 싶다. 그리하여 그 한권만으로 어느 때, 어느 절에 가서라도 바로 틀림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리고 생활여건이 허락될 때, 관세음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도량을 건립하여 수행정진하려 한다. 나는 이미 그 도량의 명칭도 지어놓고 있다. '화불정사(化佛精舍)'. 관음보살 42수주 진언에 화불수진언이 있는데 이는 나는 곳마다 부처님 곁에 있고자 하는 원이 담긴 진언이다. 바로 이 진언에서 따온 이름이다. 그리하여 수행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병고와 인생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하고 함께 깨달음을 이루고 싶다. 그리고 밤마다 기도하련다.

"관세음보살님 꿈에라도 한번만 그 자비로운 모습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인터넷 마하몰

새 천년 새 희망

마하몰 불교상품으로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02)732-1522(직)
02)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수암 만다라 옥침



수암만다라옥침은 두개의 회전구 표면에 각기 약 300여개의 묘족한 옥침과 내부에 강력한 영구자석과 천연옥을 합성시켜 원적외선과 자기력을 발산하도록 만들어 졌다. 수암만다라옥침으로 손바닥의 경혈을 자극함으로 효과는 수지침과 동일하며 옥과 자력의 상승작용으로 그 효과를 더욱 높여준다.

■가 격 : 30,000원
■재 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헤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7가우스 X 4개

대나무 숯 염색천



신라시대 경주에서 숯불로 밥짓고 요리하고 염색한 옷을 해 입은 것은 사치가 아니라 숯의 원적외선, 음이온, 환원력 등을 활용한 기막힌 과학입니다. 이런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조금이나마 현대인들에게 대나무숯을 가까이 하끔 착안한 것이 숯 염색천 입니다. 숯 염색옷의 치료 예방효과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천은 지리산 청학동에서 직접 만든 100% 수제품입니다.

■크기 : 44인치 X 5.50야드 ■색상 : 진회색/회색 ■가격 : 60,000원

바른자세 건강방석 참선명상방석



바른 자세가 건강한 정신과 편안한 마음을 만듭니다.
현대인들의 척추보호 및 교정을 위하여, 오랜시간 참선이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혁신적인 발명품.
어젠 바르게 허리펴고 건강하게 생활하십시오.

■가 격 : 27,000

사이즈 - 가로 43 cmX 세로39cm
실용신안 특허 공개 실 19998-025009
의장등록 출원 제 14387호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발우



여기 이 '황토 질그릇 발우'는 순수한 황토와 인체에 유해한 화공약품이 아닌 낙엽 태운 천연유약과 1300도 불의 조화로 형성된 투박하고 자연적인 옹기로써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본 제품은 해인사 율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한 와발우(瓦鉢盂)이다.

■가격 4합 : 6만원 - 무게 2.7kg
2합 : 3만원 - 무게 1kg

불자 반디라이트 펜



불자들을 위한 천진동자의 여러 모습이 새겨져 있는 반디라이트 펜입니다.펑스텐 볼펜 심이 LED램프의 중앙을 통과하도록 특수 설계되어 일반 산업체의 야간 근무현장, 영상 교육 중 메모, 경찰이나 군인의 야간 경계근무 혹은 작전시 등 일반 비즈니스맨이나 학생, 운전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으로 개인용도는 물론 판촉용, 선물용으로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가 격 : 25,000원 ■1세트 : 10개入

불 자 반 야 반 지



불자의 자긍심을 새겼습니다.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태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팔정도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正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십육대력(十六大力)
지력(志力), 의력(意力), 행력(行力), 참력(勸力), 강력(强力), 지력(持力), 혜력(慧力), 덕력(德力), 변력(辯力), 색력(色力), 신력(身力), 재력(財力), 심력(心力), 신족력(神足力), 홍법력(弘法力), 항마력(降魔力)

■가 격 : 18K 130,000원
14K 120,000원
용 량 : 16개 큐빅 / 금 1.5 돈

※호수에 맞게 제작하여 드립니다.